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 연구

-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黃珈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 연구

-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고정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황 지 애

(黃珈, HUANG JIA)

황지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가치문화의 핵심인 가족주의에 초점을 두어 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전제로 하여, 타문화를 접하는 학습자들의 자문화를 고려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현대시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를 통해 타자의 삶의 조건을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문화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공유할 수 있다. 둘째, 가족주의가 한국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연구문제로 선정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가치문화의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고 가치문화로서의 가족주의 문화의 속성 및 요소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국 현대시가 가치문화를 교육하는 데 적절한 제재라는 관점에서 교육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제시하였다.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의 단계는 '시 텍스트 이해를 통한 문화이해의 활성화', '경험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소통', '성찰을 통한 상호문화적 태도의 형성'의 세 단계로 구성되며, 이는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의 이론적 바탕이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실제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의 양상을 '시 텍스트 이해에 입각한 문화이해', '경험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소통', '성찰을 통한 상호문화적 태도의 형성', '학습자 집단별 반응의 특징과 타문화 이해의 한계'로 나누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통해 가치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우선 주어진 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목표문화에 접근하게 된다. 다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환기시켜 텍스트와 관련된 과거의 문학 경험이나 사회·역사적 문화경험을 통해 가치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 간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소통함으로써 끝으로 학습자는 개인적 정체성

의 특성을 깨닫게 되면서 상호문화적 관점을 형성하고, 시적 공감을 통해 자문화에 대한 성찰 의식이 생기면서 가치관 의식을 재확립하게 된다. 아울러 본고는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학습자 집단별 반응의 특징과 가치문화 이해의 한계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중국인 학습자의 가치문화 반응 양상 분석에서 확인된 가능성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교육의 설계를 구안하였다. 우선 교육의 목표는 '지식 습득을 통한 문화 이해의 구체화', '비교와 소통을 통한 문화 해석 능력의 신장', '시적 공감을 통한 정의적 문화 이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어서 교육의 내용은 '현대시 문화정보 해석을 통한 가족주의 문화의 특수성 강조', '상호텍스트 관계의 현대시 읽기를 통한 개인희생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확보',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맥락 이해를 통한 가부장제에 대한 고정관념의 탈피'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은 '교사의 발문 제공을 통한 시 텍스트 이해의 촉진', '재한·재중 학습자의 감상문 공유를 통한 상대적 관점의 조화', '학습자 간 토론 및 교사와의 대화를 통한 성찰적 태도의 형성'을 제시하였다.

아직까지 한국어 문화교육에서 특히 현대시를 활용하여 가족주의 문화를 다루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현대시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자문화와 한국 가치문화를 관련짓는 과정에서 타문화에 대한 인식을 객관화하고 자문화에 대한 성찰적인 반성과 가치관의 재확립을 촉진시키며, 상호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한국어교육, 한국 현대시, 상호문화 이해, 가족주의, 가치문화, 문화 간 소통

학번: 2019-20543

목 차

국문초록	i
목차	iii
I.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4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5
II.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의 전제	34
1.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의 이론	34
1.1 가치문화로서의 가족주의 문화	34
(1) 가치문화의 개념 및 특성	34
(2) 가족주의 문화의 속성 및 요소	37
1.2 상호문화교육에 입각한 가치문화 교육	46
1.3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의 성격	49
2.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의 단계	51
2.1 시 텍스트 이해를 통한 문화이해의 활성화	52
2.2 경험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소통	54
2.3 성찰을 통한 상호문화적 태도의 형성	55
3.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의 의의	58
3.1 시어표현을 통한 문화 향유	58

3.2 문화 간 소통을 통한 능동적인 인식 탐색	59
3.3 성찰적 가치 인식에 기반한 태도 조정	60

Ⅲ.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반응 양상

63

1. 시 텍스트 이해에 입각한 문화이해

64

1.1 시적 언어표현을 통한 문화정보 발견	64
1.2 시적 정서 체험을 통한 타문화의 정의적 접근	72

2. 경험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소통

79

2.1 경험과 관련짓기를 통한 자기 인식 탐색	79
2.2 사회·역사적 맥락을 통한 타문화 이해의 확장	87

3. 성찰을 통한 상호문화적 태도의 형성

91

3.1 시적 공감을 통한 가치관 의식의 재확립	91
3.2 주체적 태도 조정을 통한 비판적 인식의 형성	95

4. 학습자 집단별 반응의 특징과 타문화 이해의 한계

96

4.1 재한 학습자: 개인의 문화 경험으로 인한 한국문화 특수성 이해 부족	96
4.2 재중 학습자: 자문화중심주의로 인한 개인희생 공감 부족	99
4.3 재중·재한 학습자: 가부장제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	101

Ⅳ.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교육의 설계

104

1.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교육의 목표

104

1.1 지식 습득을 통한 문화 이해의 구체화	105
--------------------------------	-----

1.2 비교와 소통을 통한 문화 해석 능력의 신장	106
1.3 시적 공감을 통한 정의적 문화 이해	106
2.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교육의 내용	107
2.1 현대시 문화정보 해석을 통한 가족주의 문화의 특수성 강조.....	108
2.2 상호텍스트 관계의 현대시 읽기를 통한 개인희생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확보	109
2.3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맥락 이해를 통한 가부장제에 대한 고정관념의 탈피	110
3.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교육의 방법	111
3.1 교사의 발문 제공을 통한 시 텍스트 이해의 촉진	111
3.2 제한·재중 학습자의 감상문 공유를 통한 상대적 관점의 조화	113
3.3 학습자 간 토론 및 교사와의 대화를 통한 성찰적 태도의 형성	116
V. 결론	118
<참고문헌>	122
<부록>	130
<Abstract>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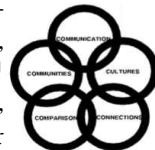
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고는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가치문화 핵심인 가족주의에 초점을 두어 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한국 현대시가 가치문화 교육의 제재로 적합하다는 관점에서, 타문화를 접하는 학습자들의 자문화를 고려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 문화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계화에 따라 21세기 사회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교류가 낮설지 않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장애와 갈등은 언어 자체에서 비롯된 문화적 차이에 원인을 두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층위에 놓인 문화적 패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외국어교육도 단순한 언어교육을 넘어 문화를 통한 언어교육, 문화나 문학에 대한 지식 혹은 문화 자체에 주목한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목표 언어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공유된 가치나 신념, 믿음, 사회구성원의 태도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문화이해는 불가능한 것이고, 의사소통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미국의 21세기 외국어 학습을 위한 미국국가외국어학습표준¹⁾(National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NSFL)을 참조하면, 미국 외국어교사회(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ACTFL)는 외국어 학습에서 필수적인 기준인 5C 중

1) 미국 NSFL(2006)에 의해 외국어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Communication), 문화(Cultures), 연계(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공동체(Communities)로 설명하여 이러한 5C 외국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어 교수 시 학생에게 언어 체계, 문화, 의사소통 전략, 비판적 사고력, 기술사용능력 등을 탐구,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U.S.),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21st century*, 3rd ed., Yonkers, NY: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2006, pp.31-36.



에서 문화(Cultures)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문화 학습은 “목표문화의 관점과 행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문화의 관점과 문화적 산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목표 사회의 문화적 산물 및 행동은 이를 생산한 사회의 가치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고, 외국어 문화 학습에서 목표 언어 사회의 가치와 문화적 관점을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가치문화는 목표문화의 이해와 습득을 관통하는 핵심 요소이다.

‘가치’는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사회와 그 사회의 구조, 그리고 인간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문화 학습에서 가치의 중요성은 홉스테드가 도출한 모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문화의 표현을 ‘상징, 영웅, 의식, 가치’로 제시했으며, 문화 분류를 양과겹질 모양으로 도식화하여 가치를 ‘문화의 핵심 축’²⁾으로 가장 깊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통해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가치문화는 다른 문화의 기저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어떠한 설명 없이도 쉽게 관찰 가능한 한국의 패션이나 사물, 또는 타문화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행동들 역시 그러한 물질과 행위의 기저에 깔려 있는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 없이는 성립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문화 교육은 대부분 객관적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문화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패션, 음식 등 한국문화의 표면적인 성취문화나 행위문화에만 집중하고, 이러한 문화의 기저를 이루는 심층적인 가치(정신, 관념)문화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가치문화에 대한 문화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자의 과제이다. 본고는 이러한 가치문화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제재로 한국 현대시를 제

2) G. J. Hofstede & M. Minkov,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3th ED.),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정신의 소프트웨어』, 학지사, 2016, pp.27-30.

안하고자 한다.

문학작품은 구체적인 언어활동으로서 살아 있는 언어 자료³⁾이며 작품 속에 있는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추상적인 가치문화를 실제로 형상화할 수 있다. 또한 문학은 문화의 하위분야이자 문화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가치문화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가능해진다. 콜리(J. Collie)와 슬레이터(S. Slater)가 문학작품은 가치 있는 실제적인 자료이고, 언어적·문화적으로 풍부하며, 개인적 연관이 일어날 수 있다⁴⁾는 점에서 문화교육에 있어 문학작품 활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외국어교육에서 문학, 특히 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말리와 더프(A. Maley & A. Duff)에 따라 크게 열 가지⁵⁾로 제시할 수 있는데, 시 활용의 장점 가운데 하나인 '반응과 개인적 연관(reaction and personal relevance)'은 시가 매우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 개인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르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의 '빈자리'에는 학습자가 상상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 및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킬 수 있으며, 시 속에는 학습자가 스스로 한국문화와 관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또한 시 읽기를 통해 타자의 삶의 조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공감과 연민을 느끼고 세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공유할 수 있다. 상호문화교육 관점에서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기본 원칙들'인 '인간성', '다양성', '타자', '정체성', '이질성', '탈중심', '감정이입', '상호문화성' 등 개념을 고찰해 볼 때, 현대시는 상호문화교육의 기본 원칙을 잘 반영하는 텍스트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장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고는 가족주의 가치문화 요소를

3) 윤여탁,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Vol.14 No.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 p.133.

4) J. Collie&S. 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3-6.

5) 말리와 더프(A. Maley&A. Duff, 1989)는 시의 효용성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다. 보편성(Universality), 사소한 성격이 아님(Non-triviality), 동기유발 효과(Motivation), 언어조작의 용이성(Hands-on), 모호성과 학습자의 상호작용(Ambiguity and interaction), 반응과 개인적 관련성(Reaction and personal relevance), 암기의 용이함(Memorability), 리듬(Rhythm), 수행활동(Performance), 압축성(Compactness)이 그것이다. 오지혜, 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 『국어교육』 Vol.0 No.131, 한국어교육학회, 2010, p.561.

담고 있는 한국 현대시를 활용하여 한·중 문화를 비교·성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호문화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사 검토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가족주의 가치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현대시를 교육제재로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어교육에서의 가치문화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가치문화에서 가족주의 문화에 대해 논의한 연구 그리고 현대시를 통한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한국어교육에서의 가치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에서는 관념적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정신문화'(박영순(2003)), '관념문화'(권오경(2009), 장청원(2018)), '심층문화'(한하림(2014)), '가치문화'(강현화(2007), 신윤경(2011), 윤영(2014), 고경민, 김세준(2015), 정미경(2017), 박성(2019), 조연하(2019))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다수의 논문들에서도 '관념적 문화'를 지칭했을 때 '관념문화, 정신문화, 가치문화'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가치문화는 관념문화나 정신문화와 거의 같은 문화유형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관념적 영역의 속하는 문화유형을 범위를 좁혀 '가치관'만으로 보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혼선은 다음의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주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고는 가치문화의 개념과 그에 따른 상·하위 범주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어교육에서 가치문화와 동일한 의미로 통용된 연구를 모아 정리해보고자 한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대표적인 관념적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 표로 제시할 수 있다.

<표1: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관념적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정리>

문화	선행연구	문화요소
정신문화	박영순(2003)	가치관, 민족성, 세계관, 정서, 상징체계, 사상 및 종교.
관념문화	권오경(2009)	민족성, 가치관, 세계관, 정서, 믿음, 사상, 집단무의식, 집단의식.
	장청원(2018)	'공동체 의식, 가족주의, 권위주의' 세 가지 하위 문화요소로 구성한 관념문화: '집단주의'.
심층문화	한하림(2014)	개인의 전 삶의 양식과 태도, 믿음, 가치관 등에 미치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적인 세계의 경향성.
가치문화	강현화(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주의: 효, 제사, 가부장제, 한국인의 탄생과 죽음. ●집단주의: 우리, 음식문화, 혈연/지연/학연, 집안끼리 결혼문화. ●권위주의: 서열, 체면/눈치/배려, 권위의식, 권위주의 속의 한국여성. ●다른 것은 틀린 것: 획일적 유행, 혼혈문제, 빨리빨리 문화, 술과 회식. ●유교적 역동성: 서구적 산업화, 빠른 서비스, 교육열, 회사의 가족주의. ●한국인의 신명: 노래문화, 놀이문화, 대중문화. ●한국의 종교와 엑스터시: 무속, 기독교, 불교와 유교, 굿과 샤머니즘. ●혼돈을 통한 한국인의 미의식: 직관 발달, 미의식/곡선, 자연미, 질서 의식. ●남·북한의 문화와 통일 지향: 북한의 우

		상 숭배, 언어와 문화의 이질성, 정치/제도의 이질성, 통일을 위한 몸짓. ●변화하는 가치보기: 정보 발달, 연애/결혼, 직업문화, 건강문화.
	신윤경(2011)	가장 중요한 가치문화로 가족주의 제시: '가족주의 요소: 효(孝)'
	윤영(2014)	'가족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 세 가지 가치를 통합한 가치: '가족주의적 집단주의'
	고경민, 김세준(2015)	'가족주의', '저항의식'
	정미경(2017)	●권력거리가 다소 존재함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공존하는 문화 ●여성성의 문화가 강한 편 ●불확실성회피가 다소 높은 편 ●장기지향적인 편 ●자제성이 큰 편
	박성(2019)	●집단주의: 중한 양국 모두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권력의 차이가 큼 ●남성성-여성성: 중국 남성성/한국 여성성 ●불확실성회피: 중국 수용/한국 회피 ●장기지향: 중한 양국 모두 장기지향성
	조연하(2019)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결혼관, 연애관, 직업관

먼저, 박영순(2003)⁶⁾은 문화를 '정신문화', '언어문화', '생활문화', '제도문화', '학문문화', '산업기술문화'로 분류했으며, 이를 인간의 모든 생각

6) 박영순,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Vol.23 No.-, 이중언어학회, 2003.

과 행동에 의해 생성된 산물의 총칭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신문화'의 하위 범주로 '가치관, 민족성, 세계관, 정서, 상징체계, 사상 및 종교' 등 문화 항목을 제시하였다.

권오경(2009)⁷⁾은 문화 항목을 '성취문화', '행동문화', '관념문화'로 분류하였고, '관념문화'는 민족성, 가치관, 세계관, 정서, 믿음, 사상, 집단무의식, 집단의식이 전승체계에 따라 대중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다. 그의 이론을 살펴보면 성취문화와 행동문화의 기저에 관념문화가 존재하고, 이를 구성하는 정신적인 요소들 중 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관념문화는 불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 교수·학습 과정에서 관념문화가 표출되게 하거나 관련 있는 성취문화나 행동문화와 함께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장청원(2018)⁸⁾에서 관념문화란 어떤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형성된 사회활동의 공통적 심리기준이나 규칙의 총체라고 언급하였고, 범주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주로 사람들의 인식, 신념(믿음), 가치, 태도 등을 말하고 있다.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단주의 연구에서 아시아 각국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그저 유사한 집단주의로 간주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관념문화에서 하위개념인 '집단주의' 문화를 주목하였다. '공동체 의식', '가족주의', '권위주의' 세 가지 하위 문화요소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중 양국 집단주의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결과, 한·중 양국은 모두 집단주의의 기본적 특성을 갖지만 여러 요소들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집단주의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관념문화 교육을 구현하는 특성과 상호문화교육의 원리를 결합하여 문학작품을 활용한 관념문화 교육의 방안을 고안하였고, 추상적 관념문화를 구체화하여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7)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 Vol.5 No.2, 한국언어문화교육학, 2009.

8) 장청원, 「문학작품을 활용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관념문화 교육 연구 -집단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다고 본다.

한하림(2014)⁹⁾에서는 브라운&키실카(Brown & Kysilka, 2002)의 논의에 기대어 '심층문화(deep C)'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개인의 전 삶의 양식과 태도, 믿음, 가치관 등에 미치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적인 세계의 경향성“이라 정의한 바 있다. 또한 가치(value)는 특정 공간이나 상황에서 언어 공동체가 지향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특히 사람들이 행동하고 판단할 때의 근거로 강조했다.

강현화(2007)¹⁰⁾는 가치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는데, 표면적인 행동이나 성취문화의 이면에는 목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고, 문화 간의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사고방식, 태도, 믿음, 가치관, 종교관과 같은 가치 체계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후속 논문 강현화(2017)에서 Hammerly(1986)의 문화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문화를 '성취문화, 정보문화, 행동문화'로 분류하고, 행동문화는 다시 '언어문화, 일상문화, 가치문화'로 하위 범주화하였다. 강현화는 분류 체계상 가치문화를 행동문화의 하위 범주에 두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이를 문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었다.

정미경(2017)과 박성(2019)에서는 모두 홉스테드(Hofstede, 2010)의 가치문화 체계이론을 대범주로 삼아 가치문화에 해당하는 항목을 추출하여 가치문화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홉스테드의 '문화차원이론(cultural dimensions theory)'은 국가별 문화차이에 대한 연구로서, 차원이란 여러 문화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문화의 한 측면으로 정의된다. 홉스테드의 연구진은 IBM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전에 발표한 연구를 참고로 하여 경험적으로 네 가지“①권력거리(Power Distance), ②개인주의(Individualism)-집단주의(Collectivism), ③남성성(Masculinity)-여성성(Femininity), ④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문화차원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차원분류는 서양의 시각에 국한되는 것으로 특히

9) 한하림, 「한국 심층 문화 교육을 위한 다중 텍스트 구성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Vol.11 No.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10) 강현화, 「한국인의 가치문화 교수 방안」, 『언어와 문화』 Vol.3 No.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7.

아시아 사회 간의 문화차이를 설명하는 데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그는 중국식 가치조사(Chinese Value Survey: CVS)에서 얻었던 결과를 다시 분석하여 “⑤장기지향(Long-Team Orientation)-단기지향(Short-Team Orientation)“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다섯 번째 차원으로 정리하였고 또한 3 판에서 “⑥자적(自適)성과 자제(自制)성“을 추가하였다.¹¹⁾ 정미경(2017)¹²⁾은 이 논의와 기존의 다른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 범주 및 내용 설계를 권력거리가 다소 존재함,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공존하는 문화, 여성성의 문화가 강한 편, 불확실성회피가 높은 편, 장기지향적인 편, 자제성이 큰 편 6 가지의 가치체계 분류로 나누고 구체적인 가치문화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였다. 한편 박성(2019)¹³⁾은 홉스테드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한국과 중국의 가치문화체계를 분류했고 중국과 한국의 전반적인 가치 지향성을 파악했다.

(2) 가치문화의 대상으로서의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연구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의 가치문화에 대한 관점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치문화 요소는 다수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의 가치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문화요소가 바로 '가족주의'이다. '가족주의'는 단순히 가족에 한해 형성된 개념이 아니라 '권위주의'나 '집단주의'와 유기적 관련성이 있으며¹⁴⁾ 한국 현대사를 표상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리하여 본고는 가치문화의 대상으로서의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다루고자 한다.

11) 홉스테드(Hofstede, 1991)는 1970년대부터 다국적 기업인 IBM의 현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국가별 가치체계를 지수로 표현한 5가지 문화차원 이론을 제안하였다. 『세계의 문화와 조직: 정신의 소프트웨어(Cultures and Software of the Mind)』, 이후 2005년에 2차 개정판을, 2010년에는 2명의 공저자와 함께 1가지 문화 차원을 더 추가하여, 3차 개정증보판을 출간하였다.

12) 정미경,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을 위한 광고 자료 선정」, 『한국어 교육』 Vol.28 No.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7.

13) 박성, 「중국인 고급학습자를 위한 한국 가치문화교육 -현대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Vol.14 No.2, 한국어교육연구소, 2019.

14) 윤영, 「문학을 통한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Vol.40, No.-,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4. p.215.

〈표2: 가치문화의 대상으로서의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연구〉

선행연구	가족주의 문화요소	교육제재
강현화(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로 무장된 한국의 혈통주의 ●제사 문화에 숨어 있는 가족주의 ●정치에 나타나는 가부장제와 가족주의 보스중심의 정당정치 ●한국인의 탄생과 죽음 	웹 교재
신윤경(2011)	효(孝)	소설 이명수: 〈하늘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 최운식: 〈한국의 효행 이야기〉
윤영(2014)	'가족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 세 가지 가치를 통합한 가치 '가족주의적 집단주의'	소설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고경민, 김세준(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체된 가족과 절대적 가족애에 대한 향수 ●삶의 지주, 회피의 대상으로서의 가족 ●단절된 세대의 조화를 잠재한 장으로서의 가족 	소설 이청준, 〈눈길〉 양귀자의 〈한계령〉 최일남, 〈흐르는 북〉
박성(2018)	우리의식, 가부장제, 효.	영화 〈국제시장〉

장청원(2018)	<p>◎가족 형태 중: 소가족 한: 확대가족</p> <p>◎가족 구조 중: 횡적 관계중시 한: 수직적 관계중시</p>	<p>소설, 현대시 함민복, <눈물은 왜 짠가>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이청준, <눈길>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빙심(중국), <종이배-어머니께>, (冰心, 《紙船-寄母親》) 주쯔칭(중국), <아버지의 뒷모습>, (朱自清, 《背影》)</p>
-----------	---	---

신윤경(2011)¹⁵⁾은 '관념문화'의 핵심인 '가치문화'를 문화이해의 중요 요소로 파악하였는데, 가치문화의 추상적인 부분은 다른 문화 항목보다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가치문화 속에서 가족주의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효'를 바탕으로 한 집단성향을 띤 가족주의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으며,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을 통해 가치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육 효용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학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적인 개념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치문화'의 추상적인 부분을 '문학'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윤영(2014)¹⁶⁾은 가치문화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한국의 가치문화에 대한 논의들 가운데 주요 가치문화 요소를 '가족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로 추출하고, 이들을 통합한 '가족주의적 집단주의'라는 가치범주를 설정하여 10가지의 세부요소를 제시한 후,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서 이들 세부요소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또한 상호문화적

15) 신윤경,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과 문학 활용」, 『한국어문교육』 Vol.9 No.-,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1.

16) 윤영, 2014, 앞의 논문.

접근 방법에 따라 10가지(①가장의 권리, ②장남으로서의 특권과 책임, ③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④여성에 대한 차별, ⑤자신의 성공은 곧 가족의 성공(교육열), ⑥부모에 대한 효, ⑦조상에 대한 제사, ⑧결혼은 가족 간의 결합(맞선, 중매), ⑨시대 중심의 생활(고부간의 갈등), ⑩부모의 유별난 자기 자식 챙기기) 세부요소를 중심으로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4단계 7차시에 거쳐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소설 속의 가치요소를 통시적, 공시적으로 접근하고 '가족주의적 집단주의'라는 가치문화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에 의미를 갖는다.

고경민, 김세준(2015)¹⁷⁾은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는 한국인의 일상생활 및 한국의 사회제도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가치문화라고 제시하였으며, '해체된 가족과 절대적 가족애에 대한 향수', '삶의 지주, 회피의 대상으로서의 가족' 그리고 '단절된 세대의 조화를 잠재한 장으로서의 가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가족주의 문화를 논술하였다. 또한 서사적으로 한국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한 양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설을 통한 문화교육은 더욱 깊은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고, 현재적 가치문화로서의 가족문화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기 위해서 '가족'의 문화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설 텍스트 이청준의 <눈길>, 최일남의 <흐르는 북>, 양귀자의 <한계령>을 선별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교육 교수 방안에 앞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더 구체적인 문화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박성(2018)¹⁸⁾은 기존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외국인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매체를 활용하여 한국 가족주의 문화를 '우리의식, 가부장제, 효' 문화요소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고려한 상호문화를 중심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타문화를 이해할 때 자문화를 토대로

17) 고경민, 김세준,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텍스트 선정과 활용에 대한 고찰 -단편소설을 활용한 가치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Vol.0 No.54, 겨레어문학회, 2015.

18) 박성, 「영화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교육 연구 -상호문화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Vol.15 No.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8.

이해하려는 경향과 문화차이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학습자들의 자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영화를 통해 감정이입 및 공감함으로써 타문화를 이해하는 수업 방안은 교육 현장에서 실행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현대시를 통한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

우선 문화교육에서 현대시를 제재로 활용하는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정우(2001)¹⁹⁾에서는 기존의 문화교육이 지나치게 지식 전달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를 문화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한국인의 사고방식, 가치관 등이 어떻게 언어로 조직되고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정확하고도 풍부한 의미를 접할 수 있는 시를 자료로 하여 문화교육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을 보이하고자 하였다. 문화교육에서 시 텍스트 '어휘 교육: 미묘한 의미의 이해와 활용' 그리고 '구와 문장: 사고의 조직과 관습의 활용'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국의 언어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오지혜(2007)²⁰⁾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한국어 인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자율적인 변형을 통한 한국어 어감 이해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에 대한 학습자의 감수성을 고양시킬 수 있고, 실제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 언어 처리와 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한국 언어문화에 적절한 한국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어학과 문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 김정우, 「시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의 가능성과 방법」, 『先淸語文』 Vol.29 No.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1.

20) 오지혜,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범주 및 구조 설계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Vol.4 No.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국 현대시를 활용한 문화교육에서 전홍(2012)²¹⁾은 상호작용적 시 읽기를 통한 한국문화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전통적 '한(恨)'의 정서를 담고 있는 시 텍스트들을 선정하였으며, 실제 토론 수업을 진행하여 교실 내 상호작용의 양상을 밝혔다. 이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유하는 문화적 기반이 적은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상호작용 양상이 다소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사회·역사적 문화에 관한 논의에 대해 선주원은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문화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당대 사회현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문화에 대해 더 폭넓게 이해하게 하며, 미래의 삶을 대비하는 윤리적인 성찰까지 하게 할 수 있다²²⁾고 하였다. 현대시를 활용한 문화교육 연구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왕녕(2019)²³⁾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능동적 시 읽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문화적 맥락 담지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 읽기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시 읽기 단계를 '사회·문화적 맥락 담지체의 발견', '사회·문화적 맥락 간 긴장 관계의 탐구', '사회·문화적 맥락장의 구축'으로 도출하였으며, 학습자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현대시 읽기 교육에서 의미를 지닌다.

오세인(2004)²⁴⁾에서는 시를 활용한 문화교육이 대부분 광복 이전의 시

21) 전홍, 「한국어 학습자의 상호작용적 시 읽기 양상 연구 -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Vol.29 No.-,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2.

22) 선주원, 「사회문화 맥락을 반영한 문화교육 지향」, 『문학교육학』 Vol.0 No.2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23) 왕녕, 「사회·역사적 맥락에 기반한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 연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24) 오세인, 「시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정치·사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Vol.15 No.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4.

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창작된 한국 현대시를 선정하여 한국의 정치·사회 이해에 대한 교육을 구안하였다.

강소영(2016)²⁵⁾에서는 한국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역사문화 교육을 위하여 1950년대에서 1990년대에 창작된 현대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하여 한국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사회·역사적 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한국 현대시가 한국 언어문화 그리고 한국의 특징적 정서에 대한 이해, 한국 사회·역사적 문화에 대한 탐구를 위한 문화교육의 제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화교육에서 문화 지식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해석 및 자기화가 이루어져 문화 인식의 조정, 문화의 생산과 실행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가치문화 교육에서 현대시를 제재로 활용하는 연구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고는 실험을 통하여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가족주의 가치문화를 담고 있는 현대시 작품을 활용한 가치문화 수업에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상호문화 이해 양상에 주목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의 가치문화에 대한 접근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시 감상 활동지, 감상문, 인터뷰, 토의 수업 등을 통해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한국 현대시 작품을 활용한 가치문화 교육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시는 본질적으로 함축성, 비문법성,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업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생활 한국어 차원의 의사소통을 강조

25) 강소영, 「시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 연구-역사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Vol.15 No.1, 한국문예창작학회, 2016.

하는 초급 학습자보다는, 한국인의 문화나 사고를 이해하고자 하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적합하다. 따라서 가치문화 교육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고가 학습자 선정에 고려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급 한국어 학습자는 일정한 양의 어휘, 문법 지식,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능동적인 시 텍스트 읽기에 큰 문제가 없으며 목표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할 수 있는 고급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고급 학습자의 경우 시 텍스트에 내재한 표면적인 문화요소에 대한 이해를 넘어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크게 작용하는 보다 심층적인 문화요소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을 목표로 하는 고급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인 사례연구²⁶⁾(Case Study)를 적용하여 예비 실험과 본 실험을 통해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예비 실험 단계에서 먼저 학습자들의 가치문화에 대한 학습 요구,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기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 10명은 주어진 한국 현대시 두 편을 읽고 제시된 질문을 통해 감상문²⁷⁾을 작성하였다. 이중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호하거나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부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는 총 30명인데 재한 학습자 15명, 재중 학습자 15명으로

26) 사례연구에 대한 정의는 명확한 설명이 없고, 다양한 속성들을 포함하기에 학자마다 개념이 다양하다.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사례연구는 프로그램, 사건, 사람, 과정, 제도 혹은 사회집단에서 실제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와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이다.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풍부한 자료 수집의 기초에 전형적인 사례에 기대어 수집된 자료들의 특성을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략이며, 연구자가 자료들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유기웅 외,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nd ed.)』, 박영, 2012, pp.156-160.

27) 독자반응 이론에 의하면 독서 과정에 독자의 문화적 실제적 경험이나 문학에 대한 관점이나 시 분석 방법론, 독자의 감정이나 정서 등이 시를 해석하고 감상하는 데 작용한다.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고 느낀 감정을 적은 것을 통해 시 텍스트에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고 어떤 요소에 이질감과 충격을 느끼는지, 또한 이러한 느낌은 어떤 장치들을 통해 느끼게 되었는지 어떠한 요소의 간섭을 받는지를 감상문 작성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 앞의 논문, 2019, pp.28-29.

이루어졌다. 15명 재중 학습자는 모두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3, 4학년 재학 중인 고급 학습자였고, 6개월 혹은 1년 정도의 한국 교환학생 경험이 있었다. 아울러, 본 실험 단계에서는 총 3차의 실험에 걸쳐,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현대시를 읽고 작성한 활동지, 감상문, 인터뷰, 수업 중 토론 녹음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²⁸⁾수집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단계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I	이론과 문헌연구	이론 연구를 통해 가치문화교육 개념과 범주를 확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가족주의 문화의 개념과 특성을 확인하고 가치문화교육을 위한 현대시 작품을 설정하고자 한다.		
II	예비실험	설문조사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 40명	설문 조사 결과 40부
		인터뷰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 10명	인터뷰 결과 10부
		사례연구	대상: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 10명 작품: <작은 부엌 노래>, <아버지의 마음>	●시 작품 감상문 10부 ●감상문에 대한 녹음 자료 약 5시간
	본 실험	차시	연구단계 및 활동	연구대상/시 작품

28) 수집한 자료는 활동지(A), 토론(C), 감상문(W), 인터뷰(I)로 구분하였다. 자료의 표시 방법은 [실험차시_학습자 순번_자료 구분_작품]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1차 본 실험에 참여한 7번 학습자는 <어미니>에 대해 활동지를 쓴 자료는 [1차_07_A_어미니]이다. 3차 본 실험에 참여한 10번 학습자는 <작은 부엌 노래>에 대해 감상문의 자료는 [3차_10_W_작은 부엌 노래]이다.

		1차	<p>1. 수업 전: 시 읽기, 활동지 작성하기 시 작품을 읽고 작품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해 활동지 작성하기.</p> <p>2. 수업 중: 문화에 대해 발표·토론하기 ◎시 텍스트와 활동지에 대해 의견 발표하기. ◎주제에 맞는 문화 경험을 환기시키고</p>	<p>중국 D 대학교 한국어학과 3.4학년 중국인 학습자 (TOPIK 고급) 15명, 활동지 15부, 감상문 15부, 녹음 자료 약 10시간.</p> <p>오세영, <어머니>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김수영, <나의 가족> 박목월, <가정></p>
		2차	<p>학습자 개인 문화 경험 떠올리기 ◎중국문화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가족주의 문화 특성 발견과 해석하기.</p>	<p>서울 S 대학교 중국인 대학원생 (TOPIK 고급) 15명, 활동지 15부, 감상문 15부, 녹음 자료 약 8시간.</p>
		3차	<p>3. 수업 후: 감상문 작성하기 ◎정의적으로 시 작품과 공감하고 가치관 재확립하기. ◎타문화를 바라볼</p>	<p>문정희, <작은 부엌 노래> 문정희, <퇴근 시간> 김후란, <우리 가</p>

			때, 문화 간 이질성과 동질성에 대한 회복과 적응, 문화인식 조정하고 반영하기.	족>
Ⅲ	이론과 실제연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가치문화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가족주의 문화 중심으로의 관념문화 교육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기.		

예비실험에서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한국 가치문화에 대한 인식, 학습 요구 등에 대한 설문조사²⁹⁾는, 구체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때 배우고 싶은 한국 문화요소가 무엇인지, 한국 가치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0명의 고급 학습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4: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 정보〉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남	13	32.5%
	여	27	67.5%
소속	대학교(재학 중)	21	52.5%
	대학원(재학 중)	19	47.5%
한국어 학습 시간	2-3년	7	17.5%
	3-4년	18	45%
	4년 이상	15	37.5%

29) 중국인 고급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항목은 부록에서 제시된다.

체한(滯韓) 시간	없음	14	35%
	0.5-2년	15	37.5%
	2년 이상	11	27.5%

수집된 40부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보편적으로 심층적인 한국 가치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에 제시된 것처럼 '한국인의 가치관'이라는 문화 항목은 학습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배울 만한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부분이었다.

〈표5: 가치문화에 대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요구분석 결과〉

문화 항목	순위	백분율(%)
한국인의 가치관	1	20.9%
한국인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2	19.4%
한국의 사회적인 현실문화 예절/서열/개인과 집단	3	16.7%
한국의 역사문화	4	15.3%
한국인의 취미와 여가 생활, 의식주 문화	5	9.7%
한국 현대사회에서 남아있는 전통문화	6	8.3%
한국의 공공시설과 사회제도	7	6.9%
한국의 경제/정치	8	2.8%

이와 같이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의 사회적인 현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 간의 문화적 이질성을 알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의 가치관' 그리고 '한국인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대한 학습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특유한 행동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의식구조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내재적인 가치관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편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가치문화 교육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인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중·한 문화차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런 차이에 대한 더욱 객관적인 견해를 갖게 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국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구체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 가족주의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닌 일부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interview)³⁰⁾의 어원에서 'inter(사이)'와 'videre(보다)'라는 두 라틴어가 있고, 이를 조합하여 인터뷰(interview)에서 상호적 시각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인터뷰는 질문자인 인터뷰어(Interviewer)가 응답자인 인터뷰이(Interviewee)를 만나 특정한 주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교환하는 쌍방향적 의사소통 방식이다. 이는 타인의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터뷰의 주제를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상대방의 가치관의 이해로 삼았을 경우에는, 나와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진 이들을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 인터뷰의 가장 큰 장점은 책이나 웹상의 자료를 통해 얻은 정보가 일반적으로 정리된 정보 차원에 머물게 되는 것에 반해, 살아있는 사람의 육성을 통해 얻은 인터뷰 정보는 인터뷰이의 가치관이 잘 드러날 뿐 아니라 인터뷰이의 메시지에 대한 인터뷰어의 평가나 가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인터뷰어의 반성적 사유를 이끌어낼 수 있다.³¹⁾ 따라서 본고는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의

30) 유기웅 외, 앞의 책, 2012, p.255.

31) 오세정, 「말하기·글쓰기의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교육-인터뷰를 활용한 대학 수업 모형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16 No.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p.365.

비교 및 소통을 위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한국 가족주의 가치문화에 대해 어떠한 관심을 지니고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문화교육의 관점에서 한국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적인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표6: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인터뷰 분석〉

문화	문화요소	조사결과/시사점
가족주의	'개인 희생'의 불가피성	중국 학습자들은 한국의 '가족주의'의 '개인희생'에 대해 낮설어하는 태도를 보인다. '외동이어서 집에서 일순위에요', '자신이 누구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요' 등처럼 학습자들의 강한 자아주의와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다소 이기적인 반응이 있다. 문화 간의 이질성에 능동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희생'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므로, '가족주의' 문화에 잠재한 '희생'에 대한 이해 태도가 열리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정'문화	중국도 학연이나 지연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우리'의 '정'문화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 중국 사람들은 의리를 잘 지키고 한국 사람들처럼 정을 중시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지나친 '우리' 의식에 대해 '우리' 속에 포함되지 않는 소외감이 느껴진다.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탈피	중국인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가부장제' 사상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특히 한국의 '남성우월주의' 즉 '가부장제'에 아주 많은 반감을 느끼

		<p>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사회도 발전하면서 가치관도 변화가고 있고 특히 오늘날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며, 이에 탈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한국 가부장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과 열린 태도는 결핍되어 있다.</p>
--	--	---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한국 가족주의 문화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호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보편적인 중국 가족문화를 바탕으로 한국 가족주의 문화에 담긴 '우리'의 '정'문화를 파악하고, 가족주의 문화의 키워드를 '가부장제'로 간주하고 한국의 '남성우월주의' 가치관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 현대시는 사회·역사 맥락적 문화 배경에서 한국 특유의 가족주의 문화를 탐구하는 데 유효하다. 한국 근현대 문학사의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가족'이다. 가족은 역사의 변화와 가장 밀접한 사회의 최소 단위이며, 근현대 역사를 거쳐 오는 동안 국가 혹은 민족과 더불어 삶의 뿌리를 가장 깊이 두어온 곳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한 인간의 출생 이후 성장의 과정을 비호해주며, 현실 속에 가장 따뜻한 힘을 주는 생명의 공간이지만, 그 자체가 억압적이고 식민지적인 공간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은 온갖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욕망이 한데 모인 전쟁터이고, 사회집단을 상징하는 알레고리이기도 하다. 특히 가부장제, 모성 신화, 중산층 이데올로기 등은 가족을 전쟁터로 만드는 대표적인 기제들이다.³²⁾ 한국 현대시를 통해 읽어본 '가족'은 우리의 삶과 일상, 개인과 사회(역사)와의 관계를 매우 침묵하고도 포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에서 나온 험난한 시대에서 생계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외로운 아버지의 모습, 인고와 기다림의 화신으로서의 어머니의 이미지는 가

32) 김현자·엄경희, 「한국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전개와 그 의미: 현대시」, 『한국언어문학』 Vol.51 No.-, 한국언어문화회, 2003, p.460.

족주의 속의 '개인희생'의 불가피성을 반영하고, 집단적인 '우리'의 공동체 의식은 정서적으로 개인을 포용한다는 온정주의적 함의를 드러낸다. 또한 경제 정책과 의식의 진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부장제 의식의 탈피와 가족 간의 소통, 특히 여성 의식의 급진적인 성장이 가족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가족은 인간 삶의 가장 기초적 토대라는 점에서, 가족주의의 가치와 의미의 변화가 현대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인간의 삶을 추동해가는 기초적 근거에 대한 인식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인식, 파악 정도, 그리고 위의 정리한 교육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구체적인 한국 현대시 작품을 선정하였다.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7: 한국 현대시 작품과 선정이유〉

문화요소	한국 현대시 작품	선정이유
'개인희생'의 불가피성	오세영, <어머니>, 1992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1970	①개인보다 가족의 이익 최우선하는 '가족이기주의',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함의. ②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비극적인 자화상, 인고와 기다림의 화신으로서의 어머니.
'우리'의 공동체 인식	김수영, <나의 가족>, 1954 박목월, <家庭>, 1968	①집단적인 '우리'의 '정'문화와 공동체 의식. '가족이기주의'. ②가족에, 정의적으로 개인을 포용한다는 온정주의.
'가부장제'의 탈피	문정희, <작은 부엌 노래>, 1991 문정희, <퇴근 시간-신사임당이 어	①가부장제하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비판과 여성의 자기 정체성 추구. ②가부장제 봉건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우동에게>, 2018	비판과 탈피.
가족 간의 소통	김후란, <우리 가족>, 2009	①가족의 소중함. ②가족 간의 소통과 화해, 개인화의 추구.

● 오세영, <어머니>³³⁾, 1992

2008년 한국 시인협회에서 '가족'을 주제로 발행한 시집의 제목 『사철 푸른 어머니의 텃밭』을 통해 엿볼 수 있듯이, 가족 중에서 어머니를 소재로 한 시들이 유독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인들이 어머니의 이미지와 기억이 본능적으로 가슴 속에 본능적으로 내재해 있음을 보여주었고, 공통적으로 인고의 삶과 자식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⁴⁾

오세영의 시 <어머니>는 시인의 가슴에 새겨진 어머니의 모습을 일곱 살에는 “하얀 목련꽃“, 열네 살에는 “봉선화꽃“, 스물한 살에는 “노오란 국화꽃“, 어머니가 돌아가신 스물아홉 살에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빛나는 “별“, 영원히 흐르는 “바람“과 “흰 구름“으로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유년기의 어머니의 모습은 언제나 고운 꽃과 같으며, “빈 집을 지키는“ 그리고 “울 밑에서 눈물을 적시는“ 인고와 기다림의 화신이다. “하얀 목련꽃“, “연분홍 봉선화꽃“처럼 설레고 눈부신 삶을 살고 싶었지만,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자로서, 한 어머니로서의 기다림과 인고의 화신으로서의 어머니의 공통적인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해주

33) 오세영의 시 <어머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의 일곱 살 적 어머니는/하얀 목련꽃이셨다./눈부신 봄 한낮 적막하게/빈 집을 지키는,//나의 열네 살 적 어머니는/연분홍 봉선화꽃이셨다./저무는 여름 하오 울 밑에서/눈물을 적시는,//나의 스물한 살 적 어머니는/노오란 국화꽃이셨다./어두운 가을 저녁 홀로/등불을 켜 드는,//그녀의 육신을 묻고 돌아선/나의 스물아홉 살,/어머니는 이제 별이고 바람이셨다./내 이마에 잔잔히 흐르는/흰 구름이셨다.// 오세영, 『꽃들은 별을 우러르며 산다』, 시와 시학사, 1992, p.28.

34) 박영우, 「시를 통한 가족의 재탄생」, 『국어문학』 Vol.50 No.-, 국어문학회, 2011, p.78.

고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켜든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늘 가족의 곁을 지켜주기 위한 빛나는 “별“, 영원히 흐르는 “바람“과 “흰 구름“이 되었다.

현대시에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자식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과 가정에서 인고의 삶을 이겨낸 존재로서 형상화된다. 일례로 어머니의 모습은 대체로 ‘꽃’, ‘바람’, ‘구름’ 등과 같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치환물로 구체화되곤 한다.

◎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³⁵⁾, 1970

가족 안에서 ‘사회’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에 지닌 속성이 사회로 확대되기도 한다.³⁶⁾ 남성이 가정에서 갖는 권위는 사회적인 권력 구조와 연계되기 마련이다. 이제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해체되면서 이전의 아버지의 권위적인 ‘가부장제’ 존재 가치가 무너지며,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왜소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현대시에 나타난 아버지 상(象)은 대체적으로 험난한 시대에서 생계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외로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 시대에 와서도 아버지들의 자화상은 계속적으로 비극적인 특징이 있다.³⁷⁾

<아버지의 마음>은 가족관계에 기반하여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소박한 가족 모습을 일상적 시어로 담담하게 그려내며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 생계에 대한 책임, 인생에 대한 고독을 노래하고 있다. 고백적·서정적 성격을 갖는 서정시로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35) 김현승의 시 <아버지의 마음>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바쁜 사람들도/굳센 사람들도/바람과 같던 사람들도/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것들을 위하여/난로에 불을 피우고/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낙엽을 줌는 아버지가 된다.//바깥은 요란해도/아버지는 어린것들에게는 울타리가 된다./양심良心을 지키라고 낮은 음성으로 가르친다.//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다./가장 화려한 사람들은/그 화려함으로 외로움을 배우게 된다.// 김현승, 김인섭 엮음·해설, 『김현승 시전집』, 서울: 민음사, 2005, p.312.

36) 김경현 외, 한국서양사회학회편, 『서양의 가족과 성』, 당대, 2003, p.5.

37) 박영우, 앞의 논문, 2011, p.73.

보편적 가족애를 느끼게 한다. 이는 동양문화에서의 가족관계나 가족애를 살펴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라는 말로 가혹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다. 위의 시 <아버지의 마음>뿐만 아니라 김충규의 시 <아비>에서도 “그러나 아비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생계에 대한 강한 책임을 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많은 시에 반영된 고단하고 위태로운 아버지의 모습과 절망적이고 힘든 현실은 아버지들의 비극이자, 나아가 한 가정의 비극이자 시대의 비극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제 단순히 시적 화자만의 일상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화된 아버지들의 모습이다.

● 김수영, <나의 가족>³⁸⁾, 1954

전통적인 관점에서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친밀하게 살아가며, 일체감을 형성한 매우 상호의존적인 운명공동체이다. 이러한 가족 개념, 가족의 형태 및 내용은 근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근대 이전과 달리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근대 이후 특히 김수영의 시작품이 본격화되는 1960년대에 한국에서 '대가족'의 형

38) 김수영의 시 <나의 가족>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고색이 창연한 우리집에도/어느덧 물결과 바람이/신선한 기운을 가지고 쏟아져 들어왔다//이렇게 많은 식구들이/아침이면 눈을 부비고 나가서/저녁에 들어올 때마다/먼지처럼 인색하게 묻혀가지고 들어온 것//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러갔던가/파도처럼 옆으로/혹은 세대를 가리키는 지층의 단면처럼 역세고도 아름다운 색깔—//누구 한 사람의 입김이 아니라/모든 가족의 입김이 합쳐어진 것//그것은 저 넓은 문창호의 수많은/틈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겨울바람보다도 나의 눈을 밝게 한다//조용하고 늙름한 불빛 아래/가족들이 저마다 떠드는 소리도/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은/내가 그들에게 全靈을 맡긴 탓인가/내가 지금 순한 고개를 숙이고/온 마음을 다하여 즐기고 있는 서책은/위대한 고대 조각의 사진//그렇지만/구차한 나의 머리에/성스러운 향수와 우주의 위대감을 담아주는 삼시간의 자극을/나의 가족들의 기미 많은 얼굴에 비해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제각각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그래도 조금이나 부자연한 곳이 없는/이 가족의 조화와 통일을/나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냐/차라리 위대한 것을 바라지 말았으면/유순한 가족들이 모여서/죄없는 말을 주고받는/좁아도 좋고 넓어도 좋은 방안에서/나의 위대의 소재를 생각하고 더듬어보고 짚어보지 않았으면//거칠기 짝이 없는 우리 집안의/한없이 순하고 아득한 바람과 물결—/이것이 사랑이냐/넓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냐// 김수영, 『거대한 뿌리: 김수영 시선』, 민음사, 1995, pp.21-23.

태가 '핵가족'의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는 말은 가정의 지배적 권위, 구성원들의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권위관계에 의한 불평등한 '지배' 행위는 가장(家長)이라는 개념에서 “가족 또는 부족의 아버지와 지도자”라는 관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게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사회적 재난이나 국가 간의 전쟁 등으로 인한 이산(離散)과 이주(移住), 기술과 경제의 발전에 의해 일어난 월경(越境) 등으로 인하여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다양한 사회적 격변 속에서 가족인식은 가장(家長) 본위의 제도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고 개방적인 공동체로 인식하게 되었다.³⁹⁾ 김수영의 시 <나의 가족>에서 이러한 충돌한 가족 의식의 변화 사유를 드러낸다.

한국의 경우 '가정'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서 오랫동안 존립되어 왔다. 가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자로서 개인적인 사고의 틀을 형성함으로써 현실을 수용한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⁴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수영의 시는 자신을 포함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시적 형상화를 추동하게 하고, 현실과의 매개인 가족을 통해 시적 사유를 확장하며 사회현실을 밝힐 수 있다.⁴¹⁾

김수영의 시 <나의 가족>은 전통적인 '대가족'적 가족주의가 시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가족은 '나'와 구분되지 않고 '나'는 가족 속에 포함된 존재일 뿐이므로, '문명공동체'적 가족제도에 익숙한 가족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시인은 위계구조로 빚어지는 전체성과는 다른 '이 가족의 조화와 통일'에 대해 사유하며, “남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냐”라는 결구를 통해 '가족의 이름으로' 한 사랑을 한탄스럽게 노래하면서 사랑의 기운으로 소통하는 '가족'의 길을 찾고 있다. 이 시에 나타난 불안한 기운은 전통적인 가족과 개인의 불일치와 더불어 시를 쓴 당시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갈등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²⁾

39) 정민구,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가족 사유의 한 양상」, 『어문논총(35)』 Vol.5 No.37,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9, p.21.

40) 박은미, 『가족모티프와 근대시』, 한국문화사, 2009, p.1.

41) 정민구, 앞의 논문, 2019, p.22.

42) 김울미, 「문화속으로: 현대시(詩)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지역정보화』 Vol.68 No.-, 한국지역정보개발원(구 자치정보화조합), 2011, p.90.

◎ 박목월, <家庭>⁴³⁾, 1968

이 시의 화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힘들어 하지만 고달픈 현실 속에서 가족들 간의 깊은 애정을 통해 희망을 느끼고 있다. “눈과 “얼음“, “연민“, “굴욕“, “끓주림“, “추위“ 등의 힘겨운 현실을 드러내는 부정적 이미지의 시어와 “귀염둥아“, “미소“, “강아지“ 등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 시어가 서로 교차하게 되면서, 대조적인 시어의 배치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행복과 비애가 섞여 있는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함으로써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고달픔,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신발’이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알전등이 켜질 무렵 환하게 빛나는 아홉 켤레의 신발“은 가족 개인의 삶을 상징한다. 서로 다른 문수(文數)의 신발이 서로 다른 나이와 고민을 가진 가족들을 상징하고, 아버지가 가족에 대한 사랑은 막내아들의 서술에 이르러 더욱 생생하게 드러난다. ‘아버지’라는 의미는 가족을 통해서 확인되며 가족은 이 아버지를 ‘미소하’게 하는, 즉 일상에 자친 아버지에게 생명을 주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서 있는 공간을 ‘지상>들간>현관>가정’으로 집중 조명하면서 가정이라는 실존적인 공간 안에서 아버지의 의미를 획득하고, 이러한 아버지로서의 각성은 “내가 왔다./아버지가 왔다.“라는 행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표명되고 있다.⁴⁴⁾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는 의무감만을 느끼지 않으며, “얼음과

43) 박목월의 시 <家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地上에는/아홉 켤레의 신발./아니 玄關에는 아니 들간에는/아니 어느 詩人의 家庭에는 /알電燈이 켜질 무렵을/文數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내 신발은/十九 文 半./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그들 옆에 벗으면/六 文 三의 코가 납작한/귀염둥아 귀염둥아/우리 막내둥아.//微笑하는/내 얼굴을 보아라./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 올린/여기는/地上./憐憫한 삶의 길이어./내 신발은 十九 文 半.//아랫목에 모인/아홉 마리의 강아지야/강아지 같은 것들아./屈辱과 끓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내가 왔다./아버지가 왔다./아니 十九 文 半의 신발이 왔다./아니 地上에는/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存在한다./微笑하는/내 얼굴을 보아라.// 박목월, 노승욱 엮음, 『박목월 시선』, 지식을 만드는 지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pp.59-60.

44) 김현자·엄경희, 앞의 논문, 2003, pp.469-470.

눈으로 벽을 짜올린“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족으로부터 얻음으로써 따뜻한 어조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⁴⁵⁾

◎ 문정희, <작은 부엌 노래>⁴⁶⁾, 1991

<작은 부엌 노래>의 주된 공간적 배경인 부엌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고, 집안일 역시 여성들의 몫이라는 불평등한 고정관념이 이어져 왔다. 부엌에서의 가사노동이 여성만의 전담노동을 넘어 “한 사람은 큰방에서 큰 소리 치고/한 사람은/종신 동침계약자, 외눈박이 하녀로/부엌에서“ 있는 여성적 삶을 증명하며, 부당한 여성적 삶에 대한 원색적인 표현이 강렬하게 개진되고 있다.⁴⁷⁾ 화자는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모습과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을 후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등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이 시는 단순히 여성이 지배자의 종속물로서 살아야 하는 억압적 현실을 나타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여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45) 김중태, 「시교육과 윤리의 문제 -가족 윤리와 사회 윤리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Vol.0 No.1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5, p.88.

46) 문정희의 시 <작은 부엌 노래>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부엌에서는/언제나 술 피는 냄새가 나요./한 여자의/젊음이 삭아가는 냄새/한 여자의 설움이/찌개를 끓이고/한 여자의 애모가/간을 맞추는 냄새/부엌에서는/언제나 바삭바삭 무언가/타는 소리가 나요./세상이 열린 이래/똑같은 하늘 아래 선 두 사람 중에/한 사람은 큰방에서 큰소리 치고/한 사람은/종신 동침계약자, 외눈박이 하녀로/부엌에 서서/뜨거운 찻농을 제 발등에 붓는 소리./부엌에서는 한 여자의 피가 삭은/빙초산 냄새가 나요.//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어요./촛불과 같이/나를 태워 너를 밝히는/저 천형의 덜미를 푸는/소름끼치는 마고할멈의 도마 소리가/똑똑히 들려요./수줍은 새악시가 홀로/허물 벗는 소리가 들려와요./우리 부엌에서는 ……// 문정희, 정한모...[등]편, 『어린 사랑에게: 문정희 시선』, 서울: 미래사, 1996, pp.118-119.

47) 윤혜옥, 「문정희와 김혜순 시의 젠더의식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p.36.

◎ 문정희, <퇴근 시간-신사임당이 어우동에게>⁴⁸⁾, 2018

<퇴근 시간-신사임당이 어우동에게>은 퇴근하는 남편과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라는 대립 구도를 바탕으로 가부장제적 '결혼' 속에 갇혀 있는 여성의 '신사임당'과 같은 현모양처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시의 표면에 그려진 가정의 모습은 '중요로운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평화로운 곳으로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억압적인 모순을 드러내기 위한 반어일 뿐이다. 가족의 음식은 “찌개가 요동을 치며 끓어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정의 행복과 찌개가 맞물려 행복한 상황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요동“이 “흔들리어 움직인다“라는 의미임을 감안하면, 여성의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정한 심리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청국장처럼 보글보글 끓는“ 상황에 어우동은 “코를 막고 물러서 있다.“ 이 행위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환멸이자 혐오감이며, 현모양처에 대한 도전이자 거부이다. 자유여성인 어우동을 통해 가부장 제도에 대한 환멸과 혐오감, 여성의 내밀한 욕망을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억압적인 가부장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⁴⁹⁾

문정희의 <퇴근 시간-신사임당이 어우동에게>과 <작은 부엌 노래>는 모두 부엌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삶과 역할을 노래하고 있다. 다만 <퇴근 시간-신사임당이 어우동에게>은 주부의 일상을 묘사하는 가운데 '가정'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묘사하면서 '부엌'이 가부장적 억압의 공간으로서만 제시되어 있지만, <작은 부엌 노래>에서는

48) 문정희의 시 <퇴근 시간-신사임당이 어우동에게>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저녁 현관문이 열리고 결혼이 들어온다/추위와 무더위 속에서도 굳건한 고려와 조선과/일렬횡대의 전주 이씨 족보가/튼튼한 서방님이 돌아오신다/신사임당이 어우동에게/시詩를 숨기고 나가 있으라 눈짓한다/신사임당이 소매를 걷고 부엌으로 들어간다/뚝고추 도마 위에 난도질하여 찌개를 끓인다/우리의 하늘이 전쟁터에서/오늘도 무사히 돌아오셨다/몇 가지 전리품을 챙겨 넣었는지/그의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인다/조요로운(원문에서 이렇게 적혀있음) 가화만사성 속에/찌개가 요동을 치며 끓어 넘친다/신사임당의 행복이 청국장처럼 보글보글 끓는다/어우동이 저만치 코를 막고 물러서 있다// 문정희, 『내 몸속의 새를 꺼내주세요: 문정희 페미니즘』, 파란북, 2018, p.100.

49) 김영란, 「문정희 시에 나타난 주체의 양상 연구 -크리스테바의 아브제시옹 개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p.37.

'자기 정체성을 찾은 주체적 여성의 공간'으로 확장되어 나타나 있다. 두 편의 작품을 함께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여성이 불평등한 결혼제도와 가부장적 억압의 현실에서 벗어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족주의 문화교육에서 여성시를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 남민우(2003)의 관점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 그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평등의 교육을 위해서 여성 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 학습자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바라보면서, 한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남성 학습자는 여성을 '인형'으로 인식된 왜곡된 관점을 지양하고 여성을 독립한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⁵⁰⁾고 하였다. 이러한 상상력을 활용한 시 교육은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설득하는 식으로 하는 윤리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다.⁵¹⁾

◎ 김후란, <우리 가족>⁵²⁾, 2009

<우리 가족>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정겨운 낯은 풍금처럼/언제 보아도 편안한/우리 가족“은 가족의 행복을 꿈꾸며, 정겨운 풍금으로 소박하고 편안한 가족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소통과 화해를 포함한 가족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는 가족의 소중함을 시적으로 강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감정을 보편적인 시어로 풀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독자에게 공감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 시는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해를 이

50) 남민우, 「여성시의 문학교육적 의미 연구 -1920년대 김명순의 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Vol.11 No.-,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p.366.

51) 조난희, 「에코페미니즘 시의 이해와 교육적 적용」, 『문학교육학』 Vol.0 No.67,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p.154.

52) 김후란의 시 <우리 가족>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집 네모난 방들은/저마다 다른 얼굴로/치장을 하고/저마다의 향기로 채워져 있습니다/발그레 뺨이 고운 우리 가족들/거실에서 식탁에서 침실에서/노상 쏟아지는 웃음소리 음악이 되어/천장을 울리고/창 밖으로 새어나고/레이스 커튼 하르르 날리고/피어나는 화분에 빛이 넘칩니다/정겨운 낯은 풍금처럼/언제 보아도 편안한/우리 가족// 김후란, 『따뜻한 가족』, 시학, 2009, p.78.

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화려한 수사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장식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게 하고 진정성을 되찾게 함으로써, 자아와 가족 간의 진정한 정의와 소통을 감동적으로 이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³⁾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시 텍스트는 현실문화를 반영하며 학습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 텍스트는 학습자들에게 때론 감동을 줄 수 있고, 때론 구체적인 즐거리를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이나 삶을 환기하게 하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상적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판단할 것을 권유할 수도 있다.⁵⁴⁾ 또한 선정된 한국 현대시 작품은 길이가 비교적 짧고 어려운 어휘나 사투리, 문법의 파괴가 많지 않아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에 있어 적합한 제재라고⁵⁵⁾ 판단할 수 있다.

53) 박영우, 앞의 논문, 2011, p.89.

54) 윤여탁 외,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 태학사, 2002, p.324.

55) 윤여탁, 앞의 책, 2013, p.277.

II.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의 전체

1.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의 이론

1.1 가치문화로서의 가족주의 문화

(1) 가치문화의 개념 및 특성

가치문화의 개념 및 특성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문화의 개념과 문화교육의 분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culture)의 개념은 일찍이 근대의 물질적인 산물을 지칭하는 문명(civilization)과 구별되는 예술적·정신적 창조물을 규정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문화'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넓은 만큼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이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구분된 기술적(descriptive) 정의들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문화를 모든 사회생활을 포괄하는 하나의 전체로서 보려 하고,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의 목록을 만들고자 한다. 이 구분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출발점은 인류학자인 타일러(Tylor, 1871)의 정의이다. 그는 문화를 광범위한 민족지적 견지에서 볼 때, “문화 혹은 문명은[.....]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률, 관습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그 외의 모든 능력과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물“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가 어떻게 관념들(예술, 윤리, 법)과 더불어 활동들(관습, 습관)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주목한다고 볼 수 있다.¹⁾

문화는 뿌리 깊은 행동 및 인식 양상으로서 외국어교육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화개념이 복잡한 만큼 문화의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문화의 분류가 다르고, 문화요소 선정 기준의 차이에 따라 교육내용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내용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²⁾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문화를 산물, 행위, 관점 세

1) Smith, Philip,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 (1st ED.), 한국문화사회학회 옮김, 『문화이론 : 사회학적 접근』, 서울: 이학사, 2008, pp.15-22.

가지로 나누어 구분한 유형별 분류의 구성이다. 이는 문화교육 연구와 현장에서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는 언어의 능숙도에 따라 문화교육의 내용을 달리하는 수준별 분류이다. 가치문화의 개념은 문화의 분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고는 문화의 유형별 분류에 대해 중점으로 살펴볼 것이다.

일찍이 브룩스(Brooks, 1968)는 공식적인 문화를 대문화(Big C)로, 생활 방식에 나타나는 문화를 소문화(little c)로 나누어 제시한 바가 있다.³⁾ 그에 따르면 역사, 지리, 제도, 문학, 예술과 음악 등은 대문화에 속하고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치체계, 신념, 태도, 행동양식 등 집단이 공유하는 인간 생활의 모든 면을 포함하는 개념”은 소문화에 속한다. 그 후에 로빈슨(Robinson, 1985)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의미에 대한 설문 조사의 대답을 토대로, 문화를 산물(products), 행위(behaviors), 관념(ideas)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따라 토말린과 스템플리스키(B. Tomalin & S. Stempleski, 1993)는 로빈슨의 분류를 언급하며, 역사, 지리, 제도, 문학, 예술을 대문화(Big C)로, 언어 및 문화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신념, 인지체계를 소문화(little c)로 구분하여 전자를 성취문화(achievement culture), 후자를 행동문화(behavior culture)로 보는 이분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취문화를 주요 교과에서 다루는 것과 달리 행동문화는 주변적·지엽적 내용으로 보아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언어교육에서는 후자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외국어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문화를 산물(products), 행동(behaviors), 관념(ideas)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제시했다. 이 중에 관념은 인류의 직접적인 사유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신념, 가치관, 제도 등의 문화요소를 포함한다.⁴⁾ 한편, 문화교육에서 모란(P. R. Moran, 2004)은 이와 같은 문화의 세 가지 요소는 문화의 구성원들인 공동체나 개인 등과 분리되지 않

2) 민병곤 외, 『한국어 교육학 개론』, 서울: 태학사, 2020, p.411.

3) Brooks, N. *Teaching culture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Foreign language annals, Vol.1 No.3,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1968, pp. 204-218.

4) B. Tomalin & S. Stempleski, *Cultural Awareness*, 임영빈 외 역, 『문화의 이해로 가르치는 영어』, 이퍼블릭, 2006, p.12.

는다고 밝히며, 공동체(communities)와 개인(persons)을 추가하여 문화가 다섯 가지 차원⁵⁾이 상호작용 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문화는 정신과 물질적 산물의 총체다. 정신적 문화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인간의 의식, 관념, 가치관, 신앙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물질적 문화는 인간의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 산물에 이르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홉스테드가 『세계의 문화와 조직(Cultures and Organizations)』이라는 책의 부제를 '-정신의 소프트웨어-(software of the mind)라고 정함으로써 문화의 정의를 "정신의 소프트웨어"로 제시하였으며, 문화를 여러 차원으로 설정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차원은 '가치'⁶⁾라고 정의하였다. 오늘날 '문화'라는 단어엔 수많은 표현을 붙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가치'는 문화의 핵심 개념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가치는 특정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가치문화교육에 관한 연구에 따라 '가치문화'란 타문화권의 '행동문화'의 근원이며, 문화 구성원이 가장 선호하는 포괄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가치문화를 '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표면적인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태도'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처럼 가치문화는 인간의 정신적 차원에 속하며 해당 문화 공동체 행동기준이나 인간 활동을 조직하는 규범이며 한 집단의 공통적인 문화의식이다.

한국어교육에서 가치문화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가치문화교육의 범주는 주제별 세부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가치문화의 특성을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치문화의 실제성이다. 가치문화는 본질적으로 추상적이지만, 사고방식, 행동양식,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 인간의 전 삶의 방식에

5) P. R. Moran, *Teaching Culture: Perspective in Practice*, 정동빈 외 옮김, 『문화교육』, 경문사, 2004, p.33.

6)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차재호 · 나은영 역, 앞의 책, 2016, p.28.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언어 공동체가 규정하는 제도나 생산해내는 예술품 등 문화 산물을 통해 정신적 문명은 물질적인 세계문화의 실재로서 나타난다.

두 번째는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특정 가치는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문화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인종, 지역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 공동체 간의 사고 지향성에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즉 인간의 행동, 가치의 보편성은 그들이 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수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치문화의 핵심인 가치관의 변동성이다. 가치문화의 형성은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라도 시대적 배경이 다르므로 사람들이 이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서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모순성이다, 가치문화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관념 세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별성을 띠고 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회구성원이라고 해도 특정한 가치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다를 수 있고, 한 가치는 다른 가치와 갈등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가치는 항상 긍정적인 사회 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니며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문화를 학습하는 데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화인 '가치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고 충분히 의미를 지니며, 또한 문화교육에 있어 여러 가지 교육체계와의 연결고리와 가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족주의 문화의 속성 및 요소

가족주의는 가족과 관련된 현상을 언급할 때 제시된 개념이 물론이고, 한국 현대사회의 특성을 표현할 때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이는 가족관계나 사회조직 관계의 일반적 원리로, 더 나아가 생산·복지 체제나 교육을 규정하는 핵심적 원리로도 여겨진다.⁷⁾ 즉 가족

7) 백광렬 외, 「한국의 가족주의와 가족 관념」, 『韓國社會學』 Vol.52 No.4, 한국사회학회, 2018, p.116.

주의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다른 사회보다 더욱 뚜렷하며, 가족주의 문화는 수많은 문화적 현상을 생산하며 특유한 한국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주의 문화의 개념을 다루기 전에 먼저 가족주의의 사전적 의미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구성 기본단위인 가족을 중심으로 가(家)를 형성하며, 가(家)를 어떠한 사회집단보다 우위에 두는 주의로 일단 혈연 중심의 가(家)가 형성되면 개개의 가족 구성원은 가(家)에서 독립할 수 없고,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에 의해 가(家)는 유지된다“로, 가족주의 개념 안에 집단주의와 권위주의가 중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가치문화 중 '가족주의'는 한국 사회의 핵심이라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최준식(1997)은 한국적인 집단주의의 원형(archetype)인 '가족주의'는 유교의 근원으로 한 '효'로 인해 탄생했으며, 뺏속, 무의식까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⁹⁾고 강조하였다. 조선시대에 재산상속권과 제사권이 장자에게 귀속되는 전통으로 인해 모든 권력이 장남, 남성에게 집중되었으며, 이는 '가부장제¹⁰⁾적 가족주의를 낳은 것과 연관된다. '가부장제'적 가족주의로 인해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여성은 개인의 삶을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도록 강요받았으나 교육이나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었다. 가족주의에서 여성들의 인내와 희생의 삶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가정 및 전 사회도 이러한 성차별과 권위주의에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 산업화, 근대화로 인해 한국의 가족 구성의 형태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특징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60년대까지의 가족주의는 “직계가족 형태로 된 가부장적 중심“에서 80년대에 와서 “핵가족과 직계가족이 섞여 있는 가부장적 가족주의“로, 9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한 “도시형 핵가족 중심의 가족주의“로, 그리고 이제는 “핵가족과 일인 가구의 혼합 형태로

8)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상), 국학자료원, 2006, p.89.

9)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세계절 출판사, 1997, p.57.

10) “가부장제의 일반적 개념으로 의미 되는 남성은 가정을 다스리고 통솔하며, 부인권·자식권을 총체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남성 지배적 사회를 고착화함으로써 가부장제에서 가장과 남성의 권력을 사회·경제생활·윤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박성, 앞의 논문, 2018, p.195.

“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한국 가족주의의 내용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¹¹⁾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는 전통사회의 유교에서 비롯되지만, 역동적인 역사와 근현대 사회적 변동을 겪으면서 오늘날 한국의 특유한 가족주의 문화가 형성되어왔다. 가족주의 내면에는 유교적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근대화 이후 전통의 가족주의적 가치 지향이 많이 약화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규범과 제도는 근대화되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이수인(2010)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특유한 현대사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가족주의의 특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여전히 한국인들의 외재적 행동과 내재적 의식까지 깊게 지배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한국전쟁 등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흔들리고 불안한 국가 공동체에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 생존의 중심을 가족에 두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족주의의 성격이 아직도 한국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¹²⁾ 현대사회에 와서 한국의 가족주의는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이나 관계만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의미를 넘어 다른 사회 제도의 작동에까지 확대되어 전 사회의 규범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¹³⁾ 가족주의는 개인이나 사회에 깊이 결부되고,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사람들의 행동과 한국의 사회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개인-가족-사회'의 결합을 종합적으로 형성된 시각에서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 개념 그리고 문화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 가족주의를 고찰한 많은 연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개

-
- 11) 논문에서 시대별로 가족주의 개념에 대해 밝힌 바가 있다. “50-60년대 해방 이후에 도입된 자유민주주의적 법체계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인 측면이나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부계혈연중심의 유가적 가족주의이고, 70-80년대에 20년간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가족도 전통적인 패턴에서 도시적인 패턴으로 급격하게 변화한다. 직계제 가족이 감소하는 대신 핵가족, 1인 가구 및 비혈연 가구가 증가한다. 90-2000년대에 사회적으로는 산업화가 정착되고 민주화가 본격화되며,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주의는 다양한 가족 형태개념을 포함되고 있다.” 권용혁, 「한국의 가족주의에 대한 사회철학적 성찰」, 『사회와 철학』 Vol.0 No.25, 사회와 철학연구회, 2013, p.219.
 - 12) 이수인, 「집단주의 형성 요인과 과정,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 『경제와 사회』 Vol.88, 비판사회학회, 2010, pp.256-299.
 - 13) 손승영,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지속과 변화-」, 『담론 201』 Vol.9 No.2,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p.246.

념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가족주의를 분석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가족주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떤 측면에서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한 합의는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¹⁴⁾ 가족주의의 개념은 몇 가지 상이한 의미가 혼용된 채 활용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일부의 의미는 서로 상충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비교적 초기에 가족주의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최재석(1980)은 가족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¹⁵⁾

- ① 社會의 構成單位는 집(家)이며,
- ② 이 집은 어떠한 社會集團보다 重視되며,
- ③ 一個人은 이 집에서 獨立하지 못하고,
- ④ 집안의 人間關係도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上下의 身分의 序列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 ⑤ 이와 같은 人間은 비단 家族內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家族外의 外部社會에까지 확대되는 社會의 組織形態를 家族主義라 부르고자 한다.

후속 연구들도 위의 최재석(1980)에서 제시된 가족주의의 개념요소를 바탕으로 각각의 초점에 두어 가족주의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박통희(2004)는 한국 가족주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경험적으로 조사했으며, 가족주의를 요인분석법으로 “(좁은 의미의) 가족주의“, “가족이기주의“, “의사가족주의“ 세 가지 종류¹⁶⁾로 구분하였다.

(좁은 의미의) 가족주의: 가족을 사회의 본질적 단위로 간주하는 태도.

가족이기주의: 인간의 여느 사회관계나 집단에 앞서 가족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중시하는 태도.

의사가족주의: 가족 내 인간관계와 행위양식을 전체 사회에 확장하려는 태도.

14) 백광렬 외, 앞의 논문, 2018, p.117.

15) 최재석, 『韓國人の 社會的性格』 (제6판), 서울: 開文社, 1980, p.23.

이에 따라 가족주의는 전통적 가족 형태와 현재 한국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포괄적인 의미를 수용하게 된다.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 가족주의는 근대화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가족이 구성상으로는 핵가족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지만, 가족의 관계 범위와 기능, 가족 가치관과 의식 등이 전통적인 사상, 근현대적 변형과 복합적으로 섞여 특유한 가족형태를 띠고 있다. 가족주의의 특징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한국 가족주의 문화가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없고, 시대와 가족 형태 변화에 따라 변화된 가족주의 문화, 가족주의적 가치관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변화를 겪어온 한국의 가족주의를 적확하게 개념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고는 한국 가족주의 문화를 전통적 측면과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된 현대적 측면으로 나누어 가족주의 문화의 대표적인 속성 및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표8: 가족주의 문화의 속성 및 요소〉

문화요소		문화개념	문화속성
전통	'개인 회생'의 불가피성	박통희(2004)	최재석(1980)
		(좁은 의미의) 가족주의	①社會의 構成單位는 집(家)이며, ②이 집은 어떠한 社會集團보다 重視되며,
		가족이기주의	③一個人은 이 집에서 獨立하지 못하고, ④집안의 人間關係도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上下의 身分의 序列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16) 박통희, 「가족주의 개념의 분할과 경험적 검토 -가족주의, 가족이기주의, 의사가족주의-」, 『가족과 문화』 Vol.16 No.2, 한국가족학회, 2004, p.114.

	'우리'의 공동체인 식	의사가족주의	⑤이와 같은 人間은 비단 家族內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家族外의 外部 社會에까지 확대되는 社會의 組織 形態를 家族主義라 부르고자 한다.
문화요소		문화개념	문화속성
현대	'가부장 제'의 탈 피	반개인적 가족 주의 가족의 해체	①개인 의사가 존중된다고 여겨지 는 핵가족. ②공동체에의 복속을 더욱 강조하 는 확대가족. ③여성차별 이데올로기의 이해, 남 녀평등의 추구.
	가족 간 의 소통		

◎ '희생'의 불가피성:

“(좁은 의미의)가족주의“에서 지적하듯이 가족주의는 가족을 한 사회의 근본적인 단위로 간주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가족 중심으로 개인과 가족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로 정의된다. 이는 최재석(1980)의 정의에서 “①社會의 構成單位는 집(家)이며“, “②이 집은 어떠한 社會集團보다 重視되며“에도 해당한다. 또한 개인보다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집단이나 사회관계에 앞서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족이기주의“라는 태도에도 해당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최재석(1980)에서 “③一個人은 이 집에서 獨立하지 못하고“라는 개념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가족주의는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을 억압한다는 '희생'의 함의가 있다. 가족은 사회적 주체로서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이런 인식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개인의 희생을 불가피하게 하고 가족주의에서 “가족의 이름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¹⁷⁾

17) 백광렬 외, 앞의 논문, 2018, p.125.

가족이기주의의 기원은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살펴볼 수 있다. 유교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사회에서 가족과 효(孝)를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된 가치로 보고,¹⁸⁾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적 법체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인 측면이나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유가적 부계혈연 중심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60년대까지 유지되었다¹⁹⁾, 2000년대에 이르러 한국 가족주의는 이전의 전통적인 문화 가치관을 온존하고 있고 개인을 더 심하게 억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에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된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유교적 성역할 개념”이 새로운 “가족 중심주의”로 변환되었다. 정통적으로 가정과 집안일은 여성이 돌보고 바깥일은 남성이 담당해야 하는데 가족형태가 도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성역할에 따라 가사노동도 분업하게 되었다.²⁰⁾ 사회결합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족’으로 부정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개인을 억압한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는 한국의 가족에서 특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사회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부의 희생, 교육열의 현실로 볼 수 있다. 이런 “유교적 확대가족”은 유교문화의 핵심요소로 거론되는 혈연성과 공동체성에 달려 있으며, “개인과 전체가 분리되지 않는 집단성“, “개성을 소멸하는 획일성“, “자유의 억압“ 등 유교 이데올로기에 결부된 것이다.²¹⁾

● '우리'의 공동체인식:

한국 가족주의는 “가족이기주의”의 반대로 범위를 넓혀 한국 사회 전체를 단위로 하는 “의사가족주의”로 이해되기도 한다.²²⁾ 이는 넓은 범위의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간주하는 공동체주의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며, 가족의 범위를 매우 넓은 범위로까지 확대하여 가족이 아닌 사

18) 백광렬 외, 앞의 논문, 2018, p.129.

19) “해방 이후 친족법 개정에서 일제시대 변형된 호주제 및 가부장적 직계제도가 존속됨으로써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변형, 옹호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최재석, 『韓國家族研究』, 서울: 一志社, 1982. pp.223-224.

20) 이재경, 『가족의 이름으로: 한국 근대가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 문화, 2003, p.17.

21) 백광렬 외, 앞의 논문, 2018, p.125.

22) 백광렬 외, 앞의 논문, 2018, p.131.

람들도 가족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최재석(1980)의 정의에서는 “⑤이와 같은 人間은 비단 家族內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家族外의 外部社會에까지 확대되는 社會의 組織形態“에 해당한다. 지인과 그들의 가족, 심지어 모르는 사람한테 어머니, 누나, 형으로 호칭하는 경우, 이렇게 공적 인간 관계에서까지 사적 가족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족윤리가 사회결합에까지 확장된다는 사실도 확보할 수 있다. 가치판단의 측면에서 볼 때 가족주의에는 정서적으로 개인을 포용한다는 “온정주의적 함의“가 있다.²³⁾ 오늘날 한국의 가족 형태는 직계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핵가족 내부의 분화와 일인가족의 확대로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핵가족 내부에서 개인보다 가족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가족주의 사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가부장제'의 탈피:

최재석(1980)에 따라 가족주의는 “④집안의 人間關係도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上下의 身分의 序列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족주의를 여성차별 이데올로기로 이해하는 이유는 남상은 가장권(家長權)의 주체가 되고 가부장제적 가족에서 여성은 개인적 정체성 없이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으로는 산업화가 정착되고 민주화가 본격화되면서 산업 유형도 점차 변화되었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화되면서 새로운 노동과 삶의 유형이 진행되고, 법체계가 개정된 과정에서 가족주의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예를 들어 1990년 개정된 가족법을 통해 남녀평등과 여성의 지위가 법적으로 강화되었고, 사회적으로 여성운동이나 페미니즘의 시각이 활성화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가족구성도 전통적인 패턴에서 도시적인 패턴으로 다양한 가족결합

23) “역사적으로 근대화 과정에 있던 어느 사회에서든지 가족 범위를 넘어서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간주하는 관념이 성립하여, '온정주의'는 산업화로 인한 지역적 공동체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박영은(1985), Haraven(1993)), 백광렬 외, 앞의 논문, 2018, p.132.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도시형 핵가족이 증가되면서 부부가족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 변용된 가족주의는 복합적인 특징을 띠게 되었다.²⁴⁾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도시 핵가족에서 부계 혈연중심으로 한 직계가족의 이념이 작동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위계적인 부자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부부 관계가 중시되고 있다. 가치 측면에서는 직계가족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관념도 여전히 강하지만 '가부장제'에 대해 탈피하는 강한 가치 경향도 나타난다.

◎ 가족 간의 소통과 개인화의 추구:

기왕의 논의에 따라 한국 사회는 도시화와 근대화가 진행된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전통적 가족구조도 해체되었다.²⁵⁾ 이러한 측면의 가족주의를 언급할 때 한국의 반개인주의적 문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여성차별 이데올로기로 이해하는 가족주의도 이용법에 속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의사를 비교적 존중하는 핵가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복속을 더욱 중요시하는 확대가족 가족주의 문화도 이런 맥락에 부속된다.²⁶⁾ '가족의 해체'가 회자되는 오늘날 개인화와 관련하여 가족주의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 가족구성은 해체되면서 전통적 가족주의는 여전히 남아있고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다.

한국 가족주의의 억압성에 대해 지적은 주로 지속되고 있는 전통적인 "확대가족" 가족주의를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특히 유교문화의 영향을 강조해 왔다. 현실적인 핵가족화, 개인화 등 문제에서 볼 때 이른바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라는 것이다.²⁷⁾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24) 권용혁, 앞의 논문, 2013, p.212.

25) 장경섭은 권태환·박영진(1995)의 분석결과를 인용하여 근대=핵가족, 전통=확대가족이라는 도식이 일반적이면서도, 해방 후 일정시기 동안 가족의 규모가 오히려 커진다고 지적했다. 확대가족은 일정의 생산력을 발전한다는 점과 반대로 다른 현상도 발견될 수 있다. 장경섭,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파주: 창비, 2009, p.64.

26) 함인희, 「가족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Vol.15 No.1,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4, pp.107-108.

27) 심영희, 「21세기형 공동체 가족' 모델의 모색과 지원방안」, 『아시아여성연구』 Vol.50 No.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1, p.17.

대한 억압은 여전히 강한 편이지만, 가족 간의 소통 그리고 개인화에 대한 추고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1.2 상호문화교육에 입각한 가치문화 교육

본 연구는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에 입각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상호문화 이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을 구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가 시 작품과 소통하면서 능동적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타문화와 자문화 간의 비교 및 소통을 통해 문화에 대한 비판과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교육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문화교육은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를 바탕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실행한 교육 접근법이다. 상호문화주의는 '행동(action)'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 간 '상호작용', 즉 실행적 차원을 강조한다, 또한 다양한 생활세계의 구성원들 간의 역동성을 중시하는데, 이는 '사이에'를 뜻하는 라틴어 'inter'가 보여주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문화에 가치를 기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지양하고, 개인적인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국가나 지역의 지배적인 문화를 공통분모로 권장한다. 문화의 이해보다는 문화들 간의 만남(recontre), 문화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성(alterité), 고정관념(stéréotype), 편견(préjugé) 등을 직시하고 상호침투하며 구성되어가는 정체성을 강조한다.²⁸⁾ 즉 상호문화교육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학습자들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문화와 타문화의 가치, 삶의 양식 등을 만남으로써 쌍방향적인 교류와 협상을 이루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호문화주의에서 '상호'라는 접두사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과 집단, 정체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²⁹⁾ 타인을 보는 방법과 자신을

28) 장한업,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프랑스어문 교육』 Vol.32 No.-,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9, p.113.

29) M. Abdallah-Preteille, *L'éducation interculturelle*, 장한업 역,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보는 방법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 상호적인 인식은 자신이나 타인의 특성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이 맺고 있는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양쪽 문화 간에 평등한 대화나 존중을 촉진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주어진 문화적 특성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역설적으로 관계 그 자체이지 관계를 정의하는 특성이 아니다.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의 목적은 타인과의 만남을 배우는 데 있다. 이런 만남은 타인의 자유 요구, 복합성, 불투명성, 모순 등을 존중해 주고, 타인을 그의 문화나 소속으로 아니라 타인 그 자체로 보고, 타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행동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³⁰⁾ 이때 상호문화교육은 단순히 타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호문화능력의 구성요소는 다른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다. 1997년 바이럼(M. Byram)은 외국어 학습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를 수반하고, 인지적인 측면의 '지식', 행동적인 측면의 '기능', 정의적인 측면의 '태도'³¹⁾를 요구하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을 제안하였다. 지식(knowledge)은 사회집단에 대한 지식, 개인적,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과정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기능(skills)은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이나 사회생활 속에 있는 문화를 해석하고 모국 문화 속에 있는 문화 지식과 관련지을 수 있는 해석 및 관련짓기 기술(skills of interpreting and relating)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문화 속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실제 상황에서 지식, 기능, 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이나 문화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까지 포괄한다. 태도(attitude)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자국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버리고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동시에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타문화를 만날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회구성원의 다양성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대안』, 한울, 2010, p.65.

30) 장한업,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교육과학사, 2014, p121.

31) M. Byra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7, pp.57-64.

과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비판적 문화 의식(critical cultural awareness)은 명시적이고 실천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문화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인식이다. 세르큐(L. Sercu)는 상호문화능력의 구성요소를 바이럼의 이론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9: 상호문화적 능력의 구성 요소 (Sercu 2005)〉 32)

<p style="text-align: center;">지식 (knowled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으로 특정한/일반적인 지식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식 -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 개인적/사회적 - 문화가 언어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
<p style="text-align: center;">기술/행동 (skills/behaviou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석하고 관련짓는 능력 - 밝혀내고(밝혀내거나) 소통하는 능력 -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제약 하에 지식, 태도, 기술을 운용하는 능력 - 자신의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메타 인지적 전략
<p style="text-align: center;">태도/특성 (attitudes/trai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상대화하고 타인을 가치화하는 태도 - 상호문화적 능력을 배우는 것에 대한 긍정적 성향 -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적용으로 특징지어지는 일반적 성향

32) L. Sercu et al., *Foreign Language Teachers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005, p.3. (김혜민,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p.23 재인용.)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바이럼과 세르큐는 공통적으로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지식, 자문화와 타문화를 관련지어 해석하고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타문화와 자문화에 대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문화를 지향하는 이러한 능력에는 타인을 문화적으로 평등한 정체성을 가진 상태로 여기는 태도와 행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호문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습자의 한·중 문화의 비교·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하여 가치문화 요소를 담고 있는 한국 현대시를 활용하고자 한다.

장한업(2014)은 여러 학자들의 제안을 종합하여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을 “자문화 인식“,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타문화 관용(수용)”³³⁾ 단계로 정리하였다. 그는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이렇게 새로운 타문화를 발견하고 비교·수용까지 이루는 단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상호문화교육은 학습자들의 상호문화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치문화 교육도 학습자들이 타문화를 발견하고 비교·수용까지 이루는 상호문화교육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행하고자 한다.

1.3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의 성격

시는 인간학의 신물이고 인간들의 진실한 삶에 대해 탐구하는 작업이다.³⁴⁾ 즉 시 읽기는 삶의 본질에 눈뜨게 하며 성찰과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도정(道程)이다. 학습자는 가족주의를 반영한 현대시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시인이 한 편의 시를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낸 성찰과 성숙된 자아인식과 더불어 가슴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시적 감정을 누릴 수 있다. 본고에서 앞서 언급한 현대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가족주의가 시적 출발점이 될 뿐 아니라 시들이 학습자 개인의 가치관 및 세계관, 사상 등의 정립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들에서

33) 장한업, 앞의 책, 2014, pp.154-157.

34) 박영우, 「시를 통한 가족의 재탄생」, 『국어문학』 Vol.50 No.-, 2011, p.71.

시세계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족주의는 핵심적인 기저가 된다. 특히 시 작품에 나타난 가족의 형상은 사적인 가족 체험의 범위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시대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시 교육에는 시 자체에 대한 인지적 영역의 지식교육 외에 학습자의 정서, 태도, 가치관 등이 포괄적으로 작용하는 정의적 영역의 교육도 포함된다.³⁵⁾ 이는 현대시 교육은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 경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이다, 현대시를 활용한 가치문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문화요소를 인지적으로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정서, 태도의 정의적 영역과 경험의 환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현대시를 제재로 활용한 가치문화 교육의 성격을 지식교육에 입각한 인지적 측면과 태도양성을 위한 정의적 측면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인지적 영역에서 현대시는 언어예술의 정수로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며, 형식이나 내용, 언어, 맥락 등과 같은 문학 내·외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즉, 시어는 함축적이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다양한 이미지를 재생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지각하며, 이런 독자 반응의 차이나 다양성은 상호작용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한다.³⁶⁾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징, 비유와 은유 등 언어 수사법을 빌려 묘사하는 형상적 언어를 통해 문화 이해를 활성화시킨다면, 타문화에 대한 거부반응을 줄일 수 있고, 시적 정서를 통해 문화요소에 다가가는 정의적 접근을 통해 내면세계의 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의 정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는 체험과 감정을 강조하는 주관적 장르³⁷⁾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시와 소설, 수필 등 다른 문학 장르를 구별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고 본고가 시를 가치문화교육에 적절한 제재로 판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는 근본적으로

35) 김유리, 「한국 현대시를 활용한 상호문화 지식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p.22.

36) 윤여탁, 앞의 책, 2007, p.146.

37)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2, pp.47-48.

주체의 상상적 경험의 계기를 함축하고 있으며, 시 읽기는 독자의 상상적 경험을 통해 개인적 사건, 즉 체험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³⁸⁾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타자들과의 간접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타자의 삶의 조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공감과 연민을 느끼고 세계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시 속에 '빈자리'가 많이 나타나며, 빈자리에는 학습자들이 상상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 및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킬 수 있어 한국문화와 상호 관련을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시를 활용한 문화교육은 문화 간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새로운 교육과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간주해야 한다.

2.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의 단계

시 문학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은 이해와 감상이라는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1차적인 과정은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로, 2차적인 과정은 시의 정의에 대해 감상하는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차적인 이해의 단계는 “학습자와 시 사이에 존재하는 인지적, 심미적 거리를 좁히는 인지주의적 관점”의 교수·학습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배워야 할 문학 지식 등을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명제적, 속성적 지식들을 활용하여 시를 이해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한국 현대시는 한국 사회 공동체의 문화 산물로서 학습자들이 이에 반영된 문화 지식을 배움으로써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 2차적인 감상의 단계는 “학습자와 시 사이에 존재하는 경험적, 정의적 거리를 좁히는 구성주의적 관점”의 교수·학습 과정이다.³⁹⁾ 구성주의 관점에 따라 학습 독자들이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수용과정에서 정의적 반응과 개인의 경험이 작용하며, 이러한 반응과 경험도 구성

38) 손예희, 「시 교육에서 상상적 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pp.18-19.

39) 윤여탁, 「시 교육에서 학습 독자의 경험과 정의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Vol.0 No.3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7, pp.268-269.

활동과 학습 독자 간에 일어나는 대화를 통해 형성된다.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도 이러한 교수·학습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란은 문화를 학습하는데 이루어지는 학습 상호작용으로써 구성된 문화 경험에 따라 목표문화를 “대상을 아는 것”에서 “방법을 아는 것”, “이유를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의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해해 나가야 한다⁴⁰⁾고 주장하였다,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은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즉 학습자는 시 텍스트와 그 안에 내재한 문화요소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이해’의 단계를 거쳐, 자신의 경험과 정서와 연관시키는 ‘해석과 자기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통하여 문화 지식의 의미를 구성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은 타자와 상호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기와 타자 간의 이질성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상호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교육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 현대시를 활용한 가치문화 교육의 단계를 ‘시 텍스트 이해를 통한 문화이해의 활성화’, ‘경험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소통’, ‘성찰을 통한 상호문화적 태도의 형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시 텍스트 이해를 통한 문화이해의 활성화

앞 절에서 논의했듯이 현대시는 문화적 산물로서 한 사회의 공동체문명, 가치, 정신세계를 내면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현대시를 읽을 때 시적 세계에 다가가는 과정은 타문화와 만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쇼스(Scholes)의 관점⁴¹⁾에 따르면 학습자의 문학 텍스트의 읽기 과정은 “읽기, 해석, 비평”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읽기는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고, 해석은 내용 파악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40) P. R. Moran, 정동빈 외 옮김, 앞의 책, 2004, p.21.

41) R. Scholes, *Textual power*, 김상욱 역, 『문학이론과 문학교육: 텍스트의 위력』, 하우, 1995, pp.115-118.

의미를 찾는 활동이고, 비평은 텍스트의 의미를 확장하고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시를 활용한 문화 이해의 첫 단계는 바로 주어진 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대상을 아는 것“, 즉 목표문화에 대한 이해를 활성화시키는 단계다. 이 단계는 문화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문화적인 ‘정보’란 자문화에 관한 지식과 타문화에 들어가서 배우는 문화의 성격뿐 아니라 특정 문화나 언어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⁴²⁾ 언어는 인간적 현실로서 문화 전반에 걸쳐 인간의 모든 일상이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문학 장르에서 특히 시 장르의 언어는 다른 문학 장르의 일상적인 언어와 구별될 수 있는 서어만의 특성이 있다.⁴³⁾ 현대시는 비유와 상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어는 함축적이고 다의적이다. 로트맨(Rotman)⁴⁴⁾은 상징이란 문화적 기억과 결합되어 창조적 과정을 위한 축약된 프로그램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징은 한 문화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왔으며, 관습적으로 보편화하여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또한 시인이 추상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감각화하기 위해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다, 시어의 상징적이나 비유적인 의미는 사물이나 느낌을 환기시킴으로써 형상화되어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⁴⁵⁾ 이처럼 시 텍스트에 문화적 내용이 운율이나 이미지 등에 심미적으로 녹아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교수하고자 하는 문화요소에 대한 보다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해진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 읽기에서 반응 양상의 결과 전반적으로 시 텍스트의 내재적 정보, 즉 시어의 상징적 의미 등 어휘 활용에 대해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⁴⁶⁾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상징, 이미지 등의 시적 표현은 문화적 ‘정보’를 담고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학습자는 시를 해석할 때 간접적으로 타문화를 접하게 됨으로써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면서 양국 간 문화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으며,

42) P. R. Moran, 정동빈 외 옮김, 앞의 책, 2004, p.21.

43) 박윤우, 『현대시와 문화교육』, 푸른사상사, 2011, p.115.

44)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0, p.186.

45) 오정훈, 『한국 현대시 교육론』, 경신출판, 2015, p.51.

46) 박성,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반응양상 연구 -독자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Vol.14 No.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이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2.2 경험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소통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학습자 중심의 문화교육은 상호문화교육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문화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호문화적 관점⁴⁷⁾에서 문화는 더 이상 소속의 논리가 아닌 관계의 논리로 파악되고, 학습자는 더 이상 문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에서 자유롭게 상호 교류하여 문화의 주체이자 생산자이자 행위자가 되는 것이다. 상호문화주의에서 '상호'라는 접두사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개인과 집단, 정체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⁴⁸⁾ 이는 문화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문화에 속한 특수하면서 보편적 존재인 개인과의 만남 및 소통을 중요시하며, 양쪽 문화 간에 평등한 대화나 존중을 촉진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이때 상호문화교육은 단순히 타인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 간 소통을 이루어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하는 데 목표로 둔다.

문학은 인간 삶의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작가의 가공을 통해 현실과 구별되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인간성을 띠고 있으며 인간 삶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⁴⁹⁾ 즉 문학은 인간의 현실적 삶에 기반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의 표상이라고 간주될 수도 있다. 압달라 프렛세이(M. Abdallah Pretceille)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자신과 타인의 연출 장소로 여기고, 사회학과 인류학의 관점에 따라 개인을 사회적 존재로 여기며 자기 문화의 생산물이라는 단순한 위상에서 벗어나 문화 공동체 안에 하나의 문화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⁵⁰⁾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47) 위의 내용은 M. Abdallah-Pretceille, 장한업 역, 앞의 책, 2010, pp.16-25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한다.

48) M. Abdallah-Pretceille, 장한업 역, 앞의 책, 2010, p.65.

49)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45.

50) Chaves, Rose-Marie, 서영지 옮김, 『알기 쉬운 교실 상호문화교육』, 북코리아, 2019, p.19.

자문화와 타문화가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작품 중 대표적으로 시는 '빈자리'가 많다는 특성을 가진다. 시의 '빈자리'는 학습자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환기하여 타문화와 자문화를 연관 지을 수 있고,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객관적인 문화 이해가 촉진될 수 있으며 자기 탐색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스스로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진 경험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특성을 띠게 되므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공유한 상식으로부터 다른 대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경험의 작용 양상을 다룬 논의에 의하면,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 원리는 학습 경험의 활용, 사회문화적 배경의 작용, 정체성 인식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⁵¹⁾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를 읽을 때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을 모두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개인적 경험으로는 학습자 문화 경험의 활용, 문학학습 경험의 환기 등이 있고, 공동체적 경험은 사회·역사적 사건의 적용이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를 읽을 때 작품 속에 드러난 작가의 사고와 학습자의 구체적인 경험 세계 간의 상호거래를 통하여 가치를 이해하게 되므로, 한국문화와 중국문화 간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3 성찰을 통한 상호문화적 태도의 형성

자아성찰은 자기의 본성을 발견하는 과정이자 나아가 자기의 성장과 완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개인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없기에, 계속적으로 타인과 접촉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가 자신이 소재한 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적 문화를 향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타인과 타문화의 관계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가치를 소중히 여겨 바람직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인식⁵²⁾

51) 김소연,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52) 송인섭, 『人間的 자아개념 탐구』, 학지사, 1998, p.30.

의 확장은 상호문화적 태도의 형성에 있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자아성찰은 자신의 본질과 존재하는 의의에 대한 질문이자 자기 형성 그리고 가치관 의식을 위한 근본적 토대가 되고, 사회적 자아로서의 역할 인식을 삼아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아성찰은 시 교육에서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양한 삶의 양상과 성숙한 가치관이 형상화되어있는 시 작품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학습자들로 하여금 개인과 사회 공동체 간의 소통을 상호작용하게 하는 매개로 볼 수 있다. 또한, 시 작품 속에 마련된 인물의 개성과 삶의 모습, 그리고 빚어내는 갈등까지 '자아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시인이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이해와 자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독자에게 보여준다, 시 작품은 세상 속에 인간의 실체를 '자아'로 드러냄과 동시에, 작가로서의 자기 존재, 시적 가치관에 대해 주목하게 한다.

다른 모든 교육과 마찬가지로 상호문화교육 역시 태도와 행동의 기초를 이루는 가치문화와 관련이 있다. 다른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에서 인정하고, 자국 문화를 다른 문화와의 관계에서 바라보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문화의 입장에서 사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상호문화학습의 핵심 목표이다.⁵³⁾ 즉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정체성 함양인데 이 정체성 형성에는 두 가지 차원이 개입하는 것이다.⁵⁴⁾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차원이다. 타인을 통해 개인은 타인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의 정체성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늘 (재)생성된다.

여기서 타인과의 관계 차원에서 형성된 정체성은 시 텍스트를 통해 타 문화를 이해할 때에 학습자의 문화 경험을 활용하여 자문화와 비교·소통하는 과정인 '자기 인식 조정'을 거쳐 얻게 된다. 콘(A. Cornes)은 문화간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은 결국 자기 성장이어야 하고, 문화교육에서

53) Alfred Holzbrecher, 『상호문화교육의 이해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정기섭·오영훈·김영순·이문기·변경원 옮김, 북코리아, 2014, p.153.

54) Chaves, Rose-Marie, 서영지 옮김, 앞의 책, 2019, p.32.

개인의 감정, 믿음, 특성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⁵⁵⁾ 자기 인식 조정이란 기존의 자기 인식을 확인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통해 조정과 선택으로 나아가는 것⁵⁶⁾을 말한다. '타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내가 전에 몰랐던 것이 있는가', '문화 간 소통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타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성찰하고 판단하며, 이러한 인식 조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타문화를 만날 때 지속되는 것임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기 자신과의 차원에서 형성된 정체성은 본고에서 다룬 가치문화 핵심으로서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문화교육에서는 문화교육 자체로서의 교육적 가치와 효용이 항상 강조되고 있다. '문화능력의 함양'은 문화교육의 목표로 이는 '서로 다른 문화 간 차이를 넘어 인간과 세계 간의 소통과 이해 능력의 신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교육의 내용 중에 특별히 강조되는 항목은 바로 '가치관'이다. 가치관은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⁵⁷⁾으로 정의되는데, 그 의미는 이해 범위를 좁혀 '같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에 달려 있다. 한국문화교육이 문화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고유한 태도로서의 '가치관'을 교육해야 한다. 외국인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관'은 한국문화의 생소한 특징들과 문화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열쇠다.⁵⁸⁾ 이러한 가치관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시적 공감을 불러일으켜 가치관을 재확립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게 된다.

55) A. Cornes, *Culture from the inside out: Travel and meet yourself*, Intercultural Press, 2004, pp.9-10.

56) 김에리나, 「학습자 경험을 활용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p.32.

57) 홍기정, 「한국문화교육에서 한국인 가치관의 실증적 규명에 관한 연구」, 『우리어 문연구』, Vol.64 No.-, 우리어문화회, 2019, p.413.

58) 홍기정, 앞의 논문, 2019, p.413.

3.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의 의의

3.1 시어표현을 통한 문화 향유

문학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예술 장르와 구별된다, 그런 문학의 세부 장르 중 언어 자체를 가장 첨예하게 다루는 장르는 시일 것이다. 시는 언어문화의 정수이고 자아와 대상 사이의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호융화 상태의 정서를 표현하며, 일상의 시간 질서가 아니라 자아와 세계의 간격이 사라지는 순간에 주목하는 장르적 특질을 지닌다. 또한 문화적 의미가 있는 언어의 형태를 띠며 이미지와 비유, 상징 등의 언어표현을 통해 구체성을 획득하고 함축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를 통한 가치문화 교육에서 시적 정서를 접근할 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언어부터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이거도 시적 언어표현이 지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는 공통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 인식된다. 그 이유는 시인이 의도적으로 독특한 의미를 표현할 언어 형식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때로는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 주체로서의 학습자들은 시의 표현에 드러난 언어적 의미에 주목한 다음, 시어가 사용된 전체 맥락 안에서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해석해내며, 이를 통해 문화요소를 도출하고 문화를 향유하게 된다. 한국 현대시를 포함한 '문학'이라는 장르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언어 산물이다. 시대를 고발하는 불온함, 서로를 위로하는 따듯함, 그리고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늘 되묻는 치열함도 그 안에서 교차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한국 현대시를 읽으면서 시에 드러난 생활문화 및 정서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한 학습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친근감을 형성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흥미, 한국어로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함께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형

성된 친근감, 흥미와 자신감은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의적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를 폭넓게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도록 도울 것이다.

3.2 문화 간 소통을 통한 능동적인 인식 탐색

다른 문학 장르와 구별되는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시어의 함축성이다, 시의 언어는 그 의미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포하는, 다시 말해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풍부한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언어의 외연(denotation)에만 기대지 않고 내포(connotation)를 통해 세계의 새로운 면을 포착해 내는 시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어즐리(M. C. Beardsley)는 시의 함축적 의미는 그 모습이 은폐되어있는 것이라고 했다.⁵⁹⁾ 그래서 학습자들이 시에 내포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 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유추와 상상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시의 문맥 속에서 구조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시 텍스트의 특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 읽기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문화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시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도록 이끈다. 즉 시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다른 언어 맥락에서 서로 다른 문화 간 소통이 일어나게 된다.

문화 간의 소통, 서로 다른 문화 간에 속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상호문화 교육 목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상호문화적 접근은 자신의 자문화에서 출발해 타인인 타문화를 향해 나아간 다음, 다시 변화된 자신으로 돌아오는 나선적인 형태이다,⁶⁰⁾ 즉 학습자가 시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타문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질문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 탐색도 자문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진다. “태어나면서부터 문화를 내면화한 개인은 그것이 조건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59) 정재찬,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집필한) 『현대시 교육론』, 서울: 역락, 2017, pp.58-60.

60) Maddalena De Carlo, *L'interculturel*, 장한업 역, 『상호문화 이해하기: 개념과 활용』, 한울 아카데미, 2011, p.8.

못 한다.“⁶¹⁾라는 말처럼, 자국어 문화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습득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마치 매 순간 들이마시고 내뿜는 공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한국 시 텍스트를 매개로 한국문화를 탐색하면 학습자의 타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어 문화 역시 상호문화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자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타문화의 언어, 문화적 맥락에 몰입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맥락에 대한 인식도 마비되지 않고 활성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 간 소통을 통해 타문화와 자문화에 대한 능동적인 인식 및 탐색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동시에 학습자들이 자신의 관점을 상대화하여 내면화된 문화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3.3 성찰적 가치 인식에 기반한 태도 조정

문학교육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활동이다.⁶²⁾ 문학작품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윤리적 가치들이 충돌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학습자는 작품 속에서 그려진 긍정적인 가치를 수긍하고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인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바람직한 가치를 정립해 간다.

문화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느낌과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가치체계이다. 시는 그러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감각에 바탕을 두고 창작되지만, 동시에 공동체로 하여금 낯은 감각을 새롭게 하고 문화적 의미를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현대시를 활용한 가치문화교육은 가치를 삶의 맥락에서 유리된 단편적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형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 속에서 내면화하도록 함으

61) G. Verbunt, *La société interculturelle*, 장한업 역, 『상호문화사회』, 교육과학사, 2012, p.30.

62) 김대행 외, 앞의 책, 2000, p.202.

로써 학습자 개개인의 가치 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는 독자나 사회에 대한 윤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교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시경」을 읽지 않았으면 대화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不學詩, 無以言), “시 삼백편이,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詩三百, 一言以蔽之, 思無邪)라고 하였다, 이는 「시경」이 윤리, 도덕, 신념, 가치 등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치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관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시 교육은 바람직한 가치 인식을 제시하는 윤리교육과 달리, 다양하게 충돌하는 윤리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을 던지거나 그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가치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문화적 능력⁶³⁾(cultural literacy)을 중시하는 한국어교육과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문화교육에서 한국 현대시를 활용하면 외국인 학습자들이 단순한 언어차원의 학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화 차원으로 나아가 문화지식을 이해하고 문화정서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상호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여 목표언어의 문화를 자기화할 수도 있다.

브루너(J. Bruner)는 인간의 마음은 문화의 사용을 통해 구성되고, 인간 문화의 사용에서 실현된다고 보았다. 개인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자신의 마음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간다.⁶⁴⁾ 즉 의미 있는 문화 학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언어야 할 것은 새롭게 형성된 태도의 조정이다, 이러한 태도 조정은 가치 인식을 성찰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상호문화교육은 역시 태도와 행동의 기초를 이루는 가치문화와 관련이 있다. 다른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에서 인정하고, 자국 문화를 다른 문화와의 관계에서 바라보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63) 문화적 소양, 문화적 문식성 등으로 불리는 문화적 능력은 한 사회 및 문화에 참여하여 원활히 소통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감성을 가리킨다. 정재찬, 앞의 책, 2017, p.27.

64) J. Bruner, *The Culture of Education*, 강현석·이자현 역, 『교육의 문화』, 교육과학사, 2014, p.38-39.

틀을 벗어나서 다른 문화의 입장에서 사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상호문화학습의 핵심 목표이다.⁶⁵⁾ 상호문화적 태도의 조정은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있던 인식의 틀에 벗어나, 새로운 가치 인식, 문화 인식의 형성에 도달해야 한다.

65) Alfred Holzbrecher, 앞의 책, 2014, p.153.

Ⅲ.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반응 양상

이 장에서는 학습자가 현대시를 읽고 작성한 활동지, 감상문과 개인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통해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긍정적인 경향과 부정적인 경향을 모두 파악하고자 한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이해 과정은 먼저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의 시어, 구절 등 문학표현, 상징, 서정 등 문학기법을 통해 시에 담긴 가치문화를 이해하고,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문학경험, 사회적 경험 등 경험을 환기함으로써 문화 간의 소통을 이루며, 성찰을 통해 가치관과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상호문화이해로 나아간다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II장에서 마련된 현대시를 활용한 가치문화 교육의 단계에 기반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실제로 한국 현대시를 읽을 때 일어나는 문화이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 학습자의 이러한 시 읽기, 문화 이해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시 읽기와 수업을 실행하고 나서 문화이해에 대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현대시를 활용한 문화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현대시를 활용한 가치문화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를 사용한다. 사례연구에 대한 정의는 명확한 설명이 없고, 다양한 속성들을 포함하기에 학자마다 개념이 다양하다.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사례연구는 프로그램, 사건, 사람, 과정, 제도 혹은 사회집단에서 실제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와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이다.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풍부한 자료 수집을 기초로 전형적인 사례에 기대어 수집된 자료들의 특성을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략이며, 연구자가 자료들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실험 과정은 30명의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두 개 조로 나누어 주어진 한국 현대시를 읽어보고 활동지, 감상문 작성, 토론, 인터뷰 등 수업활동을 하도록 한다. 먼저 학습자가 주어진 시 텍스트를 읽고 1차 활동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시 텍스트와 활동지를 가지고 2차에서 토론·발표 등 수업 활동을 진행하였다. 수업 활동이 끝나고 3차 실험에서 작성한 감상문을 수집하였다. 작성한 내용에 대해 모호하거나 더 토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 장 1절에서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의 소통을 통하여 시 이해에 입각해 문화를 이해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양상을 추출하고, 2절에서는 학습자가 다양한 경험을 환기하여 한국과 중국의 가족주의 가치문화를 상호소통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3절에서는 학습자가 문화 간 소통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상호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양상을 제시하였다. 4절에서는 학습자 집단별 양상을 분류하고 반응의 특징, 양상에서 보여주는 시사점 그리고 문화이해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IV장의 교육 설계 구체화로 이어지며, 학습자가 보여주는 한계점을 밝힘으로써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장은 앞의 II장에서 마련된 현대시를 활용한 가치문화 교육의 단계에 기반하여,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를 활용한 가치문화 이해에서 나타난 양상을 '시 텍스트 이해에 입각한 문화이해', '경험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소통', '성찰을 통한 상호문화적 태도의 형성', '학습자 집단별 반응의 특징과 타문화 이해의 한계'로 나누어 각 절을 구성하였다.

1. 시 텍스트 이해에 입각한 문화이해

1.1 시적 언어표현을 통한 문화정보 발견

이 소절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시적 '문화정보', 예를 들어

시어 표현에 나타난 시적 상징, 이미지, 구절을 통해서 시에 드러난 문화요소를 파악하는 양상에 해당한다. 상호문화교육 관점에 입각한 문화교육의 방법 혹은 학습자들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인지하는 단계는 장한업(2014)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여러 학자들의 제안을 종합하여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을 “자문화 인식“,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타문화 관용(수용)“ 단계¹⁾로 정리하였다. 그중에 “타문화 발견“ 단계에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주어진 매체를 보면서 친근감, 생소함, 문화적 충격 등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들이 타문화와 소통하는 매체는 바로 시 텍스트다. 이처럼 시어와 문화는 근본적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관계를 상호소통 가능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시를 읽고 무엇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차_02_A_작은 부엌 노래]

저는 <작은 부엌 노래>라는 제목을 볼 때 이 시는 여성과 관련한 시라고 추측했다. 제목에서 '부엌'이라는 단어를 보고 머릿속에 바로 여성의 모습을 떠올랐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문화에서 여성들이 보통 부엌에서 집안일하고, 부엌은 여성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에서 나온 '부엌'은 여성을 상징하고 있다.

위의 학습자는 시의 제목 '작은 부엌 노래' 에서 '부엌' 이란 시어에 주목하여 이는 여성과 관련한 시라고 추측했다. '부엌'이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머릿속에 여성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중심의 부엌'과 한국문화 중에 보편적인 여성의 모습을 연관 지어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학습자가 자기에게 이해가 쉬운 시어, 생활적인 시어로 시에다가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습자와 시 텍스트 간의 거리를 줄이고 텍스트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

1) 장한업, 앞의 책, 2014, pp.154-157.

라 시어의 표면적인 상징의미에 머물지 않고 더 심층적인 의미를 도출하여 타문화에 접근하는 학습자도 있다.

[1차_01_A_작은 부엌 노래]

이 시에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담긴 시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후각적 이미지 “술 피는 냄새“, “끓음이 삭아가는 냄새“ 등 표현을 보면 이들은 다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뜻으로 여성들이 주방,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에서 하루하루 흘러가는 청춘을 생생하게 상징하고 있다. 또한 청각적 표현을 보면 “바삭바삭 무언가타는 소리“, “붓는 소리“, “도마 소리“, “허물 벗는 소리“ 등 이미지 많이 나타났다, 이 소리들은 여성이 주방에서 일할 때 나온 소리로 “한 사람은 큰방에서 치는 큰소리“와 대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고 한국 가족환경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의 대조를 상징함으로써 한국의 가부장제, 호주제 등 가족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청각적 이미지가 담긴 시어 “바삭바삭 무언가타는 소리“, “붓는 소리“, “도마 소리“, “허물 벗는 소리“, 후각적 이미지가 담긴 시어 “술피는 냄새“, “끓음이 삭아가는 냄새“ 등 시어들이 주는 자극을 통해, 학습자들이 현실 속의 부엌에서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여성의 모습을 연상하고 “여성의 청춘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 관계를 통해 인식하고 있다. 시적 이미지는 언어에 의해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이며, 이처럼 추상적인 언어를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감각에 의존하는 성향이 크다. <작은 부엌 노래>는 바로 시적 이미지가 감각에 많이 의존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는 후각, 청각 등 여러 가지 감각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를 읽는 과정에서 시어를 통해 일차적으로 유발된 시각적 이미지가 마음속에 환기된 후에, 더 구체적이고 부가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발전해 나간다.²⁾ 이렇게 학습자가 개별 이미지들의

2) 오정훈, 앞의 책, 2015, p.51.

유기적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총체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의 전체적인 내용과 정서를 파악하고 타문화를 접하게 된다. 개별 이미지부터 '부엌'이라는 총체적 이미지까지 여성에게 불평등, 슬픔, 불행이 가득한 공간, '큰방' 과 대조되는 '가부장적' 억압의 공간으로 인식되며, 혼인관계에서 남녀 간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형상화는 현대 여성들의 불평등한 관계를 암시하고, 학습자가 가부장제의 잔존으로 인해 여성은 여전히 억압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1차_17_A_어머니]

이 시는 예쁘고 화려한 꽃으로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다, 시인의 성장에 따라 일곱 살 때의 어머니는 “하얀 목련꽃“이고, 열네 살 때의 어머니는 “연분홍 봉선화꽃“이고, 스물한 살 때의 어머니는 “노오란 국화꽃“이며, 스물아홉 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이제 어머니는 “별“, “바람“, 그리고 잔잔히 흐르는 “흰 구름“이 되었다. 어머니를 상징하는 꽃과 별, 바람, 구름이 모두 다 화려하고 편안한데, 목련꽃이 눈부신 봄에서 빈 집을 지키고, 봉선화꽃이 여름 하오 울 밑에서 눈물을 적시고, 국화꽃이 어두운 가을 저녁 홀로 등불을 켜주고, 이렇게 꽃의 화려함과 어머니의 슬픈 모습을 대비하여 어머니가 가정과 자식을 위한 끝이 없는 지킴과 희생, 위대한 모성애를 강조하고 있다.

위의 학습자는 시인의 가슴에 새겨진 어머니의 모습은 꽃으로 상징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일곱 살에는 “하얀 목련꽃“, 열네 살에는 “봉선화꽃“, 스물한 살에는 “노오란 국화꽃“, 어머니가 돌아가신 스물아홉 살에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빛나는 “별“, 영원히 흐르는 “바람“과 “흰 구름“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냈다, 학습자는 유년기의 아름다운 꽃을 상징하는 어머니와 언제나 “빈 집을 지키는“, “울 밑에서 눈물을 적시는“ 인고와 기다림의 화신으로서의 어머니의 모습을 비교하여,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자로서, 한 어머니로서의

삶의 내면을 꽃을 통해 형상화시킴으로써 안타까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러한 상징 관계에 대해 학습자들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학습자들이 한국의 가족문화에 대해 학습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기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비교적 낮은 외국 문학이지만 이런 경향이 나타난 것도 중국인 학습자들은 초등학교부터 중국 고전시를 배우기 시작하여 시를 이해할 때 먼저 수사법을 찾아 그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에 능숙하기 때문이다. 중국 어문(語文)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문학교육이다.³⁾ 중국 각 지역의 어문교육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지역의 문학교육은 주로 고전시의 암기와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문학지식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익숙한 내용으로서 자국의 문학 학습 경험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는 양상을 보면 시어의 이미지, 상징적 의미를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지만 능동적으로 타문화와 관련지어 반성하는 양상은 부족하다. 특히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 시의 1차 활동지를 보면, 대부분 학습자들이 시어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해석에 머물러 있어 시를 단순히 부성애나 모성애, 가족애를 칭송하는 시로 여기며, 심층적으로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성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사실 '어머니', '아버지' 등을 주제로 한 시 작품들은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낯설지 않고 해석하기에 어렵지 않으나, 그럴수록 학습자가 이러한 시 텍스트를 읽을 때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문화를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학습자가 자신에게 익숙하고 해석하기 쉬운 방향으로 시를 이해하는 것은 능동적인 시 읽기 전략이지만, 한편으로 부족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을 때 다양한 단서를 찾게 하거나, 다양한 시 텍스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문화를 이해해 나가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 아래 20번 학습자가 1차 실험에서 작성

3) 김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 연구: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p.18.

한 활동지를 보면, 이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단순한 가족에 측면까지 분석하고 있다. 토론과 다양한 수업 활동을 진행하고 나서 3차 실험에서 작성한 감상문을 비교해보면, 1차와 다른 인식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차_20_A_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란 이미지가 밖에서는 폭탄을 만들고, 감옥을 지키고, 또한 술가게의 문을 닫고, 이런 고생한 일과 중대한 책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씩씩한 남자의 이미지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 바로 한 가족의 가구주가 된다, 밖에서 한 고생한 일보다 난로에 불을 피워주고, 낙엽을 줍고,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는 가족을 위한 평범한 아버지이다. 이 시는 아버지의 편법과 위대를 찬송하고 있다.

[1차_20_A_어머니]

시는 여러 가지 꽃으로 어머니를 상징하여 온유한 가정 여성의 이미지를 묘사한다. 시인의 인상 속에 어머니는 꽃처럼 아름답고 화려하다, 우리 가정을 위해 수고해주신 어머니에 대한 찬송,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시는 시인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이다.

1차 활동지에서 나타난 양상을 보면 20번 학습자는 시의 전체적인 정서와 흐름을 상대적으로 잘 파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미지를 시적 상징관계 사이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시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에 그쳤을 뿐이고, 더 심층적으로 어떤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무엇인지 등은 활동지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2차 실험에서 진행된 토론과 다양한 수업 활동을 거쳐 작성한 감상문을 분석하면, 20번 학습자가 1차와 다른 인식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차_20_W_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란 이미지가 가정 구성원 한명으로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버지는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아무리 고생하셔도 집에 돌아오면 자녀에게 든든한 아버지가 된다, 밖에서는 아버지가 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전사, 영웅이겠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평범한 아버지가 된다,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한 가족의 가구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저는 이 작품은 그냥 처음 읽었을 때처럼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를 찬양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로써의 역할은 가족부터 사회로, 작은 것에서 더 큰 영향까지, 이렇게 아버지의 변화된 이미지로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3차_20_W_어머니]

제가 앞의 <아버지>라는 시와 <어머니>라는 시를 비교하면서 읽고 나면 좀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다, <아버지>라는 시 속의 아버지의 이미지는 항상 밖에서 고생이 많고, 생계가 어렵고 슬픈 느낌 나온 이미지지만 <어머니>라는 시는 꽃으로 어머니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꽃은 빈 집을 지키고, 등불을 키면서 자녀를 기다리고, 항상 묵묵히 집에서 가족을 지키고, 가족을 위해 애써주고, 집에서 다른 가족들을 기다리는 이미지이다, 그래서 비교가 될 수 있다. 사실 생각해보니 중국이든 한국이든 문학작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미지를 그렸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아버지는 항상 산같이 든든하고 밖에서 힘든 일을 고생하는 이미지고, 어머니도 물같이 온유하고 집안일 고생하고 가족을 지키는 이미지다. 이렇게 비교하면 '男主外, 女主內'(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 한다.)라는 가족주의 문화가 너무 깊게 새겨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20번 학습자는 활동지에서 보인 것처럼 시 텍스트를 처음 읽었을 때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를 찬송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아버지란 이미지는 가족구성원의 한명으로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가족부터 사회로, 작은 것에서 더 큰 영향까지, 이렇게 아버지의 변화된 이미지로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2차 실험에서 구체적으로 아버지 이미지의 의미, 아버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와 가족주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은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양상에서 학습자가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 시 텍스트에 나타난 아버지, 어머니의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중국이든 한국이든 문학작품에서 나온 아버지, 어머니의 이미지, 상징적 의미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이러한 고정된 부모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원인은 한·중 양국에 '男主外, 女主内'(남주외, 여주내)라는 가족주의 문화가 너무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문학 구사 능력은 상대적으로 뛰어나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문학작품 표면에 대한 분석에 머물고 일정한 구절이나 시어에만 주목하면 문화능력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학교육 특히 시 교육현장에서 '상호텍스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학 텍스트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가 내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을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텍스트들 사이에 있는 텍스트'이다.⁴⁾ 좁은 의미로 보면 이는 주어진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을 말한다. 텍스트 간 상호관계를 형성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단순히 인용이나 영향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넓은 의미로 상호텍스트성은 다양한 텍스트, 다양한 주체 간의 관계, 나아가 텍

4)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03, p.98.

스트와 사회·문화적인 영향 관계에서 지식의 포괄적인 연결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의 관계성은 작품 내부, 즉 텍스트 내적 요소인 주제, 표현, 구조 등 내적 맥락 이외에도 외적 요소들인 작가배경, 시대배경, 문화배경 등에까지 미친다. 시의 주제를 구성하는 과정에는 텍스트 내적·외적 맥락이 모두 관여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의 내적 맥락 그리고 외적 맥락을 바라보고 더 심층적인 문화 사고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1.2 시적 정서 체험을 통한 타문화의 정의적 접근

시는 정서를 표현하는 주관적인 장르다. 시문학에서 정서는 다른 문헌 범주 및 문학 장르와 구별되는 중요한 속성이며 존립과 갈래가 형성된 근거에 해당한다. 심리학에서는 정서를 “자극에 대한 복합적인 반응의 연쇄로서 인지적 평가, 주관적 변화, 자율 신경계의 각성과 행동 충동⁵⁾으로 정의한다. 즉, 외부 자극에 대해 주체가 단순히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내적 느낌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과 인지의 측면까지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반응에서 인지가 관계한다는 인식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서는 체험에 의해 유발된 단일적 내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상황과 대상에 대한 평가와 해석에 따라 감정의 질과 강도가 결정⁶⁾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정서의 유발은 심리적 변화와 자극 대상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단순히 생리적 반응과 자극으로 인한 일차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의 형성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베르그송은 정서의 개념을 “사회적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가치판단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정서는 감각 기관이 현상에 반영한 지각적 행위로 인해 유도된 것으로 주관적인 인식행위와 자발적인 기억작용임을 강조한다.⁷⁾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를 매개로 텍

5) James W. Kalat & Michelle N. Shiota, 민경환 외 역, 『정서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8, pp.4-5.

6) 임지룡, 『말하는 몸』, 한국문화사, 2007, pp.13-14.

스트의 논리적 구성요소와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형성된 학습 독자의 정서 및 인지적 측면의 내재적 반응이나 변화는 단일한 차원을 넘으며, 이는 심리적 실체로서 시적 정서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은 시 텍스트를 연결고리로 학습 독자가 체험하고 재구성하는 시적 정서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서적 반응에서 주관적 가치판단의 활성화를 통해 정서의 본질인 가치문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현대시를 활용한 문화교육은 시적 정서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정의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시의 정의적 특성과 관련된다. 시의 서정은 '자기표현'이므로 이의 본질은 주관성이며, 주관성의 실체로 체험과 감정이 강조된다.⁸⁾ 즉 시를 읽는 학습 독자는 시 안에 내재한 정서를 '체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문화에 대한 정의적 접근도 가능해진다.

[1차_04_W_작은 부엌 노래]

처음에 <작은 부엌 노래>라는 시를 읽었을 때 노래라는 단어를 담은 제목을 보면 매우 활발하고 신나는 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읽어보니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이 시의 주인공은 한 명의 여자인데 각 가정마다 다 있는 여자, 즉 어머니 역할을 맡은 여성이다.....(중략)..... 이런 대조는 사실상 한국 가정 내의 남녀 지위 불평등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은 가정에서 집안을 돌봐야 하고 남성은 밖에서 일해야 하는 이미지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학습자는 시의 제목 중 '노래'라는 단어에 입각하여 스스로 시의 전체적인 정서의 기초를 파악한다, 정서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점점 답답하다는 느낌이 생기기엔 활발하다는 선입견을 깨며, 여성에 대한 불평등, 슬픔, 불행을 느끼면서 가부장제적 가족주의 문화에 대해 정의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처럼 시를 읽는 독자는 시 안에 내재한 정서를 '

7) 송영진, 『직관과 사유』, 서광사, 2005, pp.262-263.

8) 김준오, 앞의 책, 2002, pp.47-48.

체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체험'⁹⁾이란 서정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경험이 텍스트에 나타난 서정 주체의 정신적 상태를 공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의미화되는 '심리적 과정'이다, 학습자는 시의 정서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체험과의 연관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시 텍스트 안에 내재한 한국 문화요소에 보다 정의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는 한국문화에 대한 정의적 접근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차_23_A_家庭, 어머니]

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묘사하고 있지만 시의 장르를 봤을 때는 서정시이다, 부모님은 가족을 위한 희생, 생계를 위한 고생을 표현함으로써 평범하지만 위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있다, 항상 집에서 자녀 일상을 위한 어머니, 밖에서 고생하시고 돈 버는 아버지, 부모님의 부족할 없는 사랑으로 키워 자라는 아이, 나중에 부모님 나이 들면 효를 다하는 효도, 이러한 가족상태는 바로 정통적이고 이상적인 유교문화에서 나타난 가족 상태고, 서양문화와 달리 우리의 가족은 항상 중요하고 가족 구성원 한명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 서로에 대한 사랑, 가족을 위한 희생, 한국이든 중국이든 가족주의 문화에 온정적, 따뜻한 가족애가 담겨있다.

23번 학습자의 양상을 보면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장르를 서정시라고 보고, 시에 드러난 정서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에서 서술한 가족의 형태는 학습자의 공감을 일으켜 가족주의 문화가 유교문화에서 비롯된다고 추론하였으며, 서양문화와 달리 한국이든 중국이든 가족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가족주의 문화에 따뜻한 가족애가 담겨있다고 하며 온정주의라는 문화요소를 추출하였다. 이처럼 학습자가 시적 정서를 체험하여 문화에 접근하는 과정은 시적 정서 교육의 세 가지 측면, 즉 “정서의 언어화 필요성, 경험과의 관련성,

9) 김남희, 「현대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p.4.

인지와의 상호작용성“ 맥락 속에서 “정서어휘, 상황 인식, 가치 인식“ 측면으로 수행된 이론적 근거¹⁰⁾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정서어휘는 정서를 자극하는 동인(動因)으로, 체험으로 이루어진 상황 인식 및 가치 인식과 함께 정서를 정치(精緻)하게 형성하게 될 것이다. 가족주의 문화 중 가족애, 가족온정 등의 가치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에게 보편적이고, 문학경험으로서도 낯설지 않으며 시적 정서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문화가치를 반영하는 시 작품의 정서를 체험할 때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문화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양상도 있다, 김수영의 시 <나의 가족>에 대한 학습자의 양상이 바로 그 예이다. <나의 가족>이라는 시는 다른 시 텍스트보다 시어가 상대적으로 난이도 높고, 비교적 편 폭이 길며 시 구조도 단순한 편이 아니라서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수업하기 전에 시를 여러 번 읽게 하고 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 활동지를 작성하게 했다, 그러나 학습 활동지를 보면 대부분 학습자들의 시에 대한 반응이 모호하다.

[1차_30_A_나의 가족]

이 시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지 잘 확정하지 못했다, 근데 시의 제목 '나의 가족' 그리고 시에서 나온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보면 식구가 많은 한국 대가족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중략).....시적 화자는 가족에서 높은 권위를 차지하고 일정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가부장인 것 같다. 혹시 가족의 권력자로서,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나요? 어떤 가족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저는 읽어내지 못했다.

위의 학습자가 작성한 활동지를 보면 '같다'라는 모호한 표현이 많이 나온다. 내용에 대해서는 대가족을 묘사하는 시라고 판단하지만 어떠한

10) 오정훈, 앞의 책, 2015, p.14.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어떠한 문화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시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읽어내지 못했다. 이 학습자뿐만 아니라 실험에 참여한 많은 학습자들이 이 시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시에 대한 이해는 시의 제목, 표면적인 의미가 내포된 시구, 또한 해석하기에 어렵지 않은 시어에만 머물러 있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런 해석은 무의미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시에 대한 파편적인 이해로 인해 더 심층적인 가치인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부족한 인식은 학습자가 난해한 시 텍스트를 접할 때 스스로 시와 거리감을 두고, 자기가 익숙한 시어에만 주목함으로써 능동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심리적 거부에서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시는 복잡하고 폭넓은 삶과 사람의 모습들을 압축된 언어로 그려나가고자 하기에 시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없이는 학습자들이 작품의 속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시 텍스트는 함축적이고 빈자리가 많아서 학습자가 시 텍스트에 있는 다양한 단서를 찾아 시적 의미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의 장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각도, 다양한 단서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시를 해석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더 적극적으로 시적 의미와 정서를 해석하여 시에 대해 이해도 더 심층적이고 풍부해진다. 아래의 양상으로 제시할 수 있다.

[1차_30_1_나의 가족]

- <나의 가족>이라는 시를 읽어보면 앞의 가족 시와 다르다는 느낌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 이 시는 무슨 뜻인지, 시인이 무슨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워낙 시어도 좀 어렵고, 전에 읽었던 가족 시처럼 단순한 가족을 묘사하는 시는 아니고, 시적 화자가 무슨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한 작품이 꼭 표현하려는 중심사상이 있고, 특히 예전에 (중국) 어문수업에서 현대시 배웠을 때도 선생

님이 詩眼(시안, 시적 안목)이 항상 시구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찾았어요.

- 그래서 詩眼은 어떻게 생각해요?

- 제가 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의 뒤 부분에서 나온 “가족의 조화와 통일”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 한 사람의 입김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입김이 합쳐어진 것” 보여준 것처럼 개인 하나하나 말고 모든 가족, 정체로서의 가족, 가족의 조화와 통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의 학습자는 처음으로 시의 정서를 해석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느꼈지만 중국 어문수업에서 “현대시의 詩眼이 항상 시구에 들어가 있다”는 문학 기법을 환기하여 시의 시안(詩眼)을 “가족의 조화와 통일”로 지정한다. 중국 학습자들의 현대시에 대한 양상을 보면 주제시구를 찾거나 시안으로 시의 전체적인 정서를 파악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다. 이러한 경향이 외국어로 된 한국 현대시 텍스트에 대한 반응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특별한 시어를 매개로 학습독자의 문학 경험이나 기억을 환기시켜 모호한 내적 정서를 가시화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서어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나온 ‘詩眼’을 바로 ‘정서어휘’로 간주할 수 있다, ‘정서어휘’는 말대로 정서를 표현해내는 어휘로 정의되며, 자극으로 인해 유발된 학습자의 다양한 정서를 유형별로 범주화하고, 동시에 각각의 기본적인 정서를 세분화시킬 수 있다. 정서어휘를 통해 내면의 모호하고 추상적 느낌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의 실체를 대상화하여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준다. 학습 독자가 시의 ‘정서어휘’에 드러난 개념이나 의미 등에 대한 해석에만 주목할 뿐만 아니라, 정서를 불러일으키면서 이와 관련한 연상 반응이나 가치태도 등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마련이다.¹¹⁾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학습자는 시 작품 속에 나타난 특정한 ‘정서어휘’ 그리고 어휘 간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정서를 환기시

11) Louise M. Rosenblatt, 김혜리 외 역, 『독자, 텍스트, 시』, 한국문화사, 2008, p.43.

킴으로써 문화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베르그송은 “감정적이라고 불리는 감각에 의해 대상의 표층막만을 아는 대신 내부를 지각¹²⁾한다고 함으로써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에서 ‘인지의 과정’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런 사고의 과정을 언어적 행위로 규정하였다.¹³⁾ 즉, 언어를 매개로 주체의 체험은 일차적으로 촉발되는 감정과 연결하게 되고, 개입된 언어적 사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주관적 가치판단, 즉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가치문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시적 정서 체험을 이루는 문화가치인식의 접근과정에서는 ‘정서어휘’에 대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섬세하고 다양한 정서체험을 이루기 위한 ‘정서어휘’에 대한 탐색과 교육은 시를 활용한 가치문화 교육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2차_16_C_나의 가족]

저는 이시의 제4, 5, 6 소절은 읽었을 때 시적 화자의 감정변화를 느꼈어요, 처음에 4절에서 “누구 한 사람의 입김“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입김이 합쳐진 것“은 나의 눈을 밝게 하고, 저는 시어 “한 사람“, “모든“, 그리고 “합쳐진 것“을 통해 시적 화자가 동일한 가족의 입김이 인정해주는 태도를 보이고, 5절에 나가 화자가 위대한 고대조각의 사진을 읽었을 때 “가족들이 저마다 떠드는 소리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에 그들에게 전령(全靈)을 맡긴 탓인가“에서 화자의 질의하고 의심스러운 태도? 이런 감정 변화가 느꼈어요, 6절에서 시적 화자가 결국 서책이 주는 위대감이 나의 가족들의 기미 많은 얼굴에 비하여 아니될 것이라고 확정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집단주의 의식이 강한 나라다, 혹시 시적 화자가 이런 한국의 전통적인 조화와 통일적 가족모델, 이런 개인보다 집단이 더 중요하다는 문화의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 앙리 베르그송, 홍경실 역, 『물질과 기억』, 교보문고, 1991, pp.69-70.

13) 오정훈, 앞의 책, 2015, p.13.

위의 양상은 16번 학습자가 수업에서 김수영의 시 <나의 가족>에 대해 토론한 내용이다. 이 학습자는 1차 활동지에서 시의 길이가 부담스러워 시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2차 수업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시를 소절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시 텍스트를 더 깊이 있게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모습이 드러났다. 시의 소절대로 분석한 결과 4절에서 “한 사람“, “모든“, “합쳐진 것“을 통해 “시적 화자가 동일한 가족의 입김이 인정해주는 태도“를 보이고, “5절에 나가 화자가 스스로 질의하고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6절에서 “시적 화자가 한국의 전통적인 조화와 통일의 가족모델, 개인보다 집단이 더 중요하다는 문화의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도출했다. 단순히 정서를 드러내는 시적 어휘에만 주목하지 않고 시적화자의 ‘인정’, ‘질의’, ‘비판’이라는 감정변화를 거침으로써, 작품에 내재된 정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타문화에 대해 정의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학습자는 ‘정서어휘’를 통해 내면화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작품 속에 나타난 어휘 및 구절 간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정서를 환기시킴으로써 문화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나의 가족>과 같이 소절 전개에 따라 시적 정서를 나열하며, 정서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정서어휘 발견하기→정서 범주화하기→정서 재구성하기’ 과정을 거쳐 상호 관련성이나 특징을 고려해 유형별로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다.

2. 경험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소통

2.1 경험과 관련짓기를 통한 자기 인식 탐색

인식론의 측면에서 전개된 경험논의가 교육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듀이(J. Dewey)부터이다. 그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간의 이원론적 분리라는 관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참여자적 지식론’을

내세웠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경험의 개념은 “지식의 획득자로서의 개인”과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세계”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¹⁴⁾ 즉, 학습자 개인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속'에서 개인과 사물들 사이에, 그리고 개인과 다른 사물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경험은 단순히 개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인간이 다른 대상을 인식하도록 하는 매개물이다.

낯선 타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문화 경험도 서로 관련을 짓게 된다. 문학작품을 활용하는 한국어교육 관점에서 학습자가 한국 문학작품의 정서나 감정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가운데 일상생활의 직접적인 경험과 자국어 교육에서 학습한 문학 지식, 정서체험 등의 간접적인 경험과의 연관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¹⁵⁾ 즉, 문학 독서는 경험에 속해 있어서 그에서 파생된 문학경험은 경험의 상관물로 간주하기도 하고, 학습독자는 이러한 상관물을 통해,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세계에 개입하게 되며 작품 중의 인물과 공감할 수 있다. 문학 독서 활동은 일상생활의 즐거움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경험에서 파생된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경험은 바로 삶에서 비롯된 개인적 삶의 경험이라고 지칭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인간이 삶에서 부딪치는 기쁨, 슬픔, 즐거움과 같은 것이다.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경험과 관련짓는 것은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고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소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텍스트 읽기에서 나타나는 느낌이나 감각을 통해 개인적 경험을 불러일으킨 후, 텍스트에 대한 감정이입, 작중인물을 동일시하기, 연상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감정효과를 확대시킨다. 이런 과정에서 '나'와 '타문화'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묻고 답을 찾게 된다. 상호문화관점에서 '상호(inter-)'라는 접두사는 타자를 보는 방법과 자신을 보는 방법에 모두 관련되어 있고 인식은 타자와 자

14) 엄태동 편저,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원미사, 2001, pp.59-60.

15) 윤여탁, 「다중언어문화 한국어 학습자의 문식성교육」, 『국어교육연구』 Vol.42 No.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8, pp.245-246.

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달려 있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모든 질문은 자신에 대한 질문과 겹친다.¹⁶⁾

[2차_03_C_작은 부엌 노래]

이렇게 비교하자 보면 중국에서의 '부엌'은 가정에서 중요한 일부이고, 밥을 하고 같이 먹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가족들끼리 서로 일상의 소소한 얘기를 공유하고 아주 따뜻한 곳이에요, 우리 집도 그렇고요, 부엌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구든 다 즐겁게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시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슬프지도 힘들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를 하는 행복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부엌에서 가족의 역할 분배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주변의 한국인 친구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집안의 어머니가 집안일, 부엌에서 요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중국보다 한국에서 이런 인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이 이런 의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어요.

위의 3번 학습자는 시에서 나온 '부엌'이라는 곳은 한 가정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라서 가족주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부엌'은 평범한 일상과 멀지 않은 친숙감이 느껴지기에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부엌'이라고 해도 경험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의 '부엌'이 가진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는 새롭게 다가오고, 이러한 인식적 차이로 인해 문화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체험함으로써 개인적 삶의 경험을 환기하여 자연스럽게 문화에 몰입하게 되는 양상이다. 경험과 관련짓는 과정에서 자문화와 타문화의 소통을 이루게 되면서 학습자들은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1차_19_A_家庭]

16) M. Abdallah-Pretceille, 장한업 옮김, 앞의 책, 2010, p.75.

이 시에서는 자주 “아홉 켤레의 신발“라는 시어가 나타나요, 저의 이해는 이 “아홉 켤레의 신발“은 바로 가정의 가족구성원의 상징이에요. 아버지의 십구문반 큰 신발은 아버지를 상징하고, 육문삼 작은 신발은 아이를 상징하는 것이다.....(중략).....지상에 있는 추운 길을 걸어온 시발을 통해 아버지라는 어설피품을 표현하고 가족 생계를 위한 수고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래는 수업을 진행했을 때 이에 대한 토론의 내용이다.)

[2차_19_C_家庭]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은 방에서만 말고 식당에서, 학교에서도 신발을 많이 벗는 편이에요, 한국에 가서 유학했을 때 이런 것을 보면 처음에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거도 아마 한국에서 특유한 '신발문화'이예요, 한국 사람들이 집에 가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두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 현관에서의 “아홉 켤레의 신발“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인이 신발을 통해 가정 정원을 상징하고, 그리고 현관에 둔 추운 길을 걸어온 신발로 아버지의 고달픔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특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중략).....중국에서는 집에 와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입지만 다른 데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을 아주 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중국의 문학작품도 부모애를 표현하면, '신발'보다 '옷'을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 당나라 시인 맹교(孟郊)의 시 유자음(游子吟)중에 원정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실로 옷을 열심히 꿰매요...(중략)

위의 19번 학습자는 “아홉 켤레의 신발“을 가족 구성원의 상징으로 보고 자기가 한국에서 유학했을 때 겪은 문화체험을 통해 시적 의미를 추론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자면 이것은 한국의 특유한 '신발문화'와 관

계된 것으로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 달리 보통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에 익숙하다. 19번 학습자는 이런 문화체험을 환기하여 이 시의 주인공인 '아버지가 집에 와서 현관에서 본' 아홉 켤레의 신발을 가정으로 생각하고 시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박목월의 <家庭>은 '문수가 다른 신발'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힘든 세상에서의 아버지의 고달픔, 자식들을 보면 행복하다는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시 작품이다. 19번 학습자는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발 벗기'와 집에 돌아가서 현관에서 본 신발을 결합하여 시적 의미를 분석하였고, 신발의 수량과 크기는 곧 가족을 상징한다는 것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가족문화에 접근한다. 한국문화와 달리 중국에서는 '벗는 신발'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측면의 인식이 있고 예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19번 학습자도 처음에 이런 문화를 경험했을 때 '문화충격'을 받고 시에서 신발로 아버지의 고달픔을 표현하는 것을 한국문화의 특수성이라고 느꼈다. 문화충격은 학습자가 상호문화적 주체로서 문화 이질성을 경험할 때, 규범, 동작, 생활방식 등에 대해 해석이 어려워지고 문화이해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감정이다.¹⁷⁾ 문화교육 논의에서 문화충격의 단계는 오베그(Oberg)¹⁸⁾의 문화충격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타문화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태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권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환경을 즐기게 된다는 이론이다. 바로 이런 문화충격은 학습자가 시 의미를 해석할 때의 중요한 요건이 되고, 새로운 문화에 접근하여 자기인식을 탐색할 동기를 부여한다. 위의 학습자는 한국 유학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문화충격에 적응이 되었으나 실제 학교 수업에서 한국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학습자도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교사는 학습자의 문화충격을 충분히 활용하여 문화 간의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2차_26_C_나의 가족]

17) Chaves, Rose-Marie, 서영지 옮김, 앞의 책, 2019, p.70.

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한국어교육학사전』, 2014, p.1278, '문화 학습 모형 항목'참조.

제가 이 시를 읽었을 때 되게 공감된 것은 바로 한국인의 강한 '집단성'(집단주의)이에요, “누구 한 사람의 입김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입김이 합쳐어진 것“,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지 않고 가족의 이익, 또한 가족 하나하나가 구성된 이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을 강조하는 경향이 한국에서 아주 뚜렷해요, 시에서 나온 것처럼 항상 조화와 통일을 추구해요, 제가 한국에서 2년 동안 살았는데 제일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눈치'를 많이 본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한 집단에 속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항상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눈치를 잘 보는 것은 집단에서 개인적인 성격을, 남과 다른 행동 너무 티나게 보이지 않고 최대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게 오늘날 중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개인주의, 개인적 특색 달리 한국은 집단주의 경향이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자기의 집단 소속 많이 강하다고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대학마다 학교마다 대학생들이 학과와 자기의 이름을 새겨진 과복 다 있어요.....(중략).....

위의 학습자는 <나의 가족>에서 “누구 한 사람의 입김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입김이 합쳐어진 것“을 통해 시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시의 주제를 '조화와 통일'로 도출하였다. 한국에서 2년 동안 살았던 개인적인 경험을 환기하여 한국은 '집단주의 의식'이 강한 나라라는 사실을 밝히고, 시에서 반영된 개인보다 항상 가족, 집단이 우선한다는 가치경향을 인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 학습자가 이 시에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없지만 한국에 있었던 경험을 환기함으로써 한 집단에 속한 한국인들이 '눈치'를 많이 본다는 현상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집단에 대한 중시를 밝혀내었다. 이렇게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문화와 개인적 경험을 연관 지을 수 있게 되고, 경험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이해지평이 더욱 넓어진다.

듀이(J. Dewey)는 경험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인간의 학습 성장과정에서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경험은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¹⁹⁾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학습자는 개인의 경험을 거둬들여 고찰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확장시키면서 경험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 있고, 자신의 기대지평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학습자의 이해지평의 확장은 기존의 지평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결합하여 서로 융합하며 의미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위에서처럼 개인 경험을 통해 문화를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문학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상호텍스트 이해를 통하여 내포한 구체적인 문화요소나 맥락에 접근하여 문화 간의 소통을 이루게 되기도 한다. 상호텍스트는 한 텍스트와 연관된 다른 텍스트를 뜻하며, 상호연관성 기반의 시 이해는 상호연관적 동위소 발견, 텍스트 간 긴장 관계 탐구, 상호텍스트의 발산적 환기로 이루어진다.²⁰⁾ 이 중에서 학습자는 텍스트에서 나타난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이에 반응하여 자기의 시각으로 마음 이미지를 그려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습자가 이전의 독서 경험과 새로운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것이다. 또한 텍스트에서의 인물관계나 행위는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는 것을 촉진하고, 경험을 정교화 하여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2차_18_C_家庭]

이 시를 통해 저는 묵묵하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중국 현대 산문 중 되게 유명한 산문

19) 엄태동 편저, 앞의 책, 2001, p.115.

20) 전홍,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 한·중 현대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pp.23-24.

작품 하나 있는데 朱自淸(주쯔징)의 <背影(뒷모습)>이에요. 이 작품에서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에든 중국에든 아버지는 항상 말이 그렇게 많이 없고 산처럼 과묵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위의 양상은 18번 학습자가 자문화 상호텍스트를 활용하여 지식을 환기한 양상이다. 박목월의 <家庭>에서 나온 고생하신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하게 중국 작가 朱自淸(주쯔칭)의 산문 <뒷모습>에서 나온 아버지도 곧 떠나는 아들을 위해 힘들어도 꿀을 사오는 이미지이다. 18번 학습자는 상호연관적 동위소, 즉 텍스트 간 유사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학적 경험을 환기하였다. 이와 다르게 인식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2차_22_C_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읽었는데 이 시는 가정의 남성, 즉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했어요.(.....중략.....) 이 시를 통해 집에서든 사회로 나가든 항상 남자답게 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억울함과 슬픔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삼켜 참아야 하는 굳센 성격이 가진 한국 아버지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중국 산문가 朱自淸(주쯔칭)의 작품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작품에도 시와 같이 아버지의 씩씩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탱이 되는 모습을 묘사했지만 그렇게 한국작품처럼 고착된 아버지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나'를 위해 감골을 주운 장면을 통해 감동을 표현했을 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양국 문학작품속의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차이는 있다는 것은 아마도 '가부장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인 농경사회구조로 인해 '아버지'도 '가장'의 모습으로 고착화 되면서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남성지상', '남성중심' 의식이 여전히 강해요. 하지만, 중국의 아버지가 절대 한국의

아버지만큼 높은 지위가 없어요.

이처럼 22번 학습자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통해 한국문화 속에 고착된 '군센 성격을 가진' 아버지의 이미지를 도출하였고, 같은 주제를 가진 중국 산문 작품 주쯔칭의 <뒷모습>을 환기하여 문학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두 작품을 연결 짓고 있다.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아버지의 이미지를 '씩씩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탱' 하는 것으로 구현하고 있지만 한국 '가부장제'문화 영향하에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다는 것도 밝혀내었다. 또한 이 학습자는 '농경사회구조'라는 과거 사회 특성에 입각하여 한국 현대사회의 '남성지상', '남성중심'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강하다고 보고 작품을 넘어서 문화에 대해 능동적인 탐색과 더 심층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의 문학경험을 활용하여 문화 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문학작품의 비교는 단순히 텍스트 내부의 구성요소 간 비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연을 넓혀 작품 이외의 모든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²¹⁾ 즉 교사는 문학비교에서 문화소통까지 이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고 학습자한테 적극적으로 문화를 탐색할 동기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2.2 사회·역사적 맥락을 통한 타문화 이해의 확장

문학 텍스트는 사회·역사적 배경, 사회의 관계, 주체들 간의 관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텍스트와의 소통을 통해서 시에 드러난 세계에 대해서도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소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경험과 관련짓기는 삶에서 비롯된 개인적 삶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사회·역사적 맥락의 환기는 사회에서 기인한 대중적(大衆的) 문화인식이다. 왜냐하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스스로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21)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09, p.255.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마다 가진 경험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특성을 띠게 되므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공유한 상식으로 부터 다른 대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곧 인간은 다른 대상을 인식하기 전에 사회에서 온 그에 대한 선행인식을 이미 갖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경우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은 타문화와 연관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타자나 타문화에 대한 피상적 인식에 머물 위험성도 품고 있다.

시를 읽는 것은 학습자와 시 텍스트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학습자를 둘러싼 사회·역사적 맥락 간의 소통도 포함한다. 학습자들은 위에서처럼 개인 경험을 활용하여 문화를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자국 사회·역사적 맥락과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여 의미를 구성해 나가고, 실제 구체적인 사회·역사적 맥락의 환기를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2차_01_C_퇴근 시간]

이 시는 비록 한국의 시이지만, 사실 세계의 보편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교문화의 영향을 깊게 미치게 된 나라에서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늘 '현처양모'같은 모습으로 인식되는 것이예요.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남녀평등을 제창해오고 여성의 지위를 사실 많이 향상시켰어요.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불평등이나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제' 사상이 여전히 두 가지 가정형태에서 아직도 심해요. 하나는 상류 사회의 부자계급이고, 다른 하나는 시골이나 빈곤한 지역에 있는 하층계급이에요. 이런 가정형태에서 남녀의 역할은 뚜렷하게 분배하게 되고 '남존여비' 사상도 여전히 존재해요. 이와 비하여 중급계층 가정은 남녀평등 의식을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남녀역할의식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중국의 대부분 가정은 중급계층으로 속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회가 심각한 경제격차로 인해 사회구조상 보면 불균형한 상태에 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여성의 지위는 한국 여성보다 높은 것 같아
요.

위의 학습자를 보면, 이 시를 단순히 텍스트로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 그리고 사회현실과 관계를 짓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계급으로 인해 가정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여성의 지위는 한국 여성보다 높다는 관점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관찰에 그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회맥락을 환기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사회맥락을 비교·탐구하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듯이 학습 독자는 독립적인 존재지만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또한 문학은 한 지역 공동체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학습자와 텍스트 간의 소통의 본질은 학습자가 실제로 처한 사회문화와 문학작품에 반영된 공동체 간의 문화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²²⁾ 이렇게 학습자는 다른 문학작품이나 사회생활에 있는 문화를 해석하고 모국 문화와 관련짓기를 통해서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상호문화능력도 신장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학습자와 문화 관련짓기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위의 학습자는 사회학 영역 전공하고 있는 학습자라서 능동적으로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경향을 보여줬는데 양상을 보면 대부분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사회적 경험을 환기하여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문학의 의미는 인간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고 인간에게 의미가 생길 때 문학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²³⁾ 다시 말하면 문학의 의미는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독자와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 시 텍스트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새로운 문화이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이해의 확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학습자가 자신을 들

22) 노금숙,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문학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51.

23) 김대행, 앞의 책, p.45.

러싼 자국 사회·역사적 맥락과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계속적으로 관련지어 의미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 해체주의 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에 따라 하나의 텍스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에 내재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호관계, 상호맥락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단일한 형태로 인식될 수 없고, 이는 실재와 영원히 차이를 갖게 되며 끝없이 유보되는 것이다.²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독자가 주어진 시 텍스트를 통해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야 문화교육도 유의미한 것이다.

[2차_16_C_우리 가족]

.....(중략).....지금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도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 상승하기 때문에 남성은 더 이상 가족의 위한 책임감, 절대적인 지위, 권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이 '현처양모'가 되어야 하는 고정관념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 여성이 이제 집안일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여러 직업을 종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국 정치와 외교' 수업에서 배웠는데 올해 한국의 국회의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배가 높아졌어요, 중국도 한국도 사실 이런 고정관념의 사상이 많이 약화되고 있어요.

위의 16번 학습자는 단순히 시 텍스트의 기본 내용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시대적 맥락을 환기하여 시대와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면서 가정에서의 남성, 여성의 이미지, 사회적인 역할도 많이 변화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이전보다 상승하여 '현처양모'가 되어야 하는 고정관념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 '사회적인 성역할의 변화'라는 사회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중국과 한국 모두 오늘날 가부장제

24) 김성곤, 『탈구조주의의 이해』, 민음사, 1990, p.98.

의 사상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 드러난 과거의 사회적 맥락을 넘어서 현대사회의 문화현상을 직면하고 한국과 중국의 사회문화의 공통점을 밝히며, 오늘날 사회문화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이루었다. 이렇게 사회·역사적 맥락의 환기를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때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대적 배경, 전통과 현대의 문화차이에 주목하게 해야 한다.

3. 성찰을 통한 상호문화적 태도의 형성

3.1 시적 공감을 통한 가치관 의식의 재확립

시의 본질은 인식론적 탐구에 대한 발견이고 시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으로 자아성찰을 깊게 펼쳐 갈 수 있는 대상이다. 여기서 자아성찰은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에 대한 질문이고 가치관 의식을 위한 근본적 토대로 자아로서의 역할 인식을 삼아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시 작품에 내재된 '가치 인식'도 독자의 시적 공감을 섬세하게 환기시키는 데 일조한다. 인간의 공감을 공통적으로 유도하는 '정의(情意, affectivity)'²⁵⁾는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치 평가에 기여한다. 시 읽기에서 학습 독자는 시인의 대리인으로 시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의 가치관에 공감하거나 반감을 표현하게 된다. 학습자들의 공감은 텍스트 요인과 독자 요인의 관계 맺기에서 시작하여, 양자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독자가 공감하는 대상은 시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된 상상적 세계이다.²⁶⁾ 즉 학습자가 시적 화자의 가치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서적 지평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가치관을 조절하여 재확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 작품 속에 형상

25) “문학교육에 있어 정의는 보통 인지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의는 정서 혹은 감정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돈하여 사용한다.” 황정현, 「초등학교 문학교육의 정의 적 영역의 문제와 교육방법」, 『문학교육학』 Vol.1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PP.70-72.

26) 최지현, 「문학독서의 원리와 방법」, 『독서연구』 Vol.17 No.0, 한국독서학회, 2007, p.72.

화된 작가의 지성과 감성, 드러나는 가치관은 학습 독자에게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기에 가치 인식 중심으로 한 시 교육에 주목할 만하다.

[3차_02_W_작은 부엌 노래]

<작은 부엌 노래>라는 시는 한국 여성이 '부엌'과 같은 공간에 억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집안일은 여성들의 몫이라는 불평등한 고정 관념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작가는 단순히 여성의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여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여성의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 시를 읽고 나서 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여성이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봤다. 지금 중국에서도 '신세대 독립여성'이라는 말 자주 들었다, 어떤 모습이 '신세대 독립여성'의 모습일까? 저라면 이 '독립'은 꼭 가정에 벗어나 사회로 진출해나가는 것도 아니다, '독립'은 의미는 시처럼 정체성이 잃어버린 여성이 답지 않게, 내가 추구하는 것을 똑똑히 아는 것이다, 그게 가정을 위해서 전심으로 바치든, 나의 인생, 사업을 위해서 살든, 속박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목표로 향해 사는 모습은 바로 '신세대 독립여성'의 모습이다.

2번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여성에 대한 억압'이라는 의미를 도출하고 작가와 공감을 함으로써 '앞으로 여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변화된 여성의 모습에 대한 기대'를 통해 시적 세계와 자기 자신을 연결시켰다. 이 학습자는 중국의 '신세대 독립여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환기하고 '독립여성'이라는 모습을 밝혔다. 그리고 '독립'에 대해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달리 꼭 가정에 벗어나 사회로 진출해나가는 것도 아니라, 시 속에 정체성이 잃어버린 여성이 답지 않게, 여성으로서 가정을 위하든, 자신을 위하든 이상적인 자기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독특한 관점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시 텍스트에서 나온 여성인물을 통해서 스스로 가치관 의식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은 충분히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 작품을 매개로 사회현실로 나아가 실제 인물의 삶, 경험과 갈등을 공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해 가는 일은 자기성찰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 작품 속의 인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학습 독자의 문학적 감수성이나 서정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갈등이나 사건을 유발시킨 인물에 주목함으로써 인물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학습자들 나름대로의 판단과 평가를 내리게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요한 인물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반성과 가치관 의식의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3차_23_W_우리 가족]

이 시에서 다른 문학작품에서 나온 기계처럼 매달려 일해야 하는 아버지, 일상 집안일만 하고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 없이 행복하고 조화로운 일상의 가족의 모습을 그려준다, 잘 생각해 보면 전에 읽었던 가족에 관한 시 작품을 포함하고, 다른 장르의 한국, 중국 문학작품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고생, 책임이다. 아마 이거도 전통적인 가족주의 문화 속에 부모님의 역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사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는데 부모님이라면 무조건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건가? 그 반면으로 자식한테 무조건 부모님을 위해 효도를 강요해야 되는 건가? 부모가 희생한 만큼 자식도 부모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대의 가족의 의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23번 학습자는 시 <우리 가족>에 그려진 행복하고 조화로운 가족의 모습과 다른 중·한 문학작품에서 보편적으로 그려진 가족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 그리고 자녀로서 효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부모님이라면 무조건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건가? 그 반면으로 자식한테 무조건 부모님을 위해 효도를 강요해야 되는 건가' 라

는 의문을 제기하여 오늘날의 '가족가치관'에 대해 스스로 질의하였다. 시 교육에서 작품을 이해와 감상을 위한 객관적 대상으로만 보게 하지 않고 학습 독자와 작품 상호 간의 교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 이렇게 시 작품을 가치의식의 매개로 활용하게 되면, 시 작품과 공감하여 유발되는 정서적이고 심미적 반응과 아울러 '자기의 삶'에 주목하고 시 작품을 자기화하며 내면화하는 데²⁷⁾ 효과적일 수 있다. 시 속에 드러난 인물의 내면을 관찰하고 그에 대해 공감과 반감을 수행하면서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그 속에 존재하는 자아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 것이다.

[3차_07_W_퇴근 시간]

시를 통해 작가가 '남녀평등'에 대한 추구를 추출할 수 있는데, 저는 남녀의 생리상의 다름과 사회적 요인으로 절대적인 '남녀평등'은 현실적으로 이루기에 어렵다. 하지만 꼭 누군가가 앞길 서서 이를 위해 소리를 내주고 기울이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울러 7번 학습자는 시에 내재된 '남녀평등에 대한 추구'라는 가치관을 추출하고 불가피한 요인으로 절대적인 '남녀평등'을 이루기에 쉽지 않지만,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 깊은 관점을 내세웠다. 이렇게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 읽기에서 나타나는 느낌이나 감각을 통해 개인적 경험을 불러일으킨 후, 텍스트에 대한 감정이입, 작중인물을 동일시하기, 연상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감정효과를 확대시킨다. 이 가운데 특히 동일시하기 및 공감하기를 통해 학습 독자와 텍스트 간의 간격효과를 해소시키고 시의 의미로 승화시켜 가치관의식도 재확립하게 된다.

시 교육을 문화의 한 양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에 따르면, 시 작품은 문화 유지 작용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적 양태로서의 지위를

27) 송희복, 「시교육의 이론적 성찰과 수업의 실제」, 『새국어교육』 Vol.0 No.68, 한국국어교육학회, 2004, p.17.

갖는다. 학습자는 시 작품을 통해 다양한 삶과 사회현실 문화에 대한 경험은 물론 인간의 가치관에 대해 폭넓게 소유한다. 시에 대한 창작과 향유는 예술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인간의 삶을 미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문화 개체로서의 인간이 자아를 완성하는 길을 모색하는 노정(路程)이라 할 수 있다.

3.2 주체적 태도 조정을 통한 비판적 인식의 형성

상호문화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가 주체적 문화태도를 조정함으로써 비판적 인식을 형성하여 개인적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데에 있다. 이와 유사하게 문학교육의 본질은 개인이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여 학습 주체의 비판적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다.²⁸⁾

자기 삶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기 인식과 발견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타인과 타문화의 소통을 통해 자기와 자문화에 대한 삶의 영역을 확정해 나가는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고 타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적 태도를 조정하고 비판적 인식을 형성될 것이다.

[3차_19_W_아버지의 마음]

원래 한국에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남자는 무조건 밖에서 돈 벌어야 한다, 그리고 시에서 나온 표현처럼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눈물 나오면 안 된다, 조용히 혼자서 술 마셔도 외로움, 피곤함 혼자 스스로 견뎌야 한다. 중국도 그런 밀이 있다, ‘男兒有泪不輕彈’ (남자는 쉽게 울면 안 된다), ‘男子漢大丈夫’(사내대장부), 이 사회는 항상 남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 항상 참고 버티면서 연약하면 안 된다는 이미지다. 가부장제의 영향하에서 중국이든 한국이든 아버지는 언제나 튼튼하고 씩씩한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고

28) 장청원, 앞의 논문, 2018, p.50.

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성은 가부장제에 얽매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도 가부장제로 인해 많은 사회,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부장제 문화 영향하에서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시를 이렇게 읽고 나서 나는 가부장제문화와 그의 영향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 학습자는 시에서 나온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중국의 관용어 ‘男兒有泪不輕彈’(남자는 쉽게 울면 안 된다), ‘男子漢大丈夫’(사내대장부)와 연결시켜서 가부장제의 영향 하에서 중국이든 한국이든 아버지가 언제나 튼튼하고 씩씩한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가부장제 문화의 양면성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가부장제 가족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다고 하였다. 대부분 학습자들이 ‘가부장제’ 가족주의 문화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면 자연스럽게 ‘여성’의 시각으로 고민했는데 이 학습자는 성찰적인 관점으로 문화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단순히 텍스트 의미의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 충돌하는 의미를 판단하며, 문화적 인식과 태도를 스스로 조정하여 비판적 안목으로 다시 문화를 바라보게 된다.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여 학습 주체의 비판적 능력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시 교육의 핵심이자 문화교육의 본질이기도 한다.

4. 학습자 집단별 반응의 특징과 타문화 이해의 한계

4.1 제한 학습자: 개인의 문화 경험으로 인한 한국문화 특수성 이해 부족

대부분 제한 학습자가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유학하거나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중 학습자에 비해 적극적으로 문화적 경험

을 환기하여 한국 가족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인다. 앞서 2절에 경험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소통의 양상([2차_01_C_퇴근 시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한 학습자에게 개인의 문화적 경험 그리고 사회·역사적 맥락의 환기에 대한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 거리가 가깝고 한·중 문화는 같은 동양문화에 속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상이한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 특수성에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문화적 경험의 환기는 한국 가족주의 문화와의 정의적 거리를 좁히고 시 이해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제한적인 경험의 일반화 및 적용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쉽게 한·중 문화를 같은 문화로 보거나 한국 가족주의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는 타문화를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작용된 장애 요인으로, 학습자들의 잘못된 해석, 오독 등의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_07_A_퇴근 시간]

이 시의 구조상 보면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이고 뒷부분에서 작가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여성을 구원할 희망을 신명(神明)에 걸렸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어두운 현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을 표출한다.

(아래는 위의 내용에 대한 인터뷰다.)

[1차_07_I_퇴근 시간]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시를 읽었을 때 '마고할멈'과 '새악시'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왜 이런 이미지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원래 마고할멈 이라고 해서 그냥 중국의 장수(長壽)신선인줄 알았는데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통해 알고 보니까 이는 여자의 출산을 돕는 대지모신(大

地母神)이더라고요. 또한 이절에서 처음으로 나온 시어는 '그런데' 이에요, 그래서 이절에 “마고할멈의 도마 소리 잘 들린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의미일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여성을 구원하는 희망은 신명에 걸리고 시의 주제를 승화시키는 동시에 작가가 현실에 대한 무력감이 느껴졌어요.

위에서 살펴본 듯이 '부엌'은 보편적인 '여성'에 관한 상징일 수 있으나, 한국문화의 특수성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마고할멈'이나 '새악시'와 같은 낱말에 학습자는 생소함을 느끼고 시 읽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위의 학습자의 양상에서 새로운 타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모국의 문학 경험을 적용하여 시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전적 의미를 통해 시를 재분석하고 다시 문화로 확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많은 학습자들을 타문화를 바라보고 이해할 때 여전히 자문화 맥락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문화 관점을 상대화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중국인 학습자가 자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이미지에 대한 고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한국 현대시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방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처럼 '마고할멈'이나 '새악시' 같은 시어는 한국의 전통문화, 즉 한국 가족주의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외국인 학습자한테 생소하고 난해한 부분이다. 이때 학습자들에게 이해의 차이와 선입견이 있으므로 시 해석이 안 될 수 있고, 문화 이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해석할 때 학습자들의 자문화 중에 이와 비슷한 문화가 있는지, 자문화나 상호텍스트를 활용하여 문화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거리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개인들은 하나의 유일한 참조 모형으로 여겨지는 참조체계를 갖고 있다. 타인과의 만남은 순조롭지 않고 거기에는 오해, 심지어 거부도 있을 수 있다. 이만큼 타문화를 이해하고 타인으로부터 이해받는다라는 것은 복잡한 일이며 자발적인 태도와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4.2 재중 학습자: 자문화중심주의로 인한 개인희생 공감 부족

재한 학습자가 문화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재중 학습자는 문학작품에 주목하여 시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개인의 관점이 더 다양하며, 문학작품 자체에 대한 반응 양상이 더 활발한 편이다. 실험에 참여한 재중 학습자는 대학교 3, 4학년 재학생이고 거의 문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문학적 소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습자들이다. 중국 어문(語文)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문학교육이고, 각 지역의 어문교육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지역의 문학교육은 주로 고전시가의 암기와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습자들은 초등학교부터 중국 고전시가를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를 해석할 때 수사법을 찾는 데 능숙하고, 특히 시어의 구체적인 의미의 분석에 치중한다.

학습자들이 한·중 문학 텍스트에서 나온 '어머니'란 이미지의 의미를 비교하는 양상을 보면, 일부 재중 학습자가 '자문화중심주의'²⁹⁾에 매몰되어 시 속에 담긴 가족주의 문화요소 '개인희생'에 대한 공감이 많이 부족하다. 자문화중심주의 입장에서 학습자 자신의 문화경험은 한국 가족주의 문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가족주의 문화의 가치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다. 결국 학습자는 '개인희생'에 대한 공감이 부족함으로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 문화 간의 교류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2차_27_C_어머니]

중국과 한국의 시 작품을 비교할 때, 한국의 시 작품은 되게 세밀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시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서적 의미상 보면 이 시는 단순히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부모애에 대한 찬미에 머물고만 있는 것 같아요.

29)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란 자기 문화의 가치와 전통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문화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나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문선애,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와 다문화교육자의 리더십」, 『종교 교육학연구』 Vol.37 No.-,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p.176.

반대로 중국에서 '어머니'를 주제로 된 시 작품의 의미는 훨씬 더 대범하고 정서의 표현에도 더 직접적인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땅이 넓고 생각도 더 너그러운 것 같아요. 중국의 '어머니'의 관한 시중에 시인 艾青의 <大堰河我的保姆>라는 시로 예를 들자면, 중국의 시는 모성애를 찬송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항상 주제를 승화하여 나라에 대한 사랑, 우리의 조국모친을 찬송하고 있어요.

위 학습자의 인식에서 한국의 '어머니'에 관한 시는 단순히 위대한 '모성애'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의 시는 항상 모성애의 주제를 승화하여 더 뜻 깊게 조국, 나라에 대한 감정이 담겨있다고 하였다. 시에서 반영된 한국 가족주의 문화요소를 소홀히 하고 중국문화가 한국문화보다 더 우월하다고 평가하며 자문화에 대해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 어문 수업에서 배웠던 문학작품의 감상과 해석 기법 등과 같은 문학 경험을 구별 없이 그대로 한국 현대 시 해석에 적용하면 올바르지 않은 이해를 초래할 수 있다.

베르분트(G. Verbunt)³⁰⁾에 따르면, 서로와 다른 문화를 만날 때 '진정한 정신운동'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문화들과의 만남, 차이의 수용과 지각조차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각자는 만남에 대한 인상을 갖고 있고, 타자성에 대해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 호기심, 교류에 대한 신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문화가 다른 화자들이 만나면 일반적으로 그들 간에 지각의 괴리가 존재하고, 타문화와 만나는 과정에서 쉽게 '자문화중심주의'에 처한다. 이 경향은 자문화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 존재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경향은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문화를 접해야 비로소 자신의 문화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자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30) G. Verbunt, 장한업 역, 앞의 책, 2012, p.148.

보완하고 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4.3 재중·재한 학습자: 가부장제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

재중 학습자와 재한 학습자의 양상에서 공통적으로 한국의 가부장제 가족주의 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문화를 해독할 때 불가피하게 고정관념과 편견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문화의 고정관념 및 편견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 타문화에 대한 지식 부족은 그에 대한 인식을 표면적인 문화현상에만 머무르게 함으로써 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역사적 배경과 형성 원인에 대해 능동적으로 탐색하거나 타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교육적 처치가 요구된다.

[1차_10_I 퇴근 시간]

10번 학습자: 제가 본 한국 드라마에선 결혼여성은 항상 이 시에서 나온 여자처럼 부엌에서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밥을 준비해주고, 아니면 집안일 때문에 바빠요, 그리고 제 주변의 한국 친구에 따라 아버지가 부엌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는 얘기가 거의 못 들었어요.

연구자: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10번 학습자: 음, 아직 잘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한국에서 가부장제의 사상이 여전히 많이 심하고, 한국의 여성지위는 중국 여성지위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들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가부장제 문화가 존재한 지 오래돼서 고치기가 힘들걸요.....(중략).....

10번 학습자처럼 한국에서 길게 살아본 경험이 없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문화를 접하는 학습자들이 쉽게 “한국의 가부장제

가족주의 문화는 원래 그렇다, 그냥 그렇다“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제기하고, 가부장제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이렇게 '환경, 시대, 고정적 개념으로 인해 강요된 신념 또는 선입견을 '편견'이라고 한다. 사회과학 영역에서 편견은 “개인이나 집단이 타자성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판단이나 행동으로, 이것은 실제로 체험한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이라고 여겨지는 포괄적 사고에 기초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³¹⁾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포장된 이미지에만 그쳐 객관적으로 문화를 바라보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호문화적 이해능력은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기반하여 자문화와 타문화를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즉 학습자가 자문화에서 출발하여 타문화를 접하면서 다시 자문화를 뒤돌아봄으로써 변화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3차_10_W_퇴근 시간]

.....(중략)..... 한국은 선진국으로 치고자 해도 가족 구성에서 잘 발달하지 못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경제발전과 사회변혁의 미동기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재벌을 부추기며 '한강기적'을 이루었는데 국민의 생존공간도 좁혔다. 급속도로 발전한 경제에 따르지 못한 사람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기가 가정에서 지위와 관리를 추구하지 못했고 '가부장제' 문화의식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감상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위의 10번 학습자는 수업하고 나서 이전처럼 단순히 한국의 여성지위는 그냥 늦다, 그냥 그렇다는 인식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부장제' 문화의식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원인은 급속도로 발전한 경제와 뒤떨어진 인지의 불균형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학습자가 문화를 배울 때 사회·역사 맥락적 지식의 환

31) Chaves, Rose-Marie, 서영지 옮김, 앞의 책, 2019, p.79.

기를 이루게 되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풍부하게 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는 편견과 고정관념의 뿌리를 뽑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알아보는 데 있다. 즉 자신의 참조 기준을 객관화하고, 지속적인 중심탈피를 거쳐 상대성을 배우며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시각이 고정관념과 편견 혹은 자문화중심주의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며, 타문화를 자문화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로 인정하는 가운데 양 문화 사이에서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문화에 대한 주입식 교육을 지양해야 하고, 교실 맥락에서 지식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과 문화경험 공유를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IV.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교육의 설계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교육은 교사의 의도적인 계획 아래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호문화능력을 길러주는 실천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대시를 활용한 가족주의 문화교육은 상호문화의 역동성과 학습자의 주체성을 고려한 접근법으로서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방안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개인적 경험을 강조하고 학습자의 시 작품 읽기 경험을 환기하도록 하며, 타문화 문학과 비교하여 학습자가 주체적인 반성을 통해 심층적 자기 이해와 성찰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습자가 복수적이고 가변적인 정체성을 인식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한적인 지평을 넘어 비판적 사고로 확장시키도록 해야 한다.

III장에서는 현대시를 읽고 가족주의 문화에 대해 형성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현대시를 활용한 가족주의 문화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동시에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가족주의 문화 이해 과정에서 다양한 변인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난 일정한 한계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교수·학습의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하고 교수·학습의 방안을 마련하며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대하고자 한다.

1.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교육의 목표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문화에 적응하고 또한 문화를 비판하는 주체적 반응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 장에서 발견된 학습자 간의 차이와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줄여야 하며, 긍정적인 수업 효과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시를 활용한 가치문화 교육의 목표를 '지식 습득을 통한 문화 이해의 구체화', '비교와 소통을 통한 문화 해석 능력의 신장', '시적 공감을 통한 정의적 문화 이해'로 설정하고자 한다.

1.1 지식 습득을 통한 문화 이해의 구체화

현대시를 통한 지식 습득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문화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한국문화 지식을 주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문화 지식교육의 구안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 상호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를 통하여 한국문화를 접할 때, 자문화와 한국문화의 만남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상호문화 지식교육은 '지식'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데, 이 지식을 토대로 학습자의 상호문화 능력 혹은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으로 자문화 인식, 타문화 발견, 양 문화 비교, 타문화 관용(수용)의 단계가 제시된 바 있는데, 본고는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을 참고하여 한국 현대시를 활용한 상호문화 지식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통하여 타문화를 발견하며, 즉 한국문화에 접근하게 되고, 개인적, 사회적 지식 구성을 통해 한국 가치문화 요소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타문화를 수용하게 된다. 또한 시 텍스트는 빈자리가 많아 학습자가 개인의 경험과 상상력 등을 활용하여 보다 자유롭게 문화 지식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 따르면 자신의 자문화 인식을 객관화한 상태에서 타문화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은 자문화 인식이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자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바라보게 되어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신의 자문화 인식을 메타적으로 성찰하게 하여 균형 잡힌 관점에서의 타문화 지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1.2 비교와 소통을 통한 문화 해석 능력의 신장

타문화를 발견한 후 학습자는 양 문화를 비교해봄으로써 타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더욱 심도 있게 인식하게 된다. 이때 비교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비교와 소통과 같이, 서로 다른 문화 간에 속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상호문화 교육 목표가 제시하는 것처럼 상호문화적 접근은 자신의 자문화에서 출발해 타인인 타문화를 향해 나아간 다음, 다시 변화된 자신으로 돌아오는 나선적인 형태다¹⁾, 시 읽기에서 학습자는 시와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타문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질문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자문화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태어나면서부터 문화를 내면화한 개인은 그것이 조건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한다.”²⁾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자문화에 대해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여긴다. 마치 매 순간 들이마시고 내뿜는 공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타문화인 한국 시 텍스트를 매개로 한국문화를 탐색하게 되면 타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문화를 자문화와 관련지어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자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도 가능해진다. 이렇듯 타문화의 언어 문화 맥락에 몰입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맥락에 대한 인식도 활성화한다. 따라서 한국 현대시 교육을 통한 문화 간 소통은 타문화와 자문화에 대한 능동적인 인식 탐색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학습자들이 자신의 관점을 상대화하여 내면화된 문화를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문화에 대한 해석 능력도 신장할 수 있다.

1.3 시적 공감을 통한 정의적 문화 이해

시 문학에서 정서는 여타 문학 장르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여겨진다. 특히 시 문학에 대한 학습자의 정서적 반응은 인지적 사고와 밀

1) Maddalena De Carlo, 장한업 역, 앞의 책, 2011, p.8.

2) G. Verbunt, 장한업 역, 앞의 책, 2012, p.30.

접한 관계가 있다는 논의에 주목할 만하다. 정서는 체험에 의해 유발된 단일적 내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상황과 대상에 대한 평가와 해석에 따라 감정의 질과 강도가 결정³⁾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정서의 유발은 심리적 변화와 자극 대상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단순히 생리적 반응과 자극으로 인한 일차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의 형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이때 시 교육에서 학습 독자의 정서적 반응은 시를 매개로 텍스트의 논리적 구성요소와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정서 및 인지적 측면의 반응과 변화이므로 단일한 차원을 넘는 심리적 실체로서 시적 정서라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현대시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의 활성화를 통해 형성한 중국인 학습자의 정서적 반응은 가치문화에 대한 정의적 이해라고 볼 수 있다.

2.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교육의 내용

앞서 III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집단별 반응의 특징과 가족주의 문화 이해의 한계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절에서는 한국 가족주의 문화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다. 앞선 양상의 특징과 한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개입하여 한국 가족주의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습자가 자문화중심주의 관점에 치우쳐 '개인희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가부장제 가족주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문화이해에 있어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비판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는 앞선 문제를 고려하여 현대시를 활용한 가치문화 교육의 내용을 '현대시 문화정보 해석을 통한 가족주의 문화의 특수성 강조', '상호텍스트 관계의 현대시 읽기를 통한 개인희생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확보',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맥락 이해를 통한 가부장제에 대한 고정

3) 임지룡, 『말하는 몸』, 한국문화사, 2007, pp.13-14.

관념의 탈피' 세 가지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1 현대시 문화정보 해석을 통한 가족주의 문화의 특수성 강조

한·중 문화는 같은 동양문화에 속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문화 간 차이에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문화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는 쉽지만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두 문화 간의 보편성에만 치중한다면 한국문화를 중국문화와 비슷한 문화로만 이해하여 한국문화의 특수성 발견이 어려워진다. 학습자가 자문화 의식의 틀에서 탈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중 문화 간 유사점, 특히 차이점의 발견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현대시는 문화적 산물로서 한 사회의 공동체문명, 가치, 정신세계를 내면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시어에 내포한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의미는 한 나라의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상징, 이미지 등 시적 표현은 문화적 '정보'를 담고 있으며,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시를 해석할 때 시적 상징, 이미지 등 시어의 특수성을 주목하여 양국 간 문화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 가족주의 문화의 특수성에 소홀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중시하는 내집단의 온정주의' 및 '우리를 제외한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이라는 문화특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학연이나 지연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중 가족주의 문화에 포함된 '공동체 문화', '우리'의 '정'문화에는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 유교적 가족주의는 사회 전반에 확대되어 '우리'라는 개념을 가져오게 되고 내집단 안에서는 정을 나누고 조화롭게 관계를 맺지만 외집단에게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국사회의 '우리 의식'은 운명공동체 의식과도 같이 내집단, 즉 '우리'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인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식은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냉정함과

무관심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가족주의 문화의 전체적인 특징, 영향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2.2 상호텍스트 관계의 현대시 읽기를 통한 개인희생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확보

중국인 학습자 대부분은 강한 자문화중심주의에서 비롯된 사고방식과 개인적 이익에 집착하는 태도 때문에 한국의 '가족주의'의 '개인희생'에 대해 낮설어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중국에서 가정마다 한 아이만 낳는 정책을 수행한 이후 가족 구성원들이 자녀에게 과도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외동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익히면서 성장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개인희생'이라는 문화적 인식을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타문화와 비교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가족주의'에 내재해 있는 '희생'에 대해 이해하려는 객관적인 태도를 양성함으로써 자문화의 내면화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가족주의 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시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시에 드러난 한국문화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의미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가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본고는 텍스트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는 교육, 즉 상호텍스트에 기반한 문화교육이 유용하다고 본다. 전홍(2014)은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는 과정을 텍스트 간의 긴장관계의 탐구이며, 이를 위하여 텍스트를 다양한 층위에서 비교해야 한다⁴⁾고 보았다. 즉 문학의 상호연관성을 도입하게 되면 문학교육을 통해 텍스트 자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주관적인 문화 인식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타문화를 객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문화인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의 문화 텍스트는 시 텍스트로부터 형성되는 다양한 문학 텍스트일 수도 있고, 개인·사회적 공동체의 사건, 매체 및 인터넷정보 등일 수도 있다. 학습자가 두 문화 텍스트의 긴장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변별적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자문화중심주의'에서 벗

4) 전홍, 앞의 논문, 2014, p.68.

어나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수정하게 된다.

2.3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맥락 이해를 통한 가부장제에 대한 고정관념의 탈피

중국인 학습자들의 양상을 보면 제한·재중 학습자가 가족주의 문화의 키워드를 '가부장제'로 파악하고 한국의 '남성우월주의' 가치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는 산업화, 근대화로 인해 한국의 가족 형태 구성, 전통적 가족주의적 특징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현대사회에서 정체성은 더 이상 단 하나의 집단 혹은 문화에 속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소속 관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은 복수적이며, 언제나 바뀔 수 있으므로 역동적이다.⁵⁾ 이러한 정체성의 역동적인 특성을 고려해볼 때, 가부장제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머물러 있으면 상호문화적 관점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오늘날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탈피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타문화를 객관적인 시각과 열린 태도로 바라보아야 한다. 특히 학습자들이 이러한 남녀 불평등 현상을 가정 내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경우, 이러한 불평등이나 가부장제 문화가 사회적으로 다른 형태로 변화하여 여전히 한국인의 문화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회·역사 맥락적 문화 배경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사회·역사적 맥락의 개념은 같은 사회,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태도, 문화적 규칙 등 추상적인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시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은 시의 내외적 의미를 규정하고 생성하는 여러 맥락 가운데 사회·문화 지식과 관련된 의미의 체계이다.⁶⁾ 대부분 학습자들이 한국의 사회·역사적 문화지식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문화를 접했을 때 쉽게 '그냥 그렇다, 원래 그렇다'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초래하게 된다. 타문화에 대한 인식은 표면적인 문화현상에 머물러 있어 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역사적 배경, 형

5) Chaves, Rose-Marie, 서영지 옮김, 앞의 책, 2019, p.31.

6) 임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호문화적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1, p.22.

성하는 원인에 대해 능동적으로 탐색하지 못하고, 타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역사적 맥락의 문화 지식교육이 필요하다.

3.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교육의 방법

이 절에서는 III장에서 나타난 중국인 고급 학습자 집단별 반응의 특징과 한계를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앞서 제시한 교육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족주의 문화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학습자가 교실 맥락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실 환경에서 문화 구성의 주체로서 학습자의 능동성이 발휘되는 한국 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실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1 교사의 발문 제공을 통한 시 텍스트 이해의 촉진

문화 구성의 과정에서 학습자는 가장 먼저 감상문 작성을 통하여 텍스트의 소통소를 형성하게 되는데, 외국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한국 시 텍스트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돕기 위하여 교사는 학습자에게 텍스트 이해를 돕는 일종의 비계 역할을 하는 발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중심의 문화교육이기 때문에 교사가 일방적으로 시 텍스트에 관한 해석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발문에 답을 하는 가운데 적절한 방향으로 소통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살펴본 바와 같이 텍스트 외적 맥락을 개입하여 시를 해석하기 전 텍스트 내적 맥락에 기반한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이해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사의 발문도 텍스트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시적 상황과 정서가 무엇인지만을 간단히 묻기보다는, 시적 상황과 정서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어 혹은 구절을 선정하여 시 전체 맥락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모두 전반적 맥락 이해에 이룬 <작은 부엌 노래>와 <퇴근 시간>에 대한 발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작은 부엌 노래〉

1. 이 시에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포함된 시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나온 후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찾아보세요.

후각적: (어떤 냄새)/청각적: (어떤 소리)

어떤 의미인가? 이에 어떠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2. 표시하는 대로 시의 흐름은 2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앞/뒤 부분이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가?

3. 이 시에서 나온 '부엌'은 어떤 공간인가? 상징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4. 중국에서의 '부엌'같은 공간이 어떠한 공간인가? 개인의 경험/비슷한 중국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시의 나온 한국의 '부엌' 이미지와 비교해보세요.

5. 시는 어떤 주제/시대의 가치관을 내보내고 있어요?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시켜 서술해보세요.

〈퇴근 시간〉

1. 남편을 상징/지칭/비유하는 시어를 찾아보세요. 이 시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2. 아내를 상징/지칭하는 시어를 찾아보세요. 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시에서 그려진 여성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에 어떠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3. 이 시는 '부엌'이라는 공간적 배경으로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부엌은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중국에서의 '부엌'같은 공간이 어떠한 공간인가? 개인의 경험/비슷한 중국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시의 나온 한국의 '부엌'과 비교해보세요.
5. 시는 어떤 주제/시대의 가치관을 내보내고 있는가? 이에 대해 개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세요.

발문을 통하여 먼저 텍스트의 문자적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관련 상호텍스트 및 배경지식의 텍스트 외적 맥락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발문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문자적 의미 이해, 상호텍스트 환기, 개인·사회적 경험의 환기 순으로 발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자적 의미 이해 다음으로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호텍스트를 떠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두 텍스트를 비교했을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발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정의적 접근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시적 상황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 시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등의 발문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3.2 제한·재중 학습자의 감상문 공유를 통한 상대적 관점의 조화

현대시를 활용한 가치문화 교육의 수행 과정은 시 작품에 대한 감상과 텍스트의 해석 효과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비판적 사고 활동에서 문화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 학습자가 시 텍스트에 대한 감상과 문화이해에 대한 성찰은 감상문 쓰기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감상문 쓰기를 통한 성찰 과정에서 학습자는 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글로 표현하며 비판적 인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이 발견함으로써 상대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가 비판적

사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타자 의식, 상대화 의식, 자아성찰 의식을 신장시켜야 한다.

Ⅲ장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재한 학습자에게는 개인의 문화적 경험 그리고 사회적 맥락의 환기에 대한 반응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재중 학습자는 문학작품에 더 주목하여 시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반응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개인별로 보다 다양한 관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양상에 따라 재중 학습자와 재한 학습자의 문화적 경험과 문학적 관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상대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개입하기보다 동료 학습자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상문을 공유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다. 학습자들은 서로의 감상문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문화나 문학에 대한 관점을 확대할 수 있고, 보다 능숙한 학습자들이 미숙한 학습자들의 감상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감상문 나눔 활동은 학습자 자신의 반성적 사고를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자극하는 동인이 될 수 있기에,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상대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데에 이바지한다.⁷⁾

[3차_27_W_어머니]

중국과 한국의 시 작품을 비교해볼 때, 그중의 가장 큰 차이는 중국의 시 '어머니'라는 이미지의 의미는 단순히 가족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애뜻한 모성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정신과 주제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 충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넓은 영토로 모성애의 위대함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인 艾青의 시 <大堰河我的保姆>, 시인 舒婷의 <呵, 母親>은 모애를 찬송하는 시이지만 시 마지막으로 주제를 승화하고 나라에 대한 사랑, 우리의 조국모친을 찬송한다, 또한 聞一多的 <七子之歌>도 어머니와 자녀의 땄 수 없는 혈연관계로 우리 개인이랑 조국과 민족의 관계를 상징한다. 이는 중국의 20

7) 장청원, 앞의 논문, 2018, p.114.

세기 이후에 서방 열강과 일제 강점기의 침략에 당한 근대 역사와 관련이 있다.....(중략).....

위와 같이 27번 재중 학습자는 중국 현대시 작품 속 어머니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단순히 가족에 대한 애뜻한 사랑, 모성애에 머무르지 않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주제를 승화시켰다. 즉 자신의 문학 경험을 환기하여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27번 재중 학습자의 감상문은 3번 재한 학습자와 공유하였는데, 이 감상문이 3번 학습자의 관점을 확장하는 계기로써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_3_1_감상문 공유 활동 인터뷰]

물론 중국의 시 작품에서 나온 어머니의 이미지는 '조국, 토지, 민족'의 정신을 상징하지만 이것도 연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모든 연대의 어머니는 다 이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전통적인 어머니의 이미지는 독립적인 '여성'의 의미가 아닌, 가족을 위한 위대한 '모성애'의 여성이에요. 60, 70년대에 와서 27번 학습자가 제시한 관점처럼, 그때는 격동의 시대였다,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과 신앙으로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어머니'의 이미지는 가족을 지키고, 봉사하고, 애뜻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감정은 항상 나라에 대한 '애정(哀情)'이 담고 있어요. 이제 80년대에 이루어 서양 현대사상이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어머니의 이미지가 깨지고, '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한 '어머니'가 아닌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어요. 전에 읽었던 翟永明的 시 <母親(모친)>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이 시는 '어머니'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모호한 편이에요, 시인이 출산과 자식 부양은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서도 '어머니'가 가족에 대한 희생은 이해하려는 입장을 밝혔어요.....(중략).....

3번 재한 학습자는 위의 27번 재중 학습자의 감상문을 읽어봄으로써 전에 환기하지 못했던 문학경험을 활성화시켜 동료 학습자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동료 학습자 간 감상문 공유는 학습자의 문학 경험이나 문화 경험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교육의 장(場)에서 학습자의 경험 환기를 가능케 하는 이러한 상호작용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개인의 절대적인 관점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문학인식, 문화인식을 객관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석하려는 시각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감상문 공유 활동은 학습자에게 토론의 장(場)을 마련해 주고 개인적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학습자에게 작품 해석의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3.3 학습자 간 토론 및 교사와의 대화를 통한 성찰적 태도의 형성

III장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는 모국 문화 경험 그리고 자문화중심주의 등 사고방식으로 인해 타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교육은 중국인 학습자가 개인의 문화인식을 성찰하여 자문화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타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교실 내 대화에 주목하였다. 최미숙(2006)은 대화중심의 현대시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대화란 두 주체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이나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시적 사유방식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적 사유를 추동시키는 상호소통 형태의 대화를 말한다.⁸⁾ 이에 따라 교실 환경에서 성찰적 태도는 학습자 간 토론, 학습자와 교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자 간 토론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학습자는 내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인식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시 텍스트와 자기 자신을 관련지어 의미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

8) 최미숙, 「대화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Vol.26 No.-, 국어교육학회, 2006, p.231.

내적 대화 질문 양식:

1. 시 작품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3. 왜 이런 경험이나 현상을 생각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하는 질문은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 보고 가치문화에 대한 이해 근거를 찾을 수 있게 하며 더 구체적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아울러 교실 내 학습자 간의 토론을 통해서 개인적인 문화경험과 문화인식을 공유·교환함으로써 더 다양한 시각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학습자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학습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인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해석과 인식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교실 내 토론은 학습자들의 문화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객관적인 문화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토론 문제:

1. 우리는 가족주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한·중 양국의 가족주의 문화가 어떤 차이/공통점이 있는가?
3. 생활 중에 이와 비슷한/다른 문화현상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학습자와 교사 간 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은 주도자가 아닌 안내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시 텍스트, 문화에 대한 특정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질문과 효과적인 수업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답을 유도하고, 문화인식의 조정이라는 교육목표를 강조하여 성찰적인 태도의 양성을 격려해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가치문화 핵심인 가족주의에 초점을 두어, 가치문화 요소를 담고 있는 한국 현대시를 활용하여 한·중 문화를 비교·성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상호문화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가치문화의 하위문화인 '가족주의' 문화를 선정하여 학습자가 시 텍스트에 나타난 가치문화에 대한 인식 양상을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학습자로 하여금 타문화의 인식을 객관화하고, 자문화에 대한 성찰적인 반성과 가치관의 재확립을 촉진시키며, 상호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외국어교육에서 문화를 통한 언어교육, 문화나 문학에 대한 지식, 문화자체를 주목한 교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목표언어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태도, 믿음, 사고방식이 공유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하며 해당 사회의 문화적 관점과 가치를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 현대시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를 통해 타자의 삶의 조건을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문화 간 공감대 형성하고 세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공유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어느 정도의 문화지식,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어 현대시를 통한 문화교육은 학습자의 주체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문화교육 관점에 입각하여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에 대한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호문화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가 주체적 문화태도를 조정함으로써 비판적 인식을 형성하여 개인적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데에 있다. 상이한 문화를 갖는 사람들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문화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화 간의 상호작용과 학습 주체의 지위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상호문화교육이 가진 장점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우선 가치문화의 개념 및 특성

을 검토하고 가치문화로서의 가족주의 문화의 속성 및 요소를 제시하였다. 현대시를 활용한 가치문화의 접근과정을 문화의 발견, 비교 및 소통, 상호문화적 태도 형성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시 텍스트 이해를 통한 문화이해의 활성화', '경험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소통', '성찰을 통한 상호문화적 태도의 형성'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의 반응 양상을 네 가지 측면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시 텍스트 이해에 입각한 문화이해' 양상에서는 '시적 언어표현을 통한 문화정보 발견', '시적 정서 체험을 통한 타문화의 정의적 접근'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시적 '문화정보', 예를 들어 시어 표현에 나타난 시적 상징, 이미지, 구절을 통해서 시에 드러난 문화요소를 파악하고, 또한 시 안에 내재한 정서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체험과의 연관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시 텍스트 안에 내재한 한국 문화요소에 보다 정의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가 시의 제목, 표면적인 의미가 내포된 시구, 해석하기에 어렵지 않은 시어에만 머물러 있어 시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 이럴 때 교사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각도, 다양한 단서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시를 해석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경험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소통' 양상에서는 학습자가 개인의 경험, 중국의 문화 경험, 그리고 사회·역사적 문화 경험을 환기하여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소통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경험과 관련짓는 것은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고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소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과정에서 '나'와 '타문화'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묻고 답을 찾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사회·역사적 맥락의 환기를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한테 적극적으로 문화를 탐색할 동기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성찰을 통한 상호문화적 태도의 형성' 양상에서는 학습자가 시적 감각을 통한 가치관 의식의 재확립, 주체적 태도 조정을 통한 비판적 인식

의 형성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적 공감을 통해 학습자와 시 텍스트 간의 간격효과를 줄이게 되고 시의 의미로 승화시켜 가치관 의식도 재확립하게 된다. 또한 성찰을 통해 학습자가 문화적 인식과 태도를 주체적으로 조정하여 비판적 안목으로 다시 문화를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중국인 학습자들 한국 현대시 상호문화 이해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 집단별 반응의 특징과 가족주의 문화 이해의 한계도 살펴보았다. 재중 학습자가 시 텍스트 자체에 대한 반응이 두렷하게 나타나지만 재한 학습자가 풍부한 경험의 환기로 문화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또한 재한·재중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역사적 맥락의 문화지식에 대한 파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가족주의 문화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개인희생에 대한 공감 부족, 가부장제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시 읽기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객관화하지 못했다. 교실 맥락에서 실용성을 고려하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중국인 학습자의 가치문화 반응 양상 분석에서 확인된 가능성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대시를 활용한 가족주의 문화교육의 설계를 구안하였다. 우선 교육의 목표는 '지식 습득을 통한 문화 이해의 구체화', '비교와 소통을 통한 문화 해석 능력의 신장', '시적 공감을 통한 정의적 문화 이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어서 교육의 내용은 '현대시 문화 정보 해석을 통한 가족주의 문화의 특수성 강조', '상호텍스트 관계의 현대시 읽기를 통한 개인희생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확보',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맥락 이해를 통한 가부장제에 대한 고정관념의 탈피'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은 '교사의 발문 제공을 통한 시 텍스트 이해의 촉진', '재한·재중 학습자의 감상문 공유를 통한 상대적 관점의 조화', '학습자 간 토론 및 교사와의 대화를 통한 성찰적 태도의 형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시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자문화와 한국 가치문화를 관련짓는 과정에서 타문화의 인식을 객관화하고 자문화에 대한 성찰적인

반성과 가치관의 재확립을 촉진시키며, 상호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인 문화요소와 현대시 작품을 이용해 고찰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아울러 학습자의 가족주의 가치문화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추가적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 논저

- 고경민, 김세준,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텍스트 선정과 활용에 대한 고찰 -단편소설을 활용한 가치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Vol.0 No.54, 겨레어문학회, 2015.
- 김경현 외, 한국서양사회학회편, 『서양의 가족과 성』, 당대, 2003.
- 김남희, 「현대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03.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김성곤, 『탈구조주의의 이해』, 민음사, 1990.
- 김소연,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 김수영, 『거대한 뿌리: 김수영 시선』, 민음사, 1995.
- 강소영, 「시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 연구-역사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Vol.15 No.1, 한국문예창작학회, 2016.
- 김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 연구: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 Vol.5 No.2, 한국언어문화교육학, 2009.
- 김유리, 「한국 현대시를 활용한 상호문화 지식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 김영란, 「문정희 시에 나타난 주체의 양상 연구 -크리스테바의 아브젝션 개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 김예리나, 「학습자 경험을 활용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

- 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 김율미, 「문화속으로: 현대시(詩)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지역정보화』 Vol.68 No.-, 한국지역정보개발원(구자치정보화조합), 2011.
- 권용혁, 「한국의 가족주의에 대한 사회철학적 성찰」, 『사회와 철학』 Vol.0 No.25, 사회와 철학연구회, 2013.
- 김정우, 「시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의 가능성과 방법」, 『先淸語文』 Vol.29 No.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1.
-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2.
- 김종대, 「시교육과 윤리의 문제 -가족 윤리와 사회 윤리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Vol.0 No.1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5.
- 김혜민,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 김후란, 『따뜻한 가족』, 시학, 2009.
- 김현승, 김인섭 엮음·해설, 『김현승 시전집』, 서울: 민음사, 2005.
- 김현자, 엄경희, 「한국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전개와 그 의미: 현대시」, 『한국언어문학』 Vol.51 No.-, 한국언어학회, 2003.
- 강현화, 「한국인의 가치문화 교수 방안」, 『언어와 문화』 Vol.3 No.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7.
- 노금숙,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문학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남민우, 「여성시의 문학교육적 의미 연구 -1920년대 김명순의 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Vol.11 No.-,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 민병곤 외, 『한국어 교육학 개론』, 서울: 태학사, 2020.
- 문선애,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와 다문화교육자의 리더십」, 『종교 교육학연구』 Vol.37 No.-,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 문정희, 『내 몸속의 새를 꺼내주세요: 문정희 페미시집』, 파람북, 2018.

- 문정희, 정한모...[등]편, 『어린 사랑에게 : 문정희 시선』, 서울: 미래사, 1996.
- 백광렬 외, 「한국의 가족주의와 가족 관념」, 『韓國社會學』 Vol.52 No.4, 한국사회학회, 2018.
- 박목월, 노승욱 엮음, 『박목월 시선』,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 박성,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반응양상 연구 -독자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Vol.14 No.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 박성, 「영화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교육 연구 -상호문화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Vol.15 No.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8.
- 박성, 「중국인 고급학습자를 위한 한국 가치문화교육 -현대시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Vol.14 No.2, 한국어교육연구소, 2019.
- 박은미, 『가족모티프와 근대시』, 한국문화사, 2009.
- 박영순,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Vol.23 No.-, 이중언어학회, 2003.
- 박윤우, 『현대시와 문화교육』, 푸른사상사, 2011
- 박영우, 「시를 통한 가족의 재탄생」, 『국어문학』 Vol.50 No.-, 2011.
- 박통희, 「가족주의 개념의 분할과 경험적 검토 -가족주의, 가족이기주의, 의사가족주의-」, 『가족과 문화』 Vol.16 No.2, 한국가족학회, 2004.
- 손승영,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지속과 변화-」, 『담론 201』 Vol.9 No.2,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 선주원, 「사회문화 맥락을 반영한 문학교육 지향」, 『문학교육학』 Vol.0 No.2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 신윤경,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과 문학 활용」, 『한국어문교육』 Vol.9 No.-,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1.
-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소 편, 『한국어교육학사전』, 2014.
- 송인섭, 『人間의 자아개념 탐구』, 학지사, 1998.

- 송영진, 『직관과 사유』, 서광사, 2005.
- 심영희, 「21세기형 공동체 가족’ 모델의 모색과 지원방안」, 『아시아 여성연구』 Vol.50 No.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1.
- 손예희, 「시 교육에서 상상적 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송희복, 「시교육의 이론적 성찰과 수업의 실제」, 『새국어교육』 Vol.0 No.68, 한국국어교육학회, 2004.
-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0, p.186.
- 유기웅 외,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2nd ed.)』, 박영, 2012.
- 임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호문화적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1.
- 왕녕, 「사회·역사적 맥락에 기반한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 연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오세인, 「시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정치·사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Vol.15 No.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4.
- 이수인, 「집단주의 형성 요인과 과정,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 『경제와 사회』 Vol.88, 비판사회학회, 2010.
- 오세영, 『꽃들은 별을 우러르며 산다』, 시와 시학사, 1992.
- 오세정, 「말하기·글쓰기의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교육-인터뷰를 활용한 대학 수업모형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16 No.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 윤영, 「문학을 통한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Vol.40, No.-,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4.
- 윤여탁,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Vol.14 No.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
- 윤여탁 외,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 태학사, 2002.

-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 교육』, 한국문화사, 2007.
- 윤여탁, 「시 교육에서 학습 독자의 경험과 정의에 관한 연구」, 『국어 교육연구』 Vol.0 No.3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7
- 윤여탁, 「다중언어문화 한국어 학습자의 문식성교육」, 『국어교육연구』 Vol.42 No.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8.
- 이재경, 『가족의 이름으로: 한국 근대가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 문화, 2003.
- 임지룡, 『말하는 몸』, 한국문화사, 2007.
- 오지혜,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범주 및 구조 설계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Vol.4 No.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 오지혜, 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 『국어교육』 Vol.0 No.131, 한국어교육학회, 2010.
- 오정훈, 『한국 현대시 교육론』, 경신출판, 2015.
- 엄태동 편저,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원미사, 2001.
- 윤혜옥, 「문정희와 김혜순 시의 젠더의식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장경섭,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파주: 창비, 2009.
- 조난희, 「에코페미니즘 시의 이해와 교육적 적용」, 『문학교육학』 Vol.0 No.67,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 정미경,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을 위한 광고 자료 선정」, 『한국어 교육』 Vol.28 No.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7.
- 정민구,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가족 사유의 한 양상」, 『어문논총(35)』 Vol.5 No.37,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9.
- 조연하, 「한국 가치문화교육의 사례 연구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인터뷰활동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Vol.15 No.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9.

- 정재찬,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집필한) 『현대시 교육론』, 서울: 역락, 2017.
- 장청원, 「문학작품을 활용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관념문화 교육 연구 -집단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 전홍, 「한국어 학습자의 상호작용적 시 읽기 양상 연구 -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Vol.29 No.-,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2.
- 전홍,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 한·중 현대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장한업,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프랑스어문교육』 Vol.32 No.-,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9.
- 장한업,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교육과학사, 2014.
- 최미숙, 「대화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Vol.26 No.-, 국어교육학회, 2006.
-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사계절 출판사, 1997.
- 최재석, 『韓國人の社會的性格』 (제6판), 서울: 開文社, 1980.
- 최재석, 『韓國家族研究』, 서울: 一志社, 1982.
- 최지현, 「문학독서의 원리와 방법」, 『독서연구』 Vol.17 No.0, 한국독서학회, 2007.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상), 국학자료원, 2006.
- 홍기정, 「한국문화교육에서 한국인 가치관의 실증적 규명에 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Vol.64 No.-, 우리어문학회, 2019.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 (<http://encykorea.aks.ac.kr/>)
- 함인희, 「가족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Vol.15 No.1,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4.
- 황정현, 「초등학교 문학교육의 정의적 영역의 문제와 교육방법」, 『문학교육학』 Vol.1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한하림, 「한국 심층 문화 교육을 위한 다중 텍스트 구성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Vol.11 No.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2. 국외 논저 및 역서

Alfred Holzbrecher, 『상호문화교육의 이해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정기섭·오영훈·김영순·이문기·변경원 옮김, 북코리아, 2014.

A. Cornes, *Culture from the inside out: Travel and meet yourself*, Intercultural Press, 2004.

Brooks, N. *Teaching culture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Foreign language annals, Vol.1 No.3,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1968.

B. Tomalin&S. Stempleski, *Cultural Awareness*, 임영빈 외 역, 『문화의 이해로 가르치는 영어』, 이퍼블릭, 2006.

Chaves, Rose-Marie, 서영지 옮김, 『알기 쉬운 교실 상호문화교육』, 북코리아, 2019.

G. J. Hofstede & M. Minkov,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3th ED.),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정신의 소프트웨어』, 학지사, 2016.

G. Verbunt, *La socié- té interculturelle*, 장한업 역, 『상호문화사회』, 교육과학사, 2012.

J. Bruner, *The Culture of Education*, 강현석·이자현 역, 『교육의 문화』, 교육과학사, 2014.

James W. Kalat & Michelle N. Shiota, 민경환 외 역, 『정서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8.

J. Collie&S. 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Louise M. Rosenblatt, 김혜리 외 역, 『독자, 텍스트, 시』, 한국문화사, 2008.
- M. Abdallah-Pretceille, *L'éducation interculturelle*, 장한업 역, 『유럽의 상호문화교육-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대안』, 한울, 2010
- M. Byra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7.
- Maddalena De Carlo, *L'interculturel*, 장한업 역, 『상호문화 이해하기: 개념과 활용』, 한울 아카데미, 2011.
-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U.S.),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21st century*, 3rd ed., Yonkers, NY: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2006.
- P. R. Moran, *Teaching Culture: Perspective in Practice*, 정동빈 외 옮김, 『문화교육』, 경문사, 2004.
- R. Scholes, *Textual power*, 김상욱 역, 『문학이론과 문학교육: 텍스트의 위력』, 하우, 1995.
- Smith, Philip,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 (1st ED.), 한국문화사회학회 옮김, 『문화이론 : 사회학적 접근』, 서울: 이학사, 2008.
- 다이애너 기턴스, 안호용·김홍주·배선희 옮김, 『가족은 없다-가족 이데올로기의 해부』, 일신사, 1997.
- 양리 베르그송, 홍경실 역, 『물질과 기억』, 교보문고, 1991.

〈부록〉

※ 중국인 고급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기술

아래 해당되는 사항에 '√'표를 하거나 정보를 간단히 적어주세요.		
성별	남	
	여	
과정	대학교	
	대학원	
한국어 학습 시간	2-3년	
	3-4년	
	4년 이상	
	기타	
체한(滯韓) 시간	없음	
	0.5-2년	
	2년 이상	
	기타	

2. 한국문화 학습에 대한 기술

※ 다음의 질문을 읽고 원하는 번호에 표시하거나 간단히 적어주세요.

●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 없다
- ⑤ 전혀 필요 없다

◎ 한국문화를 주로 어떤 식으로 접하고 있습니까? '√'표로 하거나 간단히 적어주세요.

문화수업		대중매체	
문학작품		친구	
여행관광		기타	

◎ 학교에서의 한국 문화교육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표로 하거나 간단히 적어주세요.

교사의 설명		영상이나 사진 등 매체	
문학작품		실제 문화 체험활동	
교사나 동료 학습자와의 수업 외의 대화		기타	

◎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한국문화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학작품을 이용했습니까? '√'표로 하거나 간단히 적어주세요, 가능하시면 작품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소설	
현대시	
수필	
기타	

● 고급 학습자로서 한국문화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항목을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문화 항목	순위	문화 항목	순위
한국의 역사문화		한국인의 사고방식	
한국인의 취미와 여가 생활, 의식주 문화		한국 현대사회에서 남아 있는 전통문화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의 경제/정치	
한국의 사회적인 현실문화 예절/서열/개인과 집단		한국의 공공시설과 사회 제도	

● 한국 가족주의 문화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개인 경험을 활용하여 간단히 서술해주세요.

● 한국문화와 중국의 가족주의 문화의 차이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 ① 매우 크다
- ② 크다
- ③ 보통이다
- ④ 크지 않다
- ⑤ 전혀 크지 않다

● 문화에 대한 태도(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가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 ①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 ② 많이 영향을 미친다

- ③ 적당히 영향을 미친다
- ④ 영향을 잘 미치지 않는다
- ⑤ 전혀 영향이 없다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Korean Value Culture Using
Modern Poetry
- Focusing on 'Familism'-

Huang Jia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cultural education plans for advanced Chinese learners with a focus on Familism, which is the core of Korean value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that modern Korean poetry is suitable as a sanction for value culture educ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value culture educ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advisoryization of learners who encounter other cultures and presupposes the following perspective. First, modern Korean poetry is closely related to human life, so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form a consensus between cultures and share critical reflection on the world by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 conditions of other people's lives. Second, Since Familism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Korean culture, it is worth selecting and researching it as a research problem.

This study first reviewed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value culture and examined the attributes and elements of Familism culture as a value culture. In addition, the principles necessary for modern Korean cities to utilize them in the educational field from the perspective of appropriate sanctions for educating value culture were

presented. The principles of Korean value culture education using modern poetry consist of three stages: 'activation of cultural understanding through poetry text understand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rough ventilation of experiences', and 'formation of intercultural attitudes through reflection', which is the theoretical basis of Korean value culture education using modern poetry.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analyzed and classified the actual response patterns of high-quality Chinese Korean learners to the Familism culture. As a result, learners' patterns were divided into 'cultural understanding based on poetry text understand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rough ventilation of experiences', 'formation of intercultural attitudes through refl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by learner group and limitations of understanding other cultures'. In other words, Chinese learners approach the target culture by first grasping the meaning of a given poem text in the process of accessing the value culture through poetry text. Next, by evoking one's own experience, awareness of value culture is formed through past literature experiences related to text or social and historical cultural experiences,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s achieved. By comparing and communicating with self-culture, learners finally realize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identity, form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and re-establish a sense of value by creating a sense of reflection on self-culture through poetic empathy.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by learner group and obstacles to understanding value culture based on specific data.

Based on the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confirmed in the above analysis of the value culture response patterns of Chinese learners, the design of Korean Familism cultural education using modern poetry was devised. First of all, the goals of education were divided into

'realization of cultural understanding through knowledge acquisition', 'improvement of cultural interpretation ability through comparison and communication', and 'definite cultural understanding through poetic empathy'. Subsequently, the contents of education were set step by step as 'Emphasis on the specificity of Familism cultur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ultural information in modern poetry', 'Securing objective awareness of individual sacrifice through reading modern poetry in mutual textual relationships', and 'Breaking away from stereotypes about patriarchy through understanding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of tex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o implement this suggested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poetry texts by providing teachers' questions', 'Inquiry from a relative perspective through sharing of reviews by learners in Korea and China', and 'Formation of reflective attitudes through discussions between learners and conversations with teachers'.

In Korean culture education,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dealing with Familism culture, especially using modern poetr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uses modern poetry to objectify learners' self-culture and Korean value culture, promote reflective reflection and re-establishment of values and mutual cultural identity.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modern Korean poetry, Intercultural understanding, Familism, value cultur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ent ID: 2019-20543